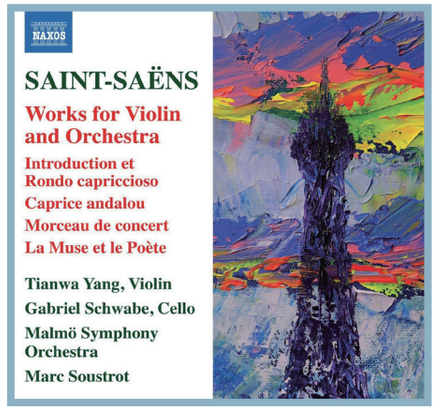


생상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티안와 양(바이올린),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르크 소스트로(지휘)

엇갈림에서 어울림으로

소스트로와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생상스 관현악 작품 4집은 피아노와 첼로에 이어 생상스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악기인 바이올린 작품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에서 명쾌하고 열정적인 색채 짙은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긴 티안와 양은 '안달루시아 카프리스', '하바네라' 등의 작품에서도 스페인의 인상에 담긴 작품의 각별한 면모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다. '뮤즈와 시인들'에서 첼로와 바이올린의 호흡은 '엇갈림에서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연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거침없는 바이올린의 향연은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에서 절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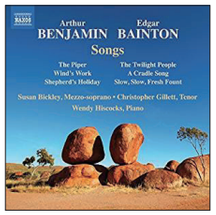
8573411 **[추천음반]**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대런 하겐: 21세기 연작 가곡집
저스틴 아론슨 · 질다 라이언스(소프라노), 조셉 게인스(테너), 다니엘 테이트(바리톤), 로라 워드(피아노)
사랑에 대한 행간의 단상
8559714

테리 라일리: 'Palmian Chord Riddle' & 'At the Royal Majestic'
트레이시 실버맨(전자바이올린), 토드 윌슨(오르간), 내슈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 카를로 게레로(지휘)
전자악기가 빚어내는 다양한 색채
8559739



아서 벤자민 & 에드가 베인튼: 가곡집
수잔 비클리(메조 소프라노), 크리스토퍼 질레트(테너), 웬디 히콕스(피아노)
과거의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여정
8571377

셉투라: 금관 7중주를 위한 작품 5집
셉투라-금관 7중주단(연주)
금관 7중주로 느껴보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백미
8573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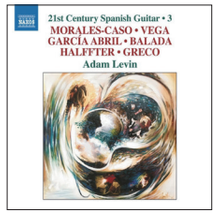
라즐로 라이타: '카프리치오' (op.39, 발레 모음곡)
페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니콜라스 파스케(지휘)
교향곡과는 또 다른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라이타의 발레 모음곡
8573649

체르니: '피아노협주곡 d단조', '서주와 화려한 론도'(op.233), '(베버의 《오리이안테》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 그리고 론도'
로즈마리 턱(피아노),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리처드 보닝(지휘)
풍만한 음향, 조화롭고 자연스런 흐름이 돋보이는 작품
8573688

오펜바흐: 서곡 모음집
대럴 앙(지휘), 릴 국립 관현악단(연주)
오펜바흐의 성공작으로 손꼽히는 오페레타의 서곡들
8573694

쇼스타코비치: 'Gadfly(등애)'(1965년 오리지널 스코어 전곡)
라인란트-팔츠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연주), 마인츠 바흐 합창단(합창), 마크 피츠-제럴드(지휘)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유명한 영화음악 'Gadfly(등애)'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곡
8573747 **[추천음반]**

프랑코 알파노: 피아노 작품집
오라지오 마이오네(피아노)
'투란도트'의 미완성 부분을 보필한 프랑코 알파노의 피아노 작품들
8573754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 3집
아담 레빈(기타)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의 르네상스를 장식하는 작품들
8573760 **[추천음반]**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74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4호 | December 2017

*Key Issue

EuroArts **푸치니 '토스카' DVD, Blu-ray**

Aulos 월드뮤직 **'채드 로슨', '여행자의 노래 8집' CD**

Ondine **'베토벤 3중 협주곡' CD**

*Cover Story

RCO Live **가티 '말러 2번' DVD, Blu-ray, SACD**

Key Issue

EuroArts 푸치니 '토스카' DVD, Blu-ray 3
Aulos 월드뮤직 '채드 로슨', '여행자의 노래 8집' CD 6-7
Ondine '베토벤 3중 협주곡' CD 41

Cover Story

RCO Live 가티 '말러 2번' DVD, Blu-ray, SACD 4-5

CD

Arco Diva 5
Aulos Media 6-7
Austrian Gramophone 8
Berliner Philharmoniker 8
Belvedere 9
BR Klassik 9-10
Capriccio 11-12
Col Legno 13
Dacapo 13
Daphne 14-15
Delphian 16
DSO Live 16
Dynamic 17
Farao 17
Fanfare Cincinnati 18
Gramola 18-19
Gothic 20
Grand Piano 20-21
IBS Classical 22
ICA Classics 22-23
Klanglogo 23
MD&G 24-26
Naxos 27-30
Ondine 30-31
OpusArte 31
Orchid 32
RCO Live 32
Resonus 33-36
Rondeau 36
Solo Musica 37-38
Sono Luminus 38
Stone Records 39
Tactus 39
Toccata Classics 40

DVD & Blu-ray

Accentus 42-44
Arthaus 45
BelAir 46-49
Berliner Philharmoniker 50
Belvedere 51
C Major 52-55
Dynamic 56
EuroArts 57-58
Farao 59
Naxos 60-61
OpusArte 62-63
RCO Live 64-65

4K & LP & Book

Busch Media **[4K]** 66-68
Proprius **[LP]** 69
RCO Live **[LP]** 69
Berliner Philharmoniker **[Book]** 70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황금의 3박자!
새로운 연출, 성악가의 열연, 최고의 지휘
푸치니 '토스카' DVD, Blu-ray

2017년 4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부활절 축제의 일환으로 선보인 푸치니 '토스카' 실황. 래틀과 베를린 필의 존재, 소프라노 크리스네 오폴라이스의 토스카 역만으로 이미 이 프로덕션과 영상물의 주가가 올라간 셈이다. 여기에 연출가 필리프 히멜라만과 무대디자이너 라이문트 바워의 무대가 새로움의 세계로 안내한다. 히멜라만은 2007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토스카'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낳은 연출가다. 거대한 눈동자가 무대에 선명히 박혀 있던 그 무대를 기억하는 이라면, 그 무대가 영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 등장했던 것도 알 것이다. 카바라도시는 뉴욕 한 복판에 위치한 듯한 스튜디오에서 그림에 열중하며 붓 대신 카메라를 들고 작업한다. 작품의 줄거리 빼고 모든 것을 '지금'과 '이곳'으로 옮겨놓은 셈이다. 카바라도시 역의 마르셀로 알바레스는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노래를 선사하고, 스카르피아 역의 마르코 브라토냐는 잔인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목소리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EuroArts 2064178 [DVD]

2064174 [Blu-ray]

2017 바덴바덴 축제극장 부활절 축제 실황
푸치니 '토스카' [한글자막]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트라, 필리프 히멜라만(총연출), 라이문트 바워(무대디자인),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토스카 역), 마르셀로 알바레즈(카바라도시 역), 마르코 브라토냐(스카르피아 역)

사랑하는 연인의 목숨을 구하려는 토스카는 자신의 몸을 요구하는 경찰청장 스카르피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극한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성당에 기도하러 온 후작 부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마리아를 그리던 카바라도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토스카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며 부르는 '오묘한 조화', 총살형을 앞두고 토스카와의 즐거웠던 날들을 가슴 저리게 회상하며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등의 명아리아를 최고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오페라다.

카바라도시 역의 마르셀로 알바레스는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노래를 선사하고, 스카르피아 역의 마르코 브라토냐는 잔인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목소리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2700석)에 이어 유럽 오페라 극장 가운데 두번 째로 객석(2500석)이 많은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RCO에 내재된 말러의 전통에 불어 넣는 가티의 새 바람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실황

말러 교향곡 4번으로 내한(2017년 11월 15 · 16일 롯데콘서트홀)을 했던 다니엘레 가티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담은 실황물(2016년 9월 18일)이다. 얀손스의 뒤를 이어 2016/17 시즌에 취임한 가티는 2009~2011년에 9명의 명지휘자와 함께 한 RCO 말러 전곡 연주에서 교향곡 5번(2010년 6월 25일 실황)을 지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 악단을 이끌었던 멩엘베르흐(1895~1945 재임)가 남긴 말러 페스티벌과 말러 전곡 연주회의 전통과 씨앗도 뿌리 역할을 했다. 이 영상물 속의 가티는 후반으로 갈수록 감동의 점입가경을 이끌어낸다. 5악장에서 카메라는 무대와 백스테이지를 이동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금관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잡아내고, 앉아서 노래하던 합창단은 여러 개의 호른이 나팔을 허공으로 쳐듦과 동시에 일동 기립하여 함성과 같은 소리를 쏟아내기도 한다.

중간마다 보이는 한국인 단원 함경(오보에)이 친근함을 주기도 한다. 42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곡목 · 지휘자 · 성악가 소개 및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영어 · 불어 · 독어 · 네덜란드어)

RCO 17109 [DVD]

RCO 17108 [Blu-ray]

RCO 17003 [SACD]

2016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실황 /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실황
다니엘레 가티(지휘) ·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방송합창단, 카렌 가그릴(메조소프라노),
첸 레이스(소프라노)

[보조자료]
이 영상물은 2016년 9월 18일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말러 교향곡 2번 실황이다. 가티는 취임 전에 객원으로 말러의 교향곡 3 · 5 · 6 · 9번을 지휘하기도 했다. 가티의 지휘봉이 빛을 발하고, 가티 역시 이들과 말러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RCO에 심어 있는 '말러 전통' 때문일 것이다. 이 악단을 이끌었던 멩엘베르흐(1895~1945 재임)는 베토벤 · 브람스 등은 물론이고 당시 '동시대음악'에 속하던 말러를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시키는 데에 일조했고, 그의 취임 25주년이 되던 1920년에 말러 페스티벌을 조직하며 9회의 음악회를 통해 말러 교향곡 전곡을 지휘하여 말러의 전통의 뿌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이어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시대를 대표하는 9명의 마에스트로 얀손스 · 하이팅크 · 불레즈 · 마젤 · 인발 · 이반 피셔 · 파비오 루이지 · 하딩 등과 함께 전곡 시리즈를 진행하여 그 실황 영상물을 출시하기도 했다. 가티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여 교향곡 5번(2010년 6월 25일 실황)을 지휘한 바 있다. 일명 '부활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2번을 연주하는 가티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해석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길어 올린다. 폭풍 같이 흐르는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영상물의 미장센도 가티와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과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가티와 RCO는 점입가경을 이룬다. 4악장에서 카렌 가르길(메조소프라노)이 '원광'(Urlicht)'의 가사를 그윽한 목소리로 수놓는다. 5악장에서 카메라는 금관의 사운드가 멀리서 들려올 때, 무대와 백스테이지를 번갈아 이동하여 연주 장면을 입체적으로 잡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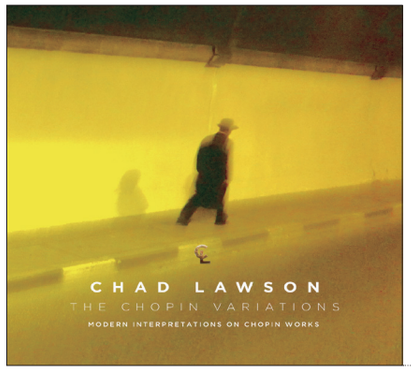
가티는 5악장에서 합창이 시작되는 부분(Auferstehʼn, ja auferstehʼn)에서 방금 전에 플루트와 피콜로가 만든 고요함이 흐트러질까봐 합창단을 일부러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개의 호른이 나팔을 허공으로 쳐들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솟구쳐 오를 때, 합창단을 일으켜 세워 '날개를 달아라'라고 소리 높여 부르게 한다. 이 영상물은 가티와 RCO가 함께 이룩해나갈 말러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간마다 한국인 단원인 함경(오보에)가 화면에 보여 친근함을 준다. 42쪽 분량의 해설지에 곡목 · 지휘자 · 성악가 소개 및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영어 · 불어 · 독어 · 네덜란드어).

Arco diva www.arcodiva.cz

UP0188
마르티누: 세 가지 빛의 나무, 성 요한 찬가 / 르제니체크: 디에스 이레 등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페트르 피알라(지휘)
체코의 독특한 음악 전통을 이어받은 개성 넘치는 합창 성가
체코는 자국의 전통음악과 정교회의 영향, 클래식 전통이 결합되어 특유의 음악언어를 가지고 있다. 마르티누는 여기에 자신만의 개성적인 선율과 리듬을 사용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세 가지 빛의 나무〉와 〈성 요한 찬가〉는 종교적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만년의 작품으로, 그의 완숙한 개성에 엄숙한 종교적 분위기가 더하여 거대한 에너지로 압도한다. 페트르 르제니체크의 〈디에스 이레〉는 과감한 극적 표현이 돋보이며, 이 음반의 모든 음악을 지휘한 페트르 피알라의 〈레지나 퀼리 라에타레〉는 격정적인 첼로 독주가 인상적이다.

Aulos Media

www.aulosmedia.co.kr



Aulos Media AMC2–171

채드 로슨: The Chopin Variations [추운 밤을 위한 노래]

쇼팽을 색다르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채드 로슨의 기념비

첼리스트 루빈 코델리와 바이올린에 주디 강, 티타임과 산책, 요가, 담소, 여행, 명상에 적합한 사운드트랙.
〈여행자의 노래〉 시인 임의진의 첫번 클래식 초이스 음반. 데이비드 달링과 케틸 비외른스타드를 애정하는 귀라면 채드 로슨을 놓치지 말 것. 한국반 선물로 솔로 연주곡을 추가, 춥고 어둔 밤에 난로의 불기 같은 따뜻함이 있다.

[보조자료]

예민하고도 멜랑콜리한 쇼팽. 우울한 도돌이표와 속살거리는 추운 밤의 밤비 소리를 떠올려보라. 겹겹으로 밀봉해도 새어나오는 소리. 보푸라기로 일어나 매만져지는 솜털 이불에서 나는 소리들. 피아노의 순례자 채드 로슨이 들려주는 쇼팽의 모든 밤은 마치 이런 소리다. 녹턴과 떨리는 로망스의 오선지에 뿌려진 밤별들. 사비나 야나투, 이노센스 미션, 로테 케스트너에 이은 〈여행자의 노래〉 떠돌이별 임의진의 초이스 음반.

청년 조성진의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소라껍데기를 귀에 대듯 많은 이들이 피아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별히 쇼팽의 곡들은 누가 해석하고 누가 들려주느냐 따라 많은 '다름'이 감지된다. 앙드레 지드의 말을 빌리자면 "쇼팽은 제안하고 가정하고 넌지시 말을 건네고 또 유혹하고 설득한다. 그가 딱 잘라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쇼팽 노트) 딱 잘라 말하지 않는 그 유연과 모호함은 길고 아스라한 해석들을 남긴다.

여기 경계 없는 재즈 피아니스트 채드 로슨(chad lawson)이 있다. 이 앨범으로 지난 2015년 빌보드와 아마존 클래식 차트 정상을 차지. 힘입어 쇼팽에 이은 바흐 해석곡집을 내놓기도 했다. 1975년생인 채드 로슨은 버클리에서 수학 후 재즈 트리오를 결성, 한때는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건반 연주를 맡기도 했다. 그러다 세계적인 뉴에이지 음악의 산실 윈드햄 힐(Windham Hill)의 발탁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지금은 북미 전역과 유럽을 투어하며 지낸다. 아방가르드한 첼로 주자 루빈 코델리(Rubin Kodheli), 바이올린 주자 주디 강(Judy Kang)이 이 곁에 동행하고 있다.

올라퍼 아르날즈(Olafur Arnalds)와 엘리스 사라 오트(Alice Sara Ott)의 쇼팽 프로젝트(the Chopin Project)를 우리는 기억한다. 다른 시각, 다른 대면이랄까. 미니멀 일렉트로닉 뮤직이 아주 많이 건너간 강물이라면 채드 로슨은 피아니스트 케틸 비외른스타드(Ketil Bjornstad)와 첼리스트 데이빗 달링(David Darling)의 연주곡처럼, 젠틀하고도 수심 깊은 호수에 가깝다.

[Youtube 연주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RA3uOaCJ0xw*
- *https://www.youtube.com/watch?v=AeCvNw4kucs*
- *https://www.youtube.com/watch?v=PEQE3-NnwUo*

Aulos Media AMC2–172

여행자의 노래 8: '자유인'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진 '음유시인 임의진' 이 선정하고 아울로스 미디어가 기획, 제작한 월드 뮤직 초이스 음반의 스테디셀러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

이번 여덟 번째 시리즈는 시인이자 순례자, EBS 세계 테마기행,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등에서 월드 뮤직 전문가로 세계 곳곳 숨은 음악을 찾아내었던 임의진 본인을 오롯이 투영한 '자유인'을 테마로 곡을 선곡하였다. 도쿄 시부야의 HMV 음반점이 '콰이어트 코너 Quiet Corner–a collection of sensitive music'를 개설, 멜랑콜리한 월드포크 컬렉션을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면, 국내엔 〈여행자의 노래〉와 떠돌이별 시리즈물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도 진열장의 풍성한 만남을 기대하고 싶다. 여행자의 노래 8집 〈자유인〉엔 솔프리드 몰랜드, 바우, 피어스 파치니, 마리 칼쿤, 마이테 마틴, 데이비드 버클리, 조르바 춤곡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나란히 두는 월드포크 컬렉션. 가슴을 꿰뚫는 역마의 바람과 작별의 통증, 사막에 샘솟는 우물처럼 달고 촉촉하다. 한곡도 놓치지 마시길.

[수록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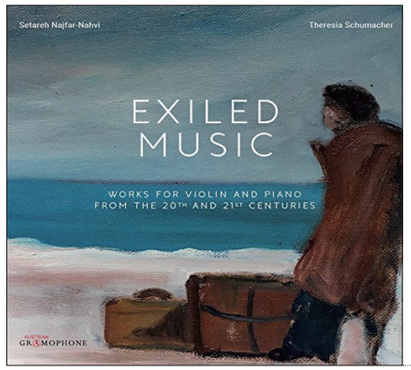
01. A Cold Wind Will Blow Through Your Door/ Bill Ricchini
02. Love Song Til Verda/ Solfrid Molland
03. Raquel (하껠. 영화 '그녀에게' 삽입곡)/ Bau
04. Maria e il Mare (지중해의 마리아 – 우체부의 노래)/ Daniele di Bonaventura & Giovanni Ceccarelli
05. Mama (루마니아 집시 노래)/ Gheorghe Vasile & Solfrid Molland
06. Strange is The Man (방랑자)/ Piers Faccini
07. Autumn Garden (가을 끝 무렵의 정원)/ Grimm Farm
08. Harvest Moon Night/ Beau Haddock
09. Vilu Öö (추운 밤. Chilly Night)/ Mari Kalkun
10. Meu Amor, Meu Amor (내 사랑, 내 사랑아)/ Carla Pires
11. Den Fattige Gud (가여우셔라)/ Hildegunn Riise & Voskresnije
12. Shenandoah (셰난도)/ David Berkeley
13. Leaving London Town/ Son Of Town Hall
14. Por la mar chica del puerto (항구가 있는 바다)/ Mayte Martin
15. Sodade (그리움)/ Kavita Shah (feat. Lionel Loueke)
16. Imagine (존 레논 곡)/ Lotte Kestner
17. Zorba's Trance (조르바 춤곡)/ Viktor Mastoridis **(Bonus)**

[곡 해설] 빌 리치니의 성글대는 선창으로 시작되는 음반. 오래전 임의진의 선곡음반 〈보헤미안〉에 실린 'Deliver Me'로 맺은 인연. 노르웨이 KKV 레이블이 주목하는 솔프레도 몰랜도는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스 협주곡'을 빌려 북국의 사랑노래를 들려준다. 바우의 연주곡 '하켈'은 영화 '그녀에게' 삽입곡. O.S.T 말고 선곡음반엔 처음이다. 보나벤추라의 연주로 듣는 지중해 바다와 일 포스티노 우체부 노래, 루마니아 집시들의 '엄마' 노래는 아찔할 만큼 이국적이다. '방랑자'를 멈춰 세운 피어스 파치니는 화가이자 가수. 런던 인디포크의 실력자. 중후한 신사 그림 팜이 '가을 끝 무렵의 정원' 풍경을 소곤소곤 들려주고, 보 하독은 만월의 밤풍경을 노근노근 속삭인다. 에스토니아 가수 마리 칼쿤이 켈틱어로 들려주는 신비스런 곡 '추운 밤'은 놓치지 말 것. 카를라 피레스의 파두 송 '내 사랑, 내 사랑아'는 리스본을 추억하게 만든다. 에브버드 욤의 원곡으로 알려진 '가난한 하느님, 가여우셔라'. 막다른 길에서 치어다보는 쪽빛 하늘을 닮은 성가. 데이비드 버클리가 솔로와 듀엣으로 각각 들려주는 북미 민요 '셰난도'와 '런던 타운' 풍경은 구름조차 머물고 싶어지는 마음. 바르셀로나 플라멩코 가수 메이테 마틴의 '항구가 있는 바다'는 해저보물처럼 귀한 음원. 집시의 딸 카비타 샤흐의 '소다데'는 맨발과 함께 공연 중 흡연을 즐기던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곡으로 알려져 있다. 명품 커버송 해석자 시애틀의 로테 케스트너가 들려주는 '이매진'. 일본에서는 작년 인디록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기염. 모노톤이었다가 화창한 스테레오로 바뀌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보너스 트랙엔 자유인의 주제곡 '조르바 춤곡'을 담았다. 차츰차츰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여행자들의 춤곡.

〈여행자의 노래〉는 지난 2003년 첫 발매되어 무려 15년 동안 항해를 지속해왔다. 사랑이란 '함께해온 세월'이라던가. 힘겹고 외로운 시절을 여우처럼 천천히, 그리고 멀리 걸었다. 햇살을 따라 발길을 옮겨온 순례의 여정. 귀 밝고 눈 밝은 생의 순례자들에게 '자유인'은 치명적인 인연이겠다.

〈2017. 아울로스 미디어 월드뮤직 사업부〉

Austrian Gramophone *www.austriangramophone.com*



AUSTRIAN GRAMOPHONE

AG0008

망명 음악: 콘골트, 벨레스, 로슬라베츠, 슈니트케, 나이파르의 바이올린 음악

세타레흐 나이파르-나흐비(바이올린), 테레지아 슈마허(피아노)

격동의 역사의 속에서 외국에서 활동해야했던 거장들의 작품들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세타레흐 나이파르-나흐비는 테헤란 음악원 출신으로, 그녀는 자신처럼 외국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수록했다. 오스트리아의 유태인 작곡가 콘골트와 벨레스는 나치의 점령으로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로슬라베츠는 러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인 작곡가였으나 소련이 들어선 이후 전통적인 음악에 매진했으며, 슈니트케는 소련 붕괴 직전 독일로 이주하여 큰 명성을 누렸다. 레자 나이파르는 테헤란 음악원 출신으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50063 [Hybrid (5 SACD)]

Nikolaus Harnoncourt conducts Schubert

베를린 필의 현대적 기능성과 아르농쿠르의 권위적 역사성이 빚어낸 새로운 빈의 영광

"슈베르트는 내 마음과 가장 닮아 있는 작곡가"라고 말한 바 있는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그는 이번 전집에서 베를린 필하모니와 함께 작곡가의 화려하면서도 다채로운 초상을 그려내었다. 여기에는 슈베르트의 덜 알려진 초기 작품들부터 '미완성'과 '그레이트'와 같은 후기 작품들까지가 총망라되어 있다. 아르농쿠르의 이번 슈베르트 연주는 색감이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것이 특징으로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고유한 사운드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투명한 간결성 및 역사적인 연주 방식과 절묘한 통합을 이루고 있다. 기존 교향곡, 종교음악까지 총망라해서 발매했던(BPHR150061)로부터 이번에 교향곡만 SACD 다시 발매하게된 것이다.

[DISC 1] 1-4. SYMPHONY NO.1 [24:32] 5-8. SYMPHONY NO.2 [35:25]
[DISC 2] 1-4. SYMPHONY NO.3 [24:55] 5-8. SYMPHONY NO.4 [33:08] ***"Tragische"***
[DISC 3] 1-4. SYMPHONY NO.5 [30:44]
[DISC 4] 1-4. SYMPHONY NO.6 [35:39] 5-6. SYMPHONY NO.7 [29:58] ***"Unfinished"***
[DISC 5] 1-4. SYMPHONY NO.8 [59:00] ***"Great"***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08035

모차르트: 극장 지배인/ 살리에리: 음악이 먼저, 말은 그 다음에

에바 마이, 파트리샤 프티봉,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지휘)

21세기에 펼쳐진 음악계 최고의 라이벌,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대결

2002년 2월 3일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재단의 음악당에서는 한 시간 분량의 두 오페라가 공연되었다. 하나는 살리에리의 '음악이 먼저, 말은 그 다음에'이고, 또 하나는 모차르트의 '극장 지배인'이었다. 클래식 음악계의 유명한 두 라이벌의 대결이라는 매우 주목을 받았으며, 또한 동시대를 주름잡은 두 거장의 작품을 들으며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에바 마이, 파트리샤 프티봉, 만프레드 헴, 마르쿠스 셰퍼 등 스타 성악가들의 등장으로 흥미를 더하며,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 또한 그 수준을 보장한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BR KLASSIK

900321

로시니 아리아 모음집 '치명적인 사랑'

마르코 아르밀리아토(지휘), 뮌헨 방송교향악단,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마리나 레베카(소프라노)

로시니 서거 150주년에 더욱더 빛날 스페셜 소프라노의 목소리

2018년은 로시니(1792~1868)의 서거 150주년이 되는 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앨범으로 제목은 '치명적인 사랑'이다.
소프라노 마리나 레베카(b.1980)는 로시니의 '모세와 파라오' '베네치아의 무어인'(혹은 '오텔로') '세미라미데' '마오메토 2세' '윌리엄 텔' '아르미다' '호수의 여인'에 등장하는 여성의 노래를 부른다. 이 캐릭터들은 강하며, 하늘의 운명에 따르며 눈물 흘리고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스튜디오 녹음이지만 마치 오페라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마리나 레베카는 2008년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마오메토 2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모세와 파라오'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녀의 목소리로 인해 로시니의 걸작이 한층 더 빛난다.

900519

멘델스존: 시편 합창곡집

호워드 아만(지휘),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요한나 윙켈(소프라노), 아네 베버(알토), 율리앙 프레가르뎅(테너), 크리시미 스트라차나크(베이스바리톤)

'시편'으로 빚은 천상의 합창 소리

우리에게는 바이올린 협주곡 등 기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펠릭스 멘델스존은 독일과 유럽 합창의 전통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멘델스존이 영국에 머무는 동안 헨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우리가 아닌 주께' Op.31, 슈만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Op.42, 런던의 요청에 의해 작곡한 '주께 노래하여라' Op.91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함께 수록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와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역시 멘델스존 합창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곡이다. 현재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호워드 아만은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반주 아래 솔리스트와 합창단의 텍스처를 맑고 명징하게 연출해내어 작품이 지닌 깊이와 매력은 단번에 드러낸다. 듣다보면 멘델스존이 그토록 발굴에 힘썼던 바흐의 그림자가 느껴지기도 한다.

900715

에사-페카 살로넨 외 여섯 작곡가의 현대음악

에벤 콰르텟, 아르미다 콰르넷, 크리스탄 코르넛(첼로), 안톤 타미슈티(비올라) 등

뮌헨 콩쿠르의 현악 현대음악 7곡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뮌헨 ARD콩쿠르가 의뢰한 현대음악 모음집. 콩쿠르에서 지정되는 현대음악은 연주자나 관객 모두를 특별하게 만든다. 경쟁 속에서 젊은 음악가들은 특별한 해석을 해야 하고, 콩쿠르의 관객들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볼프강 림, 요하네스 마리아 슈타우트, 로디온 셰드린, 데이비드 소워, 에르퀴스벤 튀르, 에사 페카 살로넨, 니콜라우스 브래스, 일곱 작곡가의 무반주 독주곡부터 현악 4중주곡이 실려 있다. 친숙한 작곡가보다 낯선 작곡가들이 더 많다. 하지만 새로운 작곡가의 존재와 음악적 스타일을, 연주력과 해석을 보장 받은 젊은 실내악팀의 연주로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음반이다. 각 곡에 대한 해설지(영 · 독) 역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현악기들의 소리를 잘 살린 녹음의 결도 일품.

900322

사랑의 포옹

율리아네 반제(소프라노), 뮌헨 방송관현악단, 제바스티안 바이글레(지휘)

후기 낭만의 수호자들의 서정미가 넘치는 지극히 아름다운 노래

율리아네 반제는 소프라노이면서도 알토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음색으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들려주며, 가곡과 오페라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음반은 마지막 낭만을 지켰던 독일-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록했다. 요제프 말스의 노래는 말러의 연장선에 있으며, 브라운펠스의 '세 개의 중국 노래'는 제목과 달리 유럽의 아름다운 전통에 있다. 콘골트는 오페라 아리아와 같이 극적이며 관현악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전통주의자인 피츠너의 노래는 독일 특유의 중후한 화음과 진지한 선율이 마음을 가라앉힌다.

900147

브루크너: 교향곡 6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새로운 신비로 그린 하이팅크의 브루크너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거리감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것은 이 곡이 갖고 있는 신비가 남다르기 때문으로, 육중한 무게감과 단편적인 제스처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며 명상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곡은 오히려 거장들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음반은 그 결과 중 하나이다. 하이팅크는 이 곡을 투명하게 보여주며, 그 공간에 낭만적인 감성을 불어넣었다. 이것은 탈신비가 아닌, 새로운 신비를 잉태하는 과정이다. 거칠게 달려가면서도 화음과 선율을 다듬는 그의 장인정신도 빛을 발한다.

Capriccio www.capriccio.at

DIGITAL CAPRICCIO DDD

C5327 (2FOR1)

브룬스: 세 개의 바순 소나타, 목관오중주, 목관사중주 등

마티아스 바이어, 알렉산더 포이크트, 베르톨트 그로세, 유성권, 클레멘스 쾨니히슈테트

고전미와 드라마가 결합된 낭만적 감수성을 갖춘 바순과 목관을 위한 음악

빅토르 브룬스는 동독의 바수니스트로, 여섯 개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협주곡과 실내악곡, 발레 등을 남긴 작곡가이기도 하다. 물론 그가 뛰어난 바수니스트로서 바순과 목관을 위한 작품들이 오늘날 자주 연주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고전미와 드라마가 결합된 낭만적 감수성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작품은 세 개의 바순 소나타로 바순의 아름다운 음색이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며, 목관오중주와 목관사중주 또한 감성어린 선율과 브룬스의 뛰어난 목관 음색의 조합을 즐길 수 있다.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수석 바수니스트인 유성권도 참여했다.

C5291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보 스코우후스(바리톤), 슈테판 플라다르(피아노)

극적 표현과 심미적 표현을 두루 갖춘 스코우후스의 시적 표현

덴마크 출신의 바리톤 보 스코우후스는 코펜하겐과 뉴욕에서 공부했으며, 오페라 무대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캄머쟁어'(실내악 가수) 상을 수상하는 등 가곡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극적 표현과 심미적 표현을 두루 갖춘 그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에서 자신의 음악세계를 유감없이 펼친다. 군대 행진곡처럼 리듬을 밟는 '밤 인사', 성급하게 앞서는 '풍향기', 여유를 즐기는 '보리수', 허무로 가득한 '도깨비 불',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한 '환영의 태양' 등 그만의 시적 표현이 신선한 감동을 준다.

C5317

노스탈지아

다니엘 벨레(테너), 쾰른 풍크하우스 오케스트라, 헬무트 프로샤우어(지휘)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목소리!

독일의 테너 다니엘 벨레는 깔끔하고 밝으며 에너지의 음성을 갖고 있어, 듣는 즉시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수'라는 제목의 이 앨범은 19세기의 대중적인 오페라의 아리아들을 수록했다. 플로토의 '마르타', 니콜라이의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로르칭의 '황제와 목수', 아당의 '롱쥐모의 우편배달부', 골트마크의 '시바의 여왕', 부알디외의 '백색의 여인', 레하르의 '에바', '지우디타' 등, 오늘날로 비교하면 뮤지컬에 가까운 작품들이다. 이와 함께 독일인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듯한 유쾌하고 서정적인 노래들을 수록했다.

C5320

마르티누: 교향곡 전곡

ORF 빈 방송교향악단,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지휘)

변화되고 발전하며 생동하는 예술가 마르티누의 위대한 교향곡

보후슬라프 마르티누는 드보르자크와 야나체크를 잇는 체코의 낭만작곡가이다. 그는 체코 시기, 프랑스 시기, 미국 시기, 그리고 유럽에서의 만년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각각 차이점이 있지만, 체코 민족음악과 프랑스 인상주의를 기반으로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쳤다는 점은 모든 시기를 관통한다. 그의 여섯 개의 교향곡은 모두 미국 시기 중에 매년 한 곡씩 작곡되었다. 완숙한 시기에 작곡된 모든 곡에서 마르티누의 낙관을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고 발전하며 생동하는 예술가 마르티누를 발견하게 된다.

C5299

프란츠 & 칼 도플러: 플루트 음악 전집 5집

클라우디 아리마니, 로버트 아이트켄, 쿠도 시게노리(플루트)

모차르트와 벨리니의 오페라와 동유럽의 정서가 깃든 플루트의 서커스

낭만시대 플루트 음악을 대표하는 도플러 형제의 플루트 작품 시리즈 다섯 번째 앨범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유명한 모차르트 '요술피리', 벨리니 '노르마'와 함께 당대에 인기를 끌었던 에르켈 '후냐디 라슬로', 에른스트 2세 '카실다' 등의 오페라의 멜로디가 도플러 형제의 남다른 솜씨로 화려하게 재탄생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프라하의 추억〉, 〈살롱의 마주르카〉, 〈헝가리 노래에 의한 변주곡〉 등 동유럽의 정서가 깃든 작품들도 유쾌하며, 플루트, 하프, 첼로를 위한 녹턴 〈하프 삼중주〉는 아름다운 낭만 실내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5308

브라운펠스: 카니발 서곡, 두 개의 횔덜린 서곡, 스코틀랜드 환상곡, 전주곡과 푸가

B.분트로크(비올라), P.-A.에델만(바리톤), 도이체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 G.뷜(지휘)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자주 연주되고 있는 브라운펠스의 감춰진 낭만

독일 작곡가 발터 브라운펠스는 세상을 떠난 이후 잊히고 말았지만,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자주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그는 현대적인 작곡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바그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낭만음악 전통을 이어갔다. 〈카니발 서곡〉은 R. 슈트라우스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그를 능가하는 중후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두 개의 횔덜린 노래〉는 바그너의 아리아에서 볼 수 있는 극적 이미지를 펼친다. 비올라 협주곡 〈스코틀랜드 환상곡〉은 낭만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며, 〈전주곡과 푸가〉는 고전주의자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다.

C5310

바인베르크: 바이올린 협주곡/ 카발레프스키: 피아노 환상곡, 첼로 협주곡 1번

B.슈미트(바이올린), C.황치(피아노), H.크라이흐(첼로), ORF 방송 교향악단, C.마이스터(지휘)

새로운 레퍼토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가 선택한 20세기 러시아 음악

폴란드 출신으로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소련에 온 바인베르크는 쇼스타코비치의 눈에 띄어 소련 중심부에서 활동했다. 최근 쇼스타코비치 다음으로 자주 무대에 오르는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드라마틱한 음악은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카발레프스키는 러시아의 낭만을 지켰던 작곡가로, 슈베르트의 〈환상곡, D940〉을 주제로 만든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은 흥미롭다. 〈첼로 협주곡 1번〉은 중요한 첼로 레퍼토리로, 러시안 로맨틱의 명성을 잇는다.

C5331

슈베르트 앨범

파울-아르민 에델만(바리톤), 찰스 스펜서(피아노)

균형 잡힌 중량감과 애수어린 에델만의 음성이 들려주는 슈베르트의 서정적 매력

바리톤 파울-아르민 에델만은 유명한 빈 소년 합창단에서 단원과 솔리스트를 맡았으며, 빈 음대에서 공부한 이후 오페라 가수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찰스 스펜서는 오늘날 최고의 반주자 중 한 사람으로, 빈 음대에서 가곡 해석 분야의 교수이다. 에델만은 이 음반에 슈베르트의 노래 열일곱 곡을 수록했다. 괴테의 시에 붙인 〈프로메테우스〉, '겨울나그네'의 마지막 곡 〈거리의 악사〉 등 인상적인 적인 노래들로, 에델만의 균형 잡힌 중량감을 가진 애수어린 음성으로 듣고 있으면 슈베르트의 노래가 가진 서정적 매력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Col Legno www.col-legno.com

20437

패르트: 영혼 (형제들, 마그니피카트, 같은 간격으로, 가장 높은 곳 등)

알레아 색소폰 사중주단

패르트의 음악으로 성화(聖化)된 네 대의 색소폰이 주는 평안과 위안

아르보 패르트는 정교회의 전통에 따른 영적인 아카펠라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다. 알레아 색소폰 사중주단은 패르트의 합창곡 여덟 곡을 색소폰 앙상블로 연주했다. 색소폰은 세속적인 무대에 자주 사용되는 악기인 만큼 패르트의 작품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각자의 마음에서 정한 것일 뿐, 악기 자체가 성스럽거나 세속적인 것은 아니다. 알레아 색소폰 사중주단은 패르트의 주요 기악 작곡 기법 중 하나인 종소리 음향을 사용하여,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절대자가 공급하는 평안과 위안을 전한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8201202

덴마크 왕립음악원 150주년 기념(1867~2017) 앨범(12CD)

게르트 코르텐쉔(지휘), 마이클 쇤반트(지휘),덴마크왕립교향악단, 덴마크 국립실내악단 외

하나의 박스물로 덴마크 음악의 역사와 현재를 만나다

카를 닐센의 나라 덴마크. 이 나라의 음악가들을 만날 때 덴마크의 명문레이블 다카포(DACAPO)의 신세를 안 질 수가 없다. 이 박스물은 덴마크의 명문으로 코펜하겐에 위치한 덴마크 왕립음악원(DRAM)이 1867년 개교한 이래로 2017년까지 배출한 작곡가와 연주가들의 음악으 담은 것이다. 126쪽 분량의 해설지(영어 · 덴마크어)에는 학교의 초기부터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CD1~5는 음악원의 설립자이자 작곡가인 닐스 게이드(1817~90)부터 벤트 쇠렌센(1958~)의 작품들로, CD6~12는 성악가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지는 이들의 이력과 역사에 대해 적고 있으며, 그 옆에 CD를 병기 해놓아 음악을 바로 찾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1941년 녹음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하다.

6220590 [SACD]

뇌르고르: 초기 피아노 작품

니클라스 시벨뢰브(피아노)

북유럽의 거장 뇌르고르의 젊은 시절에 이룩한 천재적 기록

덴마크를 대표하는 현대작곡가인 페르 뇌르고르는 10대부터 현대음악 작곡에 두각을 보였으며, 20대 초에 이미 전문 작곡가로서 활약했다. 17세에 완성한 〈미니어처 콘체르토〉와 〈소나타 카프리치오사〉는 풋풋한 서정을 품으면서 역동적인 리듬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있으며, 1년 후의 작품인 〈소나타 데테르미나타〉는 보다 탄탄한 구조를 보여준다. 21세의 작품인 〈단악장의 소나타〉는 반복되는 리듬 속에 내적 고민을 담고 있으며, 22세의 작품인 〈트리폴리오〉는 보다 확장된 음악적 자유를 누리며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Daphne

www.daphne.se

Daphne1007

파고티시모

크누트 쇤스테볼드(바순), 스테판 린드그렌(피아노)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수석 바수니스트가 소개하는 바순의 세계

크누트 쇤스테볼드는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수석 바수니스트로, 그는 바순의 근원적인 음색을 탐구하며, 비브라토를 섬세하게 컨트롤함으로써 한 차원 깊은 소리를 만들어낸다. 로시니의 〈알레그로〉는 벨칸토 오페라의 대가답게 벨칸토의 기교적이고 아름다운 아리아에 비견되는 바순과 피아노 연주의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진다. 시벨리우스 이전에 가장 유명한 핀란드 작곡가인 크루셀의 〈스웨덴의 노래〉는 감수성 짙은 화음과 단아한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이외에 윤이상의 〈독백〉을 비롯하여 개성 넘치는 바순 독주곡들을 들을 수 있다.

Daphne1034

알캉: 소나타 '네 세대'/ 교향곡

스테판 린드그렌(피아노)

알캉의 화려한 음향이 돋보이는 린드그렌의 요술과 같은 연주

샤를 발랑탱 알캉은 쇼팽과 견주던 파리의 피아니스트였지만 일찍 은퇴하고 작곡에 전념했다. 그의 작품들은 수준 높은 기교를 요구하고 있으며, 쇼팽의 서정미과 리스트의 화려함을 모두 갖추고 있다. 스테판 린드그렌은 15세에 스톡홀름 왕립음악대학에 입학하고, 줄리어드 스쿨에서 공부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하면서 모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알캉의 〈소나타 '네 세대'〉와 〈교향곡〉과 같은 무게감 있고 규모 있는 작품을 가벼운 터치와 투명한 텍스쳐로 연주하여 알캉의 화려한 음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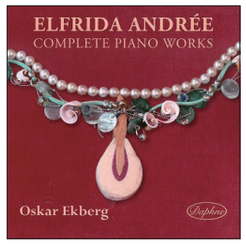
Daphne1043

푸홀: 다섯 개의 전주곡, 피아솔라: 승리의 탱고, 안토니오 호세: 기타 소나타 등

세바스티안 칼다스 세발로스(기타)

남미의 애틋한 감성과 열정적인 리듬으로 들려주는 라틴의 스토리

세바스티안 칼다스는 남미 기타음악의 중심인 우루과이의 기타리스트로서, 남미의 애틋한 감성과 열정적인 리듬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연주력을 바탕으로 훌륭히 표현해낸다. 그는 이 음반에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작곡가의 기타음악을 수록했다. 푸홀의 〈다섯 개의 전주곡〉은 기타 특유의 감수성을 한껏 머금은 작품이며, 메를린의 〈추억 모음곡〉은 남미의 다양한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낸다. 피아솔라의 〈승리의 탱고〉는 다양한 음색으로 많은 스토리를 들려준다. 스페인 작곡가 안토니오 호세의 〈기타 소나타〉에서는 연주자의 뛰어난 실력이 돋보인다.



Daphne1047

엘프리다 안드레: 피아노 전곡

오스카르 에크베리(피아노)

오늘날의 감수성에도 큰 공감을 일으키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스웨덴의 낭만 작곡가인 엘프리다 안드레는 스웨덴의 여성 운동가이자, 스칸디나비아에서 최초로 공식 임명된 여성 오르가니스트이다. 슈만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 그의 낭만적인 작품들은 요즘에도 북유럽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스웨덴 그래미 상 후보자이자 에르스타 센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스카르 에크베리는 명징한 터치의 소유자로, 안드레의 피아노곡 전곡을 녹음했다. 〈세 개의 음화〉, 〈소나타〉, 〈다섯 개의 작은 음화〉, 〈다섯 개의 소품〉 등 아름답지 않은 작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의 감수성에도 큰 공감을 일으킨다.

Daphne1053

다비드 헤렌스탐의 리사이틀

다비드 헤렌스탐(기타)

개성 넘치는 스무 곡의 소품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기타 음악의 세계

기타리스트 다비드 헤렌스탐은 연주와 녹음, 방송 등으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다.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의 이 음반은 개성 넘치는 스무 곡의 소품들로 매우 다채로운 기타 음악의 세계를 펼친다. 수준 높은 기교로 최고의 기타 음악을 만드는 롤랑 디앙스 〈푸오코〉부터 강렬한 인상을 주며, 줄리아니 〈대서곡〉, 파가니니 〈로망스〉, 파야 〈로망스〉, 퐁스 〈카베손 주제에 의한 변주곡〉, 브루워 〈종이 울리는 쿠바의 풍경〉 등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 걸친 기타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우르쿠주노프의 〈포크송 변주곡〉의 단아한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Daphne1054

피아솔라: 사계, 시네시: 트인 하늘, 가르델: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날 등

세바스티안 칼다스 세발로스(기타), 이스마엘 베르톨라(타악기)

한 대의 기타가 펼치는 아르헨티나 탱고의 열정

우루과이 출신의 정상급 기타리스트인 세바스티안 칼다스가 아르헨티나 작곡가들의 음악을 수록했다. 키케 시네시의 〈트인 하늘〉은 남미의 열정적인 춤이 연상되는 타악기 반주와 감성적인 화음, 읊조리는 듯한 멜로디로 단번에 흥분을 일으킨다. 기타 독주로 연주되는 피아솔라의 〈사계〉는 새로운 서정미를 들려주며, 누에보 탕고의 걸작 〈아디오스 노니노〉는 한 대의 기타가 만드는 열정에 감탄하게 된다. 진정한 탱고 스타 가르델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날〉은 가슴이 사무치도록 감미로우며, 자작곡 〈노우루즈〉는 나른한 남미의 서정을 담고 있다.

Daphne1055

반 아이크: 시편 9편/ 비발디: 협주곡 c단조/ 바흐: 파르티타, 소나타 C장조 등

크리스티네 베스트(리코더), 스티나 페테르손(첼로), 마르쿠스 몰린(하프시코드) 등

깔끔한 선과 명료한 음색으로 바로크 음악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는 리코더의 요정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웨덴의 리코더 연주자 베스트의 데뷔 앨범이다. 그녀는 깔끔한 선과 명료한 음색으로 바로크 음악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다. 이 음반에서는 여덟 개의 리코더를 사용하여 각 곡의 특징을 살려내고 있다. 리코더 음악의 정수인 네덜란드의 작곡가 반 아이크의 〈시편 9편〉과 함께 비발디의 〈협주곡 c단조〉, J.S. 바흐의 〈파르티타〉와 〈소나타 C장조〉, 바르산티의 〈옛 스코틀랜드 선율〉 등 주요 리코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민속적인 음률을 가진 헤이노 할레크의 소품도 매우 인상적이다.

Daphne1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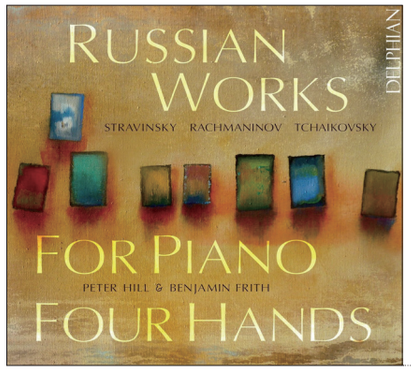
J.S. 바흐: 다섯 개의 플루트 소나타

크리스티네 베스트(리코더), 스티나 페테르손(첼로), 마르쿠스 몰린(하프시코드)

바람결에 실려 오는 자연의 노래와 같이 자연스러운 리코더의 매력

스웨덴의 리코더 연주자 베스트는 스톡홀름 왕립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주자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깔끔한 선과 명료한 음색으로 바로크 음악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바흐의 다섯 개의 소나타를 녹음한 이 앨범은 이러한 그녀의 매력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느린 템포에서는 리코더가 지닌 민속적인 특성을 더하며 특유의 우수를 드러내고, 빠른 템포에서는 따사로운 태양 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과 같이 화려하다. 음악을 리드하는 마르쿠스 몰린의 하프시코드 연주도 완성도를 더한다.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CD34191

네 손을 위한 러시아 작품집: 스트라빈스키,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피터 힐, 벤자민 프리스(피아노)

두 피아니스트의 러시아 음악 순례

라흐마니노프는 낭만주의의 마지막 후예였고, 스트라빈스키는 디아길레프와 발레 뤼스가 음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본 앨범에 수록된 라흐마니노프의 초기 걸작 여섯 개의 소품집 Op.11은 작곡가로서의 성숙함을 예고하는 곡이며,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1947년 버전)는 정점에 달한 발레적 감각을 보여준다. 앨범에 함께 수록된 차이코프스키의 50개의 러시아 민요는 훗날 '불새'와 '페트루슈카'에서 스트라빈스키가 사용한 멜로디에 그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델피안 레이블에서 바흐 시리즈를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는 피터 힐이 벤자민 프리스와 처음으로 합류하여 네 손을 위한 곡들을 선보인다. 피아노 듀오가 보여줄 수 있는 예술성과 그 방대한 소리의 세계를 말끔히 연출한다. 해설지에는 피터 힐이 직접 쓴 세 작곡가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DSO Live www.dso.org

DSOLive009

기뻐하라: 크리스마스 음악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금관과 타악 연주자들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는 금관과 타악 앙상블의 풍부하고 강력한 사운드

댈러스 심포니의 금관 연주자들과 타악기 연주자들이 크리스마스 음악을 연주했다. 화려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금관 앙상블과 강력한 파워와 효과를 지닌 타악기의 협주는 기대 이상의 감동을 준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3번 트랙), '고요한 밤, 거룩한 밤'(8번 트랙), '천사 찬송하기를'(15번 트랙), '참 반가운 성도여'(18번 트랙)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과 함께, '행성'으로 유명한 홀스트의 '크리스마스 날', '어두운 한겨울', 그레인저의 '서섹스 무언극 배우의 크리스마스 캐롤', 라흐마니노프의 '기뻐하라' 등 클래식 거장들의 작품도 수록되어있다.

DSOLive007

말러: 교향곡 3번

켈리 오코너(메조소프라노), 댈러스 심포니 코러스와 오케스트라, 얍 판 츠베덴(지휘)

말러의 장대하고 복잡한 교향곡에 숨겨진 메시지를 풀어내다

얍 판 츠베덴은 음악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어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마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구성을 지닌 말러의 〈교향곡 3번〉에서도 이러한 그의 모습은 유감없이 빛을 발한다. 강력한 1악장은 박력이 넘치고 콘트라스트가 분명하며, 2악장 메뉴엣의 댄스 리듬은 명료하다. 3악장 스케르찬도는 어린아이들의 놀이처럼 유쾌하고, 4악장 메조소프라노 켈리 오코너의 독창은 지극히 아름답다. 어린이 합창으로 유명한 5악장은 단출하며, 마지막 장대한 6악장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원을 탐험한다.

Dynamic www.dynamic.it

CDS7796

생상스: 피아노 모음곡, 피아노를 위한 앨범

마리오 파투치(피아노)

생상스가 들려주는 바로크 스타일의 모음곡과 낭만 스타일의 모음곡

생상스는 당대 프랑스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로서, 수많은 건반 작품들을 남겼다. 이 앨범은 그의 장대한 피아노 작품 두 곡 〈피아노 모음곡〉과 〈피아노를 위한 앨범〉을 수록하고 있다. 〈피아노 모음곡〉은 바로크 시대 프랑스 음악 대표하는 춤 모음곡 스타일을 차용하고 있어, 고전주의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피아노를 위한 앨범〉도 모음곡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카리용', '왈츠', '샹송' 등 19세기적인 이미지로 탈바꿈되어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마리오 파투치는 1977년 뮌헨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 주세페 베르디 음악원 교수이다.

CDS7733

스트라디바리우스 '마레샬 베르티에'

파벨 베르만(바이올린), 줄리아노 마초칸테(피아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16년에 제작한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압도적인 사운드

이 앨범이 다루고 있는 바이올린은 나폴레옹이 그의 친구인 루이-알렉상드르 베르티에 원수에게 선물한 것으로, 1716년 스트라디바리우스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베르티에 원수' 즉 '마레샬 베르티에' 혹은 '엑스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이 악기는 여러 경로로 흘러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페렌츠 폰 베체이가 사용했으며, 현재 프로 카날레 재단 소유로 파벨 베르만 등 여러 정상급 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음반에서 이 아름다운 악기의 청명하고 강렬한 소리, 민첩하게 반응하여 직선적이고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Book+CD+실물 크기 포스터 제공]**

Farao Classics www.farao-classics.de

B 108046

말러: 교향곡 3번

마리야나 리포브세크(알토) , 빈 소년 합창단,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 (연주), 주빈 메타(지휘)

고즈넉하고 결삭은 사색의 행로, 깨달음의 순간을 연상시키는 번쩍임

'겨울과 여름' , '밤과 낮', '심연 속 인간과 천상의 구원', '사랑' 이 말하는 것. 주빈 메타의 이전 녹음과 비교한다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금 마주하는 사색의 행로는 한결 고즈넉하고 결삭아 있다. 인간적인 고뇌는 한층 멀고도 깊게 다가오며, 그 끝자락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사랑의 확신은 깨달음의 순간마냥 짧지만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명료함을 더한다. '고뇌' 와 '확신'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5악장 '천상의 소리' 이후부분만큼은 지휘자에 면모에 다시 주목하게 되는 순간을 선사한다.

[2004년 9월 16일 빈 무지크페라인 실황]

B108092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죽음과 정화, 영웅의 생애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켄트 나가노(지휘)

거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음향으로 압도하는 명연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낭만시대의 위대한 산물 중 하나인 교향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죽음과 정화〉(1889)는 그의 친구였던 시인 알렉산더 리터의 시를 음악화한 것으로, 예술가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있다. 〈영웅의 생애〉(1899)는 자전적인 작품으로, 자신을 영웅으로 설정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과의 대결, 사랑의 결실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음악적으로 묘사한다. 켄트 나가노와 예테보리 심포니는 거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음향으로 압도한다.

Fanfare Cincinnati

www.cincinnatisymphony.org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
LOUIS LANGRÉE • MUSIC DIRECTOR DESIGNATE

FC012

메이 페스티벌 합창단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신시내티 메이 페스티벌 합창단, 로버트 포코(지휘)

남녀노소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크리스마스 앨범!

신시내티 메이 페스티벌은 1873년에 시작된 가장 오래된 합창음악제 중 하나로, 이 음악제의 핵심인 페스티벌 합창단이 유명 크리스마스 노래를 녹음하여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들의 노래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등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 찬송과 함께, 로리슨의 '오 마그눔 미스테리움'을 비롯한 라흐마니노프, 본 윌리엄스, 홀스트, 브리튼, 프레토리우스 등 클래식 거장들의 명곡도 수록되어있다. 마지막으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로 즐겁게 마무리한다.

Gramola

www.gramola.at

Gramola Vienna

99102

시간 여행

에르뇌 라츠(더블베이스), 베로니카 트리스코(피아노)

콘트라베이스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콘트라베이스 수석 연주자 에르뇌 라츠는 헨리 에클레스와 바흐에서부터 쿠세비츠키와 쿠르탁에 이르기까지 음악사의 페이지들을 음반 한 장에 담았다. 콘트라베이스로 연주되는 작품들의 면면은 타악기 작품들에서나 느낄 법한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자연스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의 매력은 이전 다른 악기 버전으로 감상할 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매력을 내뿜는다. 선명한 음질과 더불어 공간과 마음을 울리는 콘트라베이스의 묵직한 저음은 '영혼의 악기'라는 말이 떠오를 만하다.

99143

Crossings – 플루트와 기타 연주집

그제고쉬 시무쉬코(플루트), 얀 시무쉬코(기타)

아버지와 아들이 선보이는 정감어린 어울림

서로 다른 악기들의 어울림이 보여주는 다양한 느낌 중에서도 유독 사람에게 정감 있게 다가오는 악기들의 조합이 있다. 플루트와 기타의 어울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플루티스트 그제고쉬 시무쉬코와 기타리스트 얀 시무쉬코, 부자지간인 두 사람은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쇼팽의 '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프랑수아 보네의 '카르멘 환상곡' 등 익숙하고 폭 넓은 레퍼토리에 걸쳐 정감어린 호흡으로 악기의 어울림에 묻어나는 다채로운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 주고받는 교감의 순간들은 음반의 제목과 어울릴 만하다.

99144

오카타 요시코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작품들

오카타 요시코(피아노)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를 위한 모차르트 ABC

이번 Gramola 신보 중에는 가족 연주자들이 눈에 띄어 흥미롭다. 그제고쉬 & 얀 시무쉬코, 아버지와 아들의 어울림을 담은 'Crossings–플루트와 기타 연주집'(GRAM99143)에 이어 이들의 아내와 어머니 오카타 요시코는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를 위한 모차르트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현재 바르샤바 오카다 재단의 리더로서 바르샤바 오카타 국제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그녀는 브뤼셀의 '모차르트 음악 학교'를 맡고 있기도 하다. 모차르트 음악이 갖고 있는 매력 속으로 자연스레 이끄는 명쾌한 연주, 모차르트 길잡이 음반으로도 좋을 듯하다.

99128

운터라이너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

클레멘스 운터라이너(바리톤), ORF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리톤 특유의 편안하고 따뜻한 음성과 관현악 반주로 듣는 크리스마스 노래

운터라이너는 빈 국립 오페라단의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바리톤 가수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오페라 무대와 콘서트 무대에 서고 있다. 바리톤 특유의 편안하고 따뜻한 음성을 지닌 그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다. 열 네 곡의 아름답고 정겨운 선율들 중에는 '소나무야, 소나무야'(6번 트랙), '내 주는 강한 성이요'(7번 트랙), '참 반가운 성도여'(13번 트랙), '고요한 밤, 거룩한 밤'(14번 트랙) 등 익숙한 노래들도 찾아볼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상급 관현악단의 반주로 더욱 풍성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운터라이너의 시낭송도 들을 수 있다.

99161

소나타와 환상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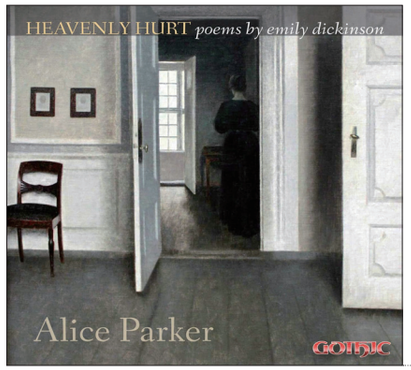
엘즈비에타 사이카–바흘러(비올라 다 브라키오), 판돌피스 앙상블

헨델과 텔레만의 희귀작품들과 잊힌 바로크 거장들의 명작들

판돌피스 콘소트는 잘 알려진 작곡가의 희귀한 작품과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헨델의 〈비올라 다 감바가 있는 첼발로 콘체르토〉는 고전 소나타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텔레만의 〈비올라 다 브라키오와 첼로, 통주저음을 위한 캐논 소나타〉는 바로크 시대의 우아한 대위법의 향연을 들려준다. CPE 바흐의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는 두 악기의 대등한 이중주를 들려준다. 이외에도 포드비엘스키, 코레트, 볼프 등 당대 거장으로 인정받았지만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수록했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49310

파커: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 의한 노래

멜로디어스 어코드, 엘리스 파커(지휘)

한 편의 진솔한 음악극을 보는 듯한 극적인 선율과 아름다운 하모니

엘리스 파커는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이자 합창지휘자로,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가사로 하는 그녀의 작품들을 수록했다. 파커는 가사가 가진 극적 이미지에 집중하며, 드라마와 같은 매력적인 음악으로 유명하다. 〈하늘의 상처〉는 목소리에 첼로의 절규가 함께하여 복합적인 감성을 자극하며, 〈미의 정의〉는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회상〉은 자신의 느낌을 진솔하게 풀어놓는다. 〈세 개의 바다〉는 플루트의 환상적인 선율과 함께 신세계를 보여주며, 〈언덕의 메아리〉에서 목소리는 기악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8중주를 만든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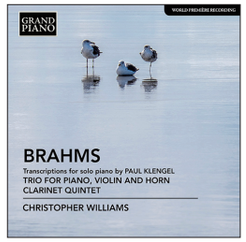
GP748 **[세계 최초 녹음 포함]**

칼로미리스: 세 개의 발라드, 두 개의 광시곡, 다섯 개의 전주곡 등

올리비에 쇼쥐(피아노)

프랑스의 낭만과 그리스의 전통이 어우러진 칼로미리스의 피아노 음악 전곡

그리스 근대 음악의 아버지 마놀리스 칼로미리스(1884–1962)는 아테네와 빈에서 공부하고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와 아테네에서 가르쳤다.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그는 젊은 시절에 쇼팽과 리스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들을 작곡했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세 개의 발라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후에는 그리스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작품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두 개의 광시곡은 인상주의적인 환상적인 화음과 소박한 선율의 독특한 조화가 펼쳐지며, '다섯 개의 전주곡'에서 그의 종합적인 음악세계가 완성된다.



GP749

브람스: 바이올린, 혼,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클라리넷 오중주 (피아노 편곡)

크리스토퍼 윌리엄스(피아노)

브람스의 새로운 피아노 작품? 실내악곡의 놀라운 변신!

21세기는 디지털 음원이, 20세기는 음반이 음악시장을 이끌었다면, 19세기의 주역은 악보였다. 즉, 교육이나 아마추어들의 취미, 소규모의 사적인 연주를 위해 악보가 유통되었다. 따라서 유명한 곡을 소규모 앙상블이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만능 음악가였던 파울 클렝겔의 브람스 편곡은 뛰어난 수준으로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다. 〈바이올린, 혼,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와 〈클라리넷 오중주〉의 편곡은 마치 본래 피아노 독주곡인 듯한 완벽한 피아니스틱 뉘앙스를 지니면서, 원곡과 다른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최초 녹음]**

GP770

피셔: 피아노 소나타 전곡

주자나 쉬무르도바(피아노)

체코의 선구적인 작곡가 피셔의 예술가적 고민이 녹아있는 일곱 개의 소나타

루보시 피셔는 선구적인 체코의 작곡가로서 자국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콘서트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 음악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주었다. 피셔는 피아노를 가장 사랑하는 악기라고 말했던 만큼, 그의 여덟 개의 소나타(2번은 분실)는 그의 작품 목록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 곡들은 피셔의 내면적인 음악적 일기이다. 학생 시절 작곡한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작품부터 60~70년대의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만년의 완숙한 솜씨로 다듬어진 단순하고 감성적인 터치까지, 예술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세계 최초 녹음]**

GP758

쿠바의 피아노 음악

야밀레 크루스 몬테로(피아노)

아름다운 아바나 해변의 열정과 여유가 가득 담긴 쿠바의 대표적인 피아노 음악

라틴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섬나라라는 폐쇄성으로 형성된 쿠바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음악세계를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르네스토 레쿠오나는 가장 존경받는 라틴아메리카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안달루시아 모음곡〉은 코르도바, 알함브라 등 안달루시아 명소를 그렸다. 카를로스 파리냐스는 쿠바 음악을 기반으로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들려주며, 안드레스 알렌은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 출신으로서 대단한 에너지와 기교를 요구한다. 쿠바와 뮌헨에서 공부한 몬테로는 완벽한 연주에 쿠바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감성과 열정을 전달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71

라프: 피아노 협주곡, 봄의 예찬, 알프레드 왕 광시곡

뜨라 응우얜(피아노),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케리 스트라톤(지휘)

스위스의 낭만이 펼쳐지는 라프의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

19세기 스위스 작곡가 요아힘 라프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여 멘델스존과 슈만의 인정을 받아 음악계에 널리 알려졌다. 오늘날 열한 개의 교향곡이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품목록에는 피아노곡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은 라프의 뛰어난 솜씨를 잘 드러낸다. 〈봄의 예찬〉은 산뜻한 분위기와 노래하는 듯한 사랑스러운 멜로디가 인상적이며, 〈피아노 협주곡〉은 밝고 서정적이면서도 그의 개성이 돋보이는 낭만시대의 걸작이다. 〈알프레드 왕 광시곡〉은 남다른 열정을 품은 매력적인 작품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76

시프린: 미션 임파서블, 재즈 소나타, 주제와 10개의 변주 등

미리안 콘티(피아노)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화음악 작곡가 랄로 시프린의 삶과 음악

랄로 시프린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영화음악 작곡가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미션 임파서블', '러시 아워' 등의 수많은 음악을 썼다. 이 음반에는 유명한 〈미션 임파서블〉 메인 테마의 피아노 편곡 등 모두 2016년에 시프린이 피아니스트 미리안 콘티를 위해 직접 편곡하거나 새로 쓴 작품들을 수록했다. 시프린이 젊은 시절 '작품 1'로 명명한 〈재즈 소나타〉의 감각적이고 순수한 음악세계부터, 최근작 〈주제와 10개의 변주〉가 보여주는 완숙한 솜씨까지 노거장의 음악과 열정, 그리고 삶이 이 한 장에 담겨있다.

IBS Classical

www.IBS Classical.es

IBS22015
에보카시온 델 비에호 마드리드
트리오 아르보스

감각적인 무곡 리듬과 매혹적인 선율이 결합된 매력적인 스페인 실내악
스페인은 20세기 유럽의 모더니즘과는 무관한 길을 걸었다. 낭만성을 극대화하며 스페인 특유의 리듬과 선율을 더욱 짙은 농도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세 곡은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에바리스토 블랑코의 〈삼중주 C장조〉는 감각적인 무곡 리듬과 매혹적인 선율이 결합되어있으며, 앙헬 폼페이의 〈마드리드의 보통사람과 대장장이〉는 볼레로와 세기디야 등 스페인 무곡의 매력을 기악에 담아냈다. 헤라르도 곰바우의 〈삼중주 F#장조〉는 독특한 리듬을 타고 진지한 고전미를 갖추고 있다.

IBS122017
팔로미노, 나로, 페르골레시: 하프시코드 협주곡
라 템페스타드, 실비아 마르케스 출리아(하프시코드, 예술감독)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18세기 남부 유럽의 화려한 음악 세계
호세 팔로미노는 마드리드 출생으로 마드리드와 리스본에서 바이올리니스트와 작곡가로 활동하며 큰 명성을 얻었으며, 만년에 브라질로 이주하여 신세계의 음악을 이끌었다. 마누엘 나로는 발렌시아 출신으로 신동으로서 유명세를 얻었으며, 발렌시아와 마드리드에서 오르가니스트와 작곡가로 활동했다. 페로골레시는 오페라 부파로 음악사에 기록된 이탈리아 작곡가로, 그의 '두 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은 이러한 장르로서 남부 유럽에서 작곡된 첫 곡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작품들에서 화려한 18세기 남부유럽의 음악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ICA Classics

www.ICA Classics.com

ICAC5142 **[2CDs] [추천음반]**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 41번 · 피아노 협주곡 23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클라라 하스킬(피아노)

1950년대 카라얀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남긴 '실황' 자료
2014년에 서거했던 리차드 이터(1928~2014)는 리리타(Lyrita) 레코드를 50년 넘게 운영하며 20세기 중 · 후반 영국의 음악계를 전문으로 기록하고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ICA Classics 레이블은 2005년부터 리리타와 장기 독점 계약을 통해 희귀 콜렉션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 음반이 그 대표작이다. 카라얀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인연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어졌으나 대표적인 레코딩이 사실상 별로 없다. 본 음반은 이러한 역사이 공백을 메우는 자료이자, 철저한 통제로 스튜디오 녹음을 선호했던 카라얀의 로열 페스티벌홀 실황을 담은 것이라 더욱더 각별하다. 1955년 실황(차이콥스키 · 라벨), 1956년 실황(모차르트). 실황의 분위기와 공기에 몸을 내맡겨 보다 자유로운 공기가 스피커로 흘러나오지만, 제왕의 카리스마는 흐트러짐이 없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CD1) 초입의 트럼펫의 열창과 말년의 클라라 하스킬(1896~1960))이 노래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CD2)의 느린 2악장은 지극히 대조적이며, 카라얀의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한눈에 보여준다.

ICAC5144
차이콥스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발레 모음곡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아의 전통에 유럽적 세련이 가미된 실황 연주
1936년 창단된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은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로도 불리며 러시아적 색채와 전통을 잇고 있다. 초대 지휘자 알렉산더 가우크, 나탄 라크린 등 러시아의 음악사를 빛낸 별 같은 지휘자들이 이끌었고, 무엇보다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1965년부터 2000년까지 이끌며 러시아 음악사의 묵직한 전통을 빚었던 악단. 이 음반은 2013년 12월,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홀 실황이다. 2011년부터 이 악단이 예술감독으로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를 임명한 것 자체가 이미 유로프스키가 러시아 음악의 적통을 잇는 적자라는 것을 상징하는지 모른다. 게다가 런던 필의 수석지휘자로 재직하며 체득한 현대적인 감각과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의 음악감독 경력(2001~2013)을 통한 종합예술에 대한 음악적 노하우가 한 몸에 서려 있는 존재이고, 유로프스키가 지닌 이 모든 에너지가 이 두 장의 CD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CAC5143
슈만: 교향곡 4번/ 브람스: 교향곡 1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귀도 칸텔리(지휘)

33세의 젊은 거장 귀도 칸텔리의 역동적인 해석을 담은 소중한 기록
귀도 칸델리는 1940~50년대에 큰 주목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1956년 36세의 나이에 라스칼라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된지 불과 1주일 후 파리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비운의 예술가였다. 이후 그가 남긴 녹음은 전설이 되어 오늘날에도 발매를 거듭하고 있다. 이 음반은 1953년 5월 11일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린 실황을 담고 있다. 뛰어난 음질에 젊은 칸텔리의 역동적인 해석을 감상할 수 있다.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서곡은 재기발랄하며, 슈만의 '교향곡 4번'은 한껏 고양되어 있고,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은 활력이 넘친다.

ICAC5146
허/첸: 바이올린 협주곡 '양축'/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호우이지아(바이올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존 넬슨(지휘)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고대 중국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바이올리니스트 호우이지아(侯以嘉)는 줄리어드에서 도로시 딜레이와 린초량으로부터 배웠으며, 롱-티보 콩쿠르와 이탈리아 리피처 콩쿠르, 사라사테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세계를 무대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중국의 고전인 바이올린 협주곡 '양축'(梁祝)을 연주했다. 이 곡은 이생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죽어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사랑의 나비춤을 추겠다는 전설을 그린 것으로, 비극적 사랑의 애절함은 국적과 상관없이 감동을 준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카프리치오소'는 감성적 표현과 남다른 율동성을 들려준다.

Klanglogo

www.klanglogo.de

KL1414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남아메리카 예수회 선교사들의 음악 유산
파라과이의 소리(연주), 루이스 스자란(지휘)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긴 영화 '미션'의 장면들
대항해 시대 신대륙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종교를 넘어 문화의 전도자이기도 했다. 특히, 최근까지도 남아메리카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들의 음악 유산들은 동시대 유럽 음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최근 파라과이 '지구의 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내한했던 루이스 스자란과 그가 이끄는 파라과이의 소리는 남아메리카 레두시온(예수회 선교단 정착지)과 관련된 음악을 음반에 담았다. 지구 반대편에서 연주된 바로크 음악의 담백하고 순수한 색채는 영화 '미션'의 한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MD&G www.mdg.de

9422008-6 [SACD] [추천음반]

브람스 2집: 피아노 3중주 1번 Op.8(1854년 버전), 3번 Op.101

빈 피아노 트리오 – 데이비드 맥캐럴(바이올린), 마티아스 그레틀러(첼로), 스테판 멘틀(피아노)

피아노 3중주로 만나는 브람스의 '청춘'과 '만년'

브람스(1833~1897)의 피아노 3중주 1번 Op.8은 1854년에 작곡되었고, 이후 만년인 1891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1988년 결성 후, 엠데게 레이블에서 9종 이상의 굵직한 앨범을 발매한 빈 피아노 트리오는 브람스 실내악 시리즈 1집에서 이번 2집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1집(MDG 942 1962-6)에 1번의 1891년 버전과 1880년에 작곡된 2번 Op.87을 수록하여 '브람스의 만년'을 느끼게 했다면, 이번 제2집에는 '청년 브람스'가 작곡한 1번의 초기 버전(1854년)과 '만년의 브람스'가 1886년에 작곡한 3번 Op.1010l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적 간극과 음악을 통해 한 작곡가의 젊음과 만년의 시간을 가늠하고 관조해볼 수 있다. 엠데게에서 베토벤 · 브람스 · 스메타나 · 차이콥스키 · 하이든 등의 음반을 낸 트리오인 만큼 노련미가 돋보인다. 엠데게의 음향기술 역시 세 개의 악기에 우열 없이 입체감을 부여한다. 눈앞에서 연주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연주나 녹음 모두 수작인 앨범이다.

3352038-2 [2CDs]

펠릭스 드레제케: 교향곡 Op.12 · 40, 피아노 협주곡 Op.36

게오르크 한슨(지휘),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우스 텅스키(피아노)

19세기 독일의 숨은 보석, 드레제케의 관현악곡을 만나다

리스트와 바그너를 열렬히 찬미했던 펠릭스 드레제케(1835~1913). 그는 낭만적인 선율을 짓는 데에 큰 능력이 있었으며, 고전주의 경향을 불어 넣은 듯한 음악을 작곡하는 데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엠데게 레이블이 재발매한 이 음반(2CD)에는 드레제케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이 될 만한 관현악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교향곡 op.12와 op.40, 피아노 협주곡 op.36, '구드런' 서곡, 펜테실레이아를 위한 교향적 프롤로그, 독일 부퍼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깔끔하고 집중도 있다. 클라우디우스 텅스키가 협연하는 피아노 협주곡도 우리가 몰랐던 19세기의 협연곡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수록된 해설지(영 · 독 · 프)도 작곡가와 곡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6020169-2

샤인 · 베른하르트 · 차하우 · 피셔: 독일 바로크 합창 & 미사곡 모음집

헤르만 막스(지휘), 라이니세 칸토레이, 마르티나 린스(소프라노), 얀 스테판 빔머(테너), 헤이트룬 괴츠(비올라 다 감바), 크리스토프 레만(오르간) 등

합창과 미사곡으로 느껴보는 독일 바로크의 미학

요한 샤인(1586~1630), 크리스토프 베른하르트(1627~1692), 프리드리히 차하우(1663~1712), 요한 카스파 피셔(c.1665~1746)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들이다. 샤인은 바흐 음악의 주춧돌이었으며, 베른하르트는 샤인과 함께 바로크의 초석을 다진 쉬츠의 제자였고, 차하우는 헨델의 스승이었다. 수록된 이들의 합창과 미사 음악은 마르틴 루터가 쓴 가사와 미사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헤르만 막스와 라이니세 칸토레이의 연주는 당대에 충실한 해석을 근본으로 무반주 합창, 비올라 다 감바 등이 함께 하는 기악 반주의 합창을 들려준다. 유럽의 고성당에 들어선 듯한 풍부한 울림과 공간감이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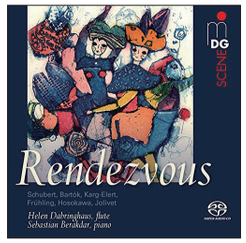
6132040-2

한스 아이슬러: 39곡의 가곡 모음집 VOL.2

홀거 파크(바리톤), 스테판 쉴레이르마허(피아노)

노래로 살펴보는 한스 아이슬러의 음악과 세계관

바리톤 홀거 파크의 한스 아이슬러(1898~1962)의 가곡 모음집 1집(MDG 613 2001)에 이어지는 2집이다. 아이슬러가 10년이 넘는 미국 망명길에서 돌아온 1948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1962년까지 쓴 곡들로, 브레히트를 비롯해 괴테 · 투콜스키 · 하이네 · 마야코프스키 등의 시와 텍스트를 가사로 삼고 있다. 39곡의 길이는 대개 1~2분. 하지만 시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재구성하였기에 가곡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이 잘 녹아 있으며, 망명 생활의 고통과 파시즘에 대한 비판, 왜곡된 독일 정신에 대한 조롱 등이 담겨 있다. 홀거 파크는 엠데게 레이블에서 사티 · 풀랑크 · 림 · 아워 등의 가곡들을 담은 8종 이상의 앨범을 발매한 간판스타. 그와 늘 함께 하는 휄리 이르마허가 반주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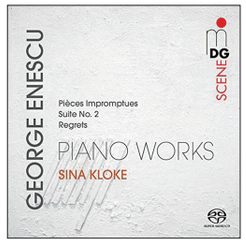
9032043-6 [SACD]

슈베르트 · 버르토크 · 엘레르트 · 졸리베 · 토시오 플루트 모음곡집 '랑데뷰'

헬렌 다브링아우스(플루트), 세바스티안 베라크다르(피아노)

슈베르트부터 토시오까지, 플루트의 '발라드'부터 '록'까지

만남을 뜻하는 '랑데뷰'라는 제목답게 이 음반 속에는 다양한 음악들이 만나고 있다. 특히 잘 알려진 명곡은 완성도 있는 연주로, 낯선 곡은 그 새로움을 앞세워 다가온다. 카를 프를링의 곡(1)은 드뷔시처럼 몽환적이고, 버르토크(2~4)는 역시나 헝가리적 향수를 강하게 드러내고, 지그프리트 카르크-엘레르트(5)의 무반주 독주곡은 요정의 고요한 비행 같고, 슈베르트는 '시든꽃 주제에 의한 변주곡'(6~14)은 가곡으로 태어났지만 그 어떤 플루트 곡보다 문학적인 서정성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호소카와 토시오(15)는 일본의 전통 악기인 사쿠하치와 플루트의 묘한 오버랩과 플루트의 날카로움을 깨우고, 졸리베(16)는 플루트가 보여줄 수 있는 20세기 음악의 전위성을 보여준다. 헬렌 다브링아우스의 플루트는 각 곡의 특징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 같다. 한마디로 플루트의 발라드부터 록까지 모은 앨범이라 할 수 있겠다.



9042039-6 [SACD]

에네스쿠: 즉흥 단편곡 Op.18,피아노 모음곡 2번 '리그레츠'

시나 클로크(피아노)

에네스쿠의 또 다른 매력, 피아노와 프랑스

게오르게 에네스쿠(1881~1995)는 '루마니아 광시곡'의 작곡가이자 예후디 메뉴인의 스승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하다. 그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루마니아 에네스쿠 페스티벌은 동유럽 최대의 축제로도 알려져 있다. 앨범에 수록된 즉흥 단편곡 op.18, 피아노 모음곡 2번, '리그레츠'은 그만의 개성이 담겨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편이다. 예상대로 루마니아의 색채가 물씬 나지만, 마스네 · 포레와 함께 공부했던 이력에서 묻어나오는 프랑스적인 감수성이 즉흥 단편곡(Pièces Impromptues)에서 배어나오기도 한다. 시나 클로크에게 있어 음반으로는 데뷔음반 격인데, 젊은 피아니스트의 과감한 선곡과 유명 작곡가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공존한다.

9042042-6 [SACD] [추천음반]

리스트 B단조 소나타, 슈만 '어린이의 정경'

요제프 마리우스 웨더(피아노)

젊은 피아니스트의 반듯한 해석

2013년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데뷔한 요제프 마리우스 웨더는 낭만주의 음악에 강세를 보이는 젊은 피아니스트다. 그의 전작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이었고, 2017년에 녹음하여 내놓은 이번 앨범 역시 리스트의 유일한 소나타인 B단조 소나타와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op.15다. 1901년 산 스타인웨이 '만프레트 뷔르키'를 연주하는 웨더는 고급스러운 울림의 중저음과 고음의 화려함의 균형감을 추구한다. 젊음을 무기 삼아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으며, 반듯한 해석을 통해 작품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는 성실성이 돋보이는 연주. 여기에 엠데게 레이블의 슈퍼 오디오 CD가 주는 청량한 음질이 한 몫 더한다.

6030438–2
보케르니: 3중주 · 5중주 · 7중주 세레나데
스칼라 콜른(플루트 · 오보에 · 호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더블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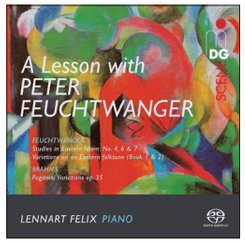
이로써 세상의 빛을 본 보케리니의 실내악곡
이탈리아의 루이지 보케리니(1743~1805)의 실내악 음악들은 하이든이 확립한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하이든이 보조적인 악기로 사용하던 첼로를 실내악에서 부각시키는 공을 세운 음악가다. 생전 그의 명성은 유명했지만 오늘날의 연주되지 않는 곡들도 많다. 10명의 시대악기 연주자가 한데 모여 1991년에 창단한 스칼라 콜른은 바로크 · 고전시대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단체로, 보케리니의 숨겨진 보석들을 발굴하고자 엠데게 레이블과 손을 잡았다. 보케리니의 작품은 프랑스의 음악학자 이브 제라르에 의해 분류되어 1969년 런던에서 출판되었으며, 제라르를 뜻하는 'G'가 작품 번호로 붙어 있는데, 이 음반 수록곡들은 'G'가 붙지 않은 곡들이다. 즉, 스칼라 콜른에 의해 빛을 본 음악들로 3중주와 5중주, 그리고 7중주의 세레나데이다. 시대악기의 섬세한 질감을 담는 엠데게의 음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307 2004–2
모차르트 초기 현악 4중주 3집: 5 · 7 · 11 · 12번
콘라드 무크 · 틸만 뷔닝(바이올린), 이보 바우어(비올라), 마티아스 무스도르프(첼로)

모차르트 초기 현악4중주의 매력을 파헤치다
모차르트는 교향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3곡의 현악 4중주곡을 남겼다. 1988년에 결성된 라이프치히 현악 4중주단은 엠데게(MDG)의 단골 실내악그룹으로 모차르트 현악 4중주곡 녹음의 세 번째 음반으로 5번(KV158), 7번(KV160), 11번(KV171), 12번 (KV172)이 수록되었다. 1772~1773년에 작곡된 이 곡들은 모차르트 음악의 여흥적 성격이 차츰 순수음악으로 바뀌던 때였다. 4곡을 꿰는 이들의 연주는 모차르트의 이러한 바람을 읽은 듯, 은은하며 진지하고 품격의 무게를 갖추었다.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과 이들이 즐겨 찾는 마리엔뮌스터 홀의 음향은 현에 윤기를 가하는 또 다른 악기처럼 작용한다.

901 2053–6 **[SACD]**
슈베르트 교향곡 8번 '그레이트'
페터 귤케(지휘), 브란덴부르크 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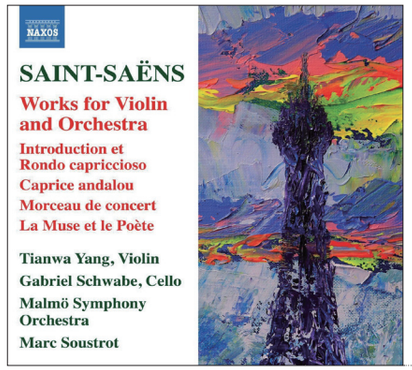
각 악기가 일구는 시원한 물결과 청량감이 압권!
'그레이트'는 슈베르트가 평생 존경했던 베토벤의 교향곡을 모델로 한한 걸작이다. 페터 귤케(1934~)는 힌데미트 · 쇤베르크를 비롯한 슈레커 · 블렌딩게르 등 낯선 19 · 20세기 작품들을 주종목으로 한다. 2017년에 창단 200주년을 맞은 브란덴부르크 교향악단을 이끄는 그의 지휘는 악기들의 숨결을 하나씩 건져 올리는 듯한 생생함을 향해간다. 엠데게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으로 슈베르트의 걸작이 3차원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매 트랙마다 펼쳐진다. 특히, 3 · 4악장에서 거친 파도처럼 치고 들어오는 저음현의 향연은 시원한 청량감마저 제공한다.



904 2047–6 **[SACD]**
페터 포이히트방어 '동방의 어법' · 브람스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레나르 펠릭스(피아노)

동양의 신비주의와 브람스의 만남
독일 작곡가 페터 포이히트방어(1939~2016)는 인도와 중동에 관심이 많았다. 피아노 독주곡 '동방의 어법'과 '동양 민속선율에 의한 변주곡'은 이란이나 인도의 현악기로 연주하는 현란한 민속음악을 듣는 것 같다. 교수이기도 했던 포이히트방어는 이 곡들을 통해 학생들의 기교를 향상시켰다고도 한다. 레나르 펠릭스의 연주는 물방울을 떨어뜨려 묘한 무늬의 물결을 만드는 손 같다. 함께 수록된 브람스의 파가니니 변주곡에서 그는 차분하고 여유있는 템포를 택하며, 앞의 트랙에서 몰아온 마법적인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Naxos www.naxos.com



8573411 **[추천음반]**
생상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티안와 양(바이올린),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마르크 소스트로(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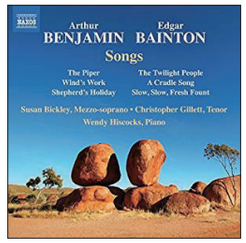
엇갈림에서 어울림으로
소스트로와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생상스 관현악 작품 4집은 피아노와 첼로에 이어 생상스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악기인 바이올린 작품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에서 명쾌하고 열정적인 색채 짙은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긴 티안와 양은 '안달루시아 카프리스', '하바네라' 등의 작품에서도 스페인의 인상에 담긴 작품의 각별한 면모를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다. '뮤즈와 시인들'에서 첼로와 바이올린의 호흡은 '엇갈림에서 어울림'으로 나아가는 연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거침없는 바이올린의 향연은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에서 절정을 이룬다.

8559714
대런 하겐: 21세기 연작 가곡집
저스틴 아론슨 · 질다 라이언스(소프라노), 조셉 게인스(테너), 다니엘 테이트(바리톤), 로라 워드(피아노)

사랑에 대한 행간의 단상
미국의 작곡가 대런 하겐은 9개의 오페라, 5개의 교향곡, 12개의 협주곡 등 현재까지 35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새뮤얼 바버, 레너드 번스타인의 계보를 잇고 있는 그의 작품 세계 중심에는 '가곡'이 자리하고 있다. 수록된 작품들 중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와 《성경(고린도전서)》의 구절을 접목한 '애프터 워즈(After Words)'와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주제로 한 '4개의 디킨슨 노래'에는 사랑에 대한 행간의 단상을 담고 있다. '4개의 아일랜드 노래'(특히, 런던데리 에어)는 행간의 애틋함을 달래주고 있어 각별하다. 로라 워드의 정교한 연주는 작품의 핵심과 닿아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739
테리 라일리: 'Palmian Chord Riddle' & 'At the Royal Majestic'
트레이시 실버맨(전자바이올린), 토드 윌슨(오르간), 내슈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 카를로 게레로(지휘)

전자악기가 빚어내는 다양한 색채
미국의 작곡가 테리 라일리의 음악은 장르를 뛰어넘는 다양한 조합, 색다른 색채로 알려져 있다. 본 음반에는 '전자 바이올린'의 대표작 반열에 올라있는 'Palmian Chord Riddle'(2011년),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오르간 '허리케인 마마(Hurricane Mama)'의 완공 기념 위촉 작품인 'At the Royal Majestic'(2013년)이 수록되었다. 클래식과 재즈, 흑인 음악, 인도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 두 작품, 전자 악기의 음색은 헤비메탈 음악의 파격적인 이미지와 닮아있다. 익히 유명한 작품을 음반으로 감상할 수 있어 작품의 의외성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1377
아서 벤자민 & 에드가 베인튼: 가곡집
수잔 비클리(메조 소프라노), 크리스토퍼 질레트(테너), 웬디 히콕스(피아노)

과거의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여정
《자메이카 룸바》와 오페라 《두 도시 이야기》 그리고 벤자민 브리튼의 스승으로 유명한 아서 벤저민, 스탠포드의 제자이자 'And I Saw a New Heaven' 등 앤섬으로 알려진 에드가 베인튼의 가곡이 수록된 음반이다.1차 세계 대전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작곡가 두 사람, 가곡 음반에 수록된 총 42개의 작품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여정을 담고 있다. 예민한 감성과 내면의 무한한 흐름을 담담히 노래하는 음성, 특히 정교한 피아노 선율은 작곡가의 속내를 오롯이 보여준다. 적극 추천하고 싶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619
셉투라: 금관 7중주를 위한 작품 5집
셉투라–금관 7중주단(연주)

금관 7중주로 느껴보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백미
금관악기의 색다른 매력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셉투라의 5집 앨범에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주제로 드뷔시, 라벨, 포레의 작품을 담았다. 금관 7중주로 감상하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 그 중에서도 포레 작품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정적으로만 느껴졌던 라벨 작품 속 '동적인 이미지'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수록된 작품 중에서도 드뷔시 작품의 뿌연 하이라이트, '가라앉은 성당'의 극적인 색채는 음반의 백미이다. 금관 7중주라는 의외의 편곡이지만 프랑스 인상주의의 핵심을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음반이다. 이제까지 발매된 음반과 더불어 감상을 강력 추천하고 싶다.

8573649
라즐로 라이타: '카프리치오'(op.39, 발레 모음곡)
페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니콜라스 파스케(지휘)

교향곡과는 또 다른 우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라이타의 발레 모음곡
바르톡, 코다이, 도흐나니와 더불어 20세기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라있는 라즐로 라이타. 그의 관현악 작품 7집에는 1944년 작곡한 단막 발레 '카프리치오'의 모음곡이 수록되었다. 17세기 '코메디어 델라르테'를 20세기 버전으로 재해석한 작품에는 작곡 당시 헝가리의 암울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는 밝고 활기찬 색채로 가득하다. 산뜻하고 우아한 인상, 위트가 더해진 색채는 6집까지 수록된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암울한 시대를 대하는 라이타의 또 다른 방식과 마주할 수 있는 음반이라 할 수 있겠다.

8573688
체르니: '피아노협주곡 d단조', '서주와 화려한 론도'(op.233), '(베버의 《오리이안테》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 그리고 론도'
로즈마리 턱(피아노),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리처드 보닝(지휘)

풍만한 음향, 조화롭고 자연스런 흐름이 돋보이는 작품
체르니에게 있어 피아노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서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명성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악기로 남아있다. 베토벤의 제자이자 리스트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의 피아노 음악을 조명하는 시리즈 3번째 음반에는 '피아노협주곡 d단조', '서주와 화려한 론도'(op.233), '(베버의 《오리이안테》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 그리고 론도'가 수록되었다. 드넓은 스케일을 휘감는 풍만한 음향, 조화롭고 자연스런 흐름은 로즈마리 턱의 명료한 터치 속에서 '전원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감상을 추천하고 싶다.

8573747 **[추천음반]**
쇼스타코비치: 'Gadfly(등애)'(1965년 오리지널 스코어 전곡)
라인란트–팔츠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연주), 마인츠 바흐 합창단(합창), 마크 피츠–제럴드(지휘)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유명한 영화음악 'Gadfly(등애)'의 오리지널 스코어 전곡
19세기 합스부르크왕가의 지배에 맞서는 이탈리아 투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Gadfly(등애)'의 배경 음악은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영화 음악 중 가장 유명하다. 일생을 억누르던 스틸린의 사후 해방을 맞은 작곡가의 내적 인상을 엿볼 수 있는 본 작품은 그동안 '로망스' 정도가 유명할 뿐 원래 모습은 가려져 있었다. 마크 피츠–제럴드는 작품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복원하고 이를 근거로 영화 음악 'Gadfly(등애)'의 전모를 조명했다. 사운드 트랙에서 제외된 부분과 함께 작곡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영화 음악 '대안'(1932년)의 한 대목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음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세계 최초 오리지널 스코어 전곡 녹음]**

8573694
오펜바흐: 서곡 모음집
대럴 앙(지휘), 릴 국립 관현악단(연주)

오펜바흐의 성공작으로 손꼽히는 오페레타의 서곡들
작곡가이자 첼로 연주자로 활동했던 오펜바흐의 이름은 '호프만의 이야기', '자클린의 눈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한 대목인 '캉캉'일 것이다. 음반에는 오펜바흐의 성공작이라 할 만한 오페레타 8개 작품의 서곡과 함께 초기 작품인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곡'이 수록되었다. 대럴 앙이 지휘하는 릴 국립 관현악단은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작품의 진정한 매력을 균형감 갖춘 연주 속에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 실제 극장에서 느낄 법한 음향은 '캉캉'의 친숙미를 한껏 고조시킨다.

8573754
프랑코 알파노: 피아노 작품집
오라지오 마이오네(피아노)

'투란도트'의 미완성 부분을 보필한 프랑코 알파노의 피아노 작품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프랑코 알파노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미완성 부분을 보필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부활'등 오페라와 실내악 작품에서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그의 작품 세계는 피아노 작품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좋을 듯하다. '4개의 나폴리 춤곡', '4개의 루마니아 춤곡', '5개의 클레오 드 메로데 춤곡' 등 알파노의 피아노 작품들은 슈만, 멘델스존, 나폴리 칸초네, 신고전주의적인 색채들에 걸쳐 있다. 드뷔시를 연상시키는 분위기, 작품의 기발한 리듬감을 살리는 오라지오 마이오네의 연주는 작곡가의 감성을 북돋고 있다.
*** '4개의 소품'(1–4번 트랙), 노스텔지어(향수, 20번 트랙)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70
조지 디슨: '합창 교향곡' & '사도 바울의 멜리데 항해'
엘리자베스 와츠(소프라노), 케이틀린 헐컵(메조소프라노), 조슈아 엘리콧(테너), 로데릭 윌리엄스(바리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바흐 콰이어(합창), 데이비드 힐(지휘)

작곡가 최고의 시절을 구현하는 연주
영국의 작곡가 조지 디슨의 '합창 교향곡'은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거의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작품이다. 고난과 회복의 역사 속에 내재하는 신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 107편〉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장대한 스케일은 엘가의 '제론티우스의 꿈'과 비슷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바울의 멜리데 표류 장면(《사도행전》)을 그린 '사도 바울의 멜리데 항해'는 생전 조지 디슨의 명성에 걸 맞는 작법이 투영되어 있다. 세인트폴 성당의 음향과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묵직한 연주, 바흐 합창단의 순수한 색채가 조화를 이루는 연주는 선명한 음질과 더불어 작곡가 최고의 순간을 구현하기에 부족함 없어 보인다.

8573760 **[추천음반]**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 3집
아담 레빈(기타)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의 르네상스를 장식하는 작품들
21세기 스페인의 기타 음악을 조명하는 시리즈 3번째 음반에는 에두아르도 모랄레스–카소,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 호세 루이스 크레코, 레오나르도 블라다, 크리스토발 할프테르 등이 작곡한 최근 스페인 기타 음악이 수록되었다. 이 중 파야의 '사랑은 마술사'를 현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블라다의 '카프리초스 12번'과 더불어 크리스토발 할프테르의 '기타의 공간(Espacio de guitarra)'은 음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1집(8.573024), 2집(8.573409)에 이어 날렵하고 현란한 기교와 산뜻한 서정으로 21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의 르네상스를 재현하는 미국의 기타리스트 아담 레빈의 연주는 여전히 인상 깊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29
빌라로보스: 교향곡 1 & 2번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이삭 카라브체프스키(지휘)

빌라로보스 교향곡의 이정표
2011년도부터 시작된 이삭 카라브체스프키와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빌라로보스 교향곡 시리즈 마지막 음반(6집)에는 교향곡 1번과 2번이 수록되었다. '예측불허'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 1번'은 스크리아빈 또는 홀스트의 색채와 브라질 대평원을 연상시키는 스케일, '세헤라자데'(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서사적인 면모가, 빌라로보스 교향곡 작법을 보여주는 작품 '교향곡 2번(부제 : 승천)'은 작곡가 심리를 보여주는 '상승'의 이미지가 돋보인다. 작곡가와 작품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연주는 이제까지의 호평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고 있다.

8573849
티모시 해밀턴: 레퀴엠
일로나 돔니치(소프라노), 제니퍼 존스턴(메조 소프라노),니키 스펜스(테너), 데이비드 스타우트(바리톤), 이언 틴데일(오르간), 칸토리부스 & 로제나우 신포니아(연주), 티모시 해밀턴(지휘)

전쟁으로 인한 내면의 상흔과 잔상, 1차 세계대전 발발 200주년 추모 작품
2012년 위촉된 영국의 작곡가 티모시 해밀턴의 '레퀴엠'은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2014년)을 추모하기 위해 위촉되었다. 모두 12개 부분으로 구성된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극적이고 역동적인 색채로 드러내기 보다는 내면의 상흔과 잔상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노의 날(Dies irae, 디에스 이레)'가 빠진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본 작품은 관조적인 색채로 가득한 새로운 느낌의 레퀴엠이다. 존 루터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선율과 은근한 울림, 관조적인 시선은 케루비니의 작품과는 정 반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포레의 '천국으로(In paradisium)' 마냥 더할 나위 없는 안식의 세계로 감상자를 이끈다.

Ondine www.ondine.net

ODE1289–5
시벨리우스 '타피올라' '전설' '여덟개의 노래'
한누 린투(지휘),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안네 소피 폰 오터(메조소프라노)

시벨리우스의 정통 교향시부터 편곡된 가곡까지 만나다
교향시 '타피올라'와 '전설', 시벨리우스 탄생 150년을 맞아 아울리스 살리넨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여덟 개의 노래'가 수록된 스페셜 음반이다. '타피올라'는 시벨리우스가 교향곡 전곡(7곡)을 완성한 다음 해인 1925년, 탄생 60주년을 맞아 작곡한 곡. '전설'은 초기작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덟 개의 노래'에서 피아노를 대신하는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화음은 오로지 이 음반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 편곡의 완성도가 원곡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노래는 핀란드어로 구성, 해설지엔 영문이 수록되어 있다. 온디 레이블은 핀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보고(寶庫)와도 같은 레이블이다. 여기서 뽑아내는 한누 린투와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궁합은 핀란드 음악의 해석과 연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ODE1297–2 **[추천음반]**
베토벤 3중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3번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타냐 테츨라프(첼로)

만남으로 가꾼 연륜과 안정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베토벤
2017년 5월, 노던 신포니아와 내한(롯데콘서트홀)하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1~5번)을 선보여 화제를 낳았던 라르스 포그트. 둘의 궁합은 이미 온디(ONDINE) 레이블에서 발매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ODE 1292–3)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고, 여기에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타냐 테츨라프가 합세하여 놀라운 베토벤 3중 협주곡을 선보인다. 이들의 연주에 대해 논하기 전,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포그트가 함께 했던 디스코그라피를 살펴보자. 브람스 · 슈만 · 모차르트 소나타를 함께 하여 3종의 음반을 내놓았고, 크리스티안–타냐–포그트의 음악적 우정은 온디 레이블 발매 브람스 피아노 3중주(ODE 1271–2D)에서 정점에 달했다. 본 앨범의 음악을 들어보기 전, 이미 입증된 그들의 인연이 이 음반에 빠져들 준비를 하게 한다. 각 악기의 독립적 사운드와 전체가 어우러지는 연주와 온디 레이블의 녹음 방식이 매력을 배가한다. 해설지에는 라르스 포그트에게 묻는 베토벤 음악에 관한 인터뷰(영 · 독)가 수록.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OACD9036D
디스커버리 리사이틀
김정훈 등 일곱 명의 젊은 성악가, 데이빗 가울랜드(피아노)

젊은 성악들의 젊은 목소리와 참신한 레퍼토리가 매력적인 음반
2001년에 시작된 제트 파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 음반은 2011~17년에 대상자로 선발된 일곱 명의 성악가들의 연주를 모은 것으로, 2015~17년 프로그램에 선발된 한국인 테너 김정훈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폴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 목소리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부터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콘골트 등 유명한 낭만 가곡뿐만 아니라 풀렝크, 몸푸, 크럼 등 20세기 작품까지 폭넓은 음악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Orchid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075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2번 / 포레: 꿈꾸고 난 후 등

그웬돌린 마신(바이올린), 시몬 부허(피아노)

파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노래하는 가장 프랑스다운 작품들

그웬돌린 마신은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제네바의 '오트 에콜 드 뮈지크'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스위스의 음악제인 GAIA의 예술감독이기도 하다. 그녀는 '불꽃'이라는 이 음반을 가장 프랑스다운 작품들로 채웠다. '프랑스 작곡가'로서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드뷔시의 가장 프랑스적인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와 그를 잇는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이외에도 포레와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메시앙 등의 소품은 파리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노래한다.

ORC100076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8번, 피아노 소나타 30번, 11개의 바가텔, 6개의 바가텔

이샤이 샤에르(피아노)

섬세한 터치와 남다른 감성적 표현으로 이끌어낸 베토벤의 낭만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샤이 샤에르가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작품들을 연주했다. 베토벤은 고전음악을 완성한 작곡가이지만, 동시에 낭만주의를 열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만년의 작품들은 섬세한 표현을 요구하고 여러 일탈과 함께 자유분방한 진행을 보여준다. 〈소나타 28번〉과 〈소나타 30번〉은 세 악장으로 구성에 마지막 악장이 느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11개의 바가텔〉과 〈6개의 바가텔〉은 성격소곡의 원류와 같은 작품들이다. 샤에르는 이 곡들에 담긴 낭만적 심상에 집중하여 섬세한 터치와 남다른 감성적 표현을 들려준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CONCERTGEBOUWKEST
RCO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RCO 17003 [2SACD / 2for1]

2016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실황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실황

다니엘레 가티(지휘) ·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방송합창단, 카렌 가그릴(메조소프라노), 첸 레이스(소프라노)

RCO의 '말러 전통'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다니엘레 가티

다니엘레 가티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담은 실황물(2016년 9월 18일)이다. 이 음반은 가티와 RCO가 함께 이룩해나갈 말러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한다. 얀손스의 뒤를 이어 2016/17 시즌에 취임 전에, 로열 필하모닉 음악감독(1996~2009) 시절에 내놓은 말러 교향곡 4번과 5번(RCA)을 내놓은 적이 있다. RCO 취임 전이던 2009~2011년에 9명의 명지휘자와 함께 진행된 RCO 말러 전곡 연주에서는 교향곡 5번(2010년 6월 25일 실황)을 지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 악단을 이끌었던 멩엘베르흐(1895~1945 재임)가 남긴 말러 페스티벌과 말러 전곡 연주회의 전통과 씨앗도 뿌리 역할을 했다. 교향곡 2번이 수록된 이 음반은 가티만의 완벽주의가 빛을 발한다. 카렌 가르길이 '원광'(Urlicht)'의 가사를 그윽한 목소리로 수놓는 4악장을 지나, 하나의 교향곡과 맞먹는 5악장(약 39분)으로 갈수록 흐트러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악장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금관악기 소리를 입체적으로 그려지며, 카렌 가그릴 · 첸 레이스 · 네덜란드 방송합창단의 목소리도 RCO와의 균형을 위해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짙은 우수가 느껴진다. 슈퍼오디오 CD(SACD)는 현장의 이 모든 분위기를 명징하게 담아내고 있어, 최고의 임장감을 제공한다.

Resonus www.resonusclassics.com

reso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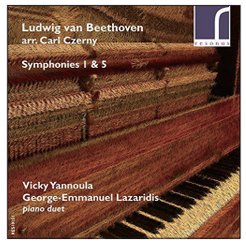
RES10147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데이빗 왓킨(바로크 첼로, 5현 첼로)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이 걸작의 녹음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음반

데이빗 왓킨은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시대악기연주단체의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바로크 첼리스트이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수많은 무대에 선 그는,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이 걸작의 음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가 사용한 1670년 크레모나에서 제작된 루제리의 악기는 안정되고 평온한 음색을 내며, 성가를 노래하는 듯 경건하다. 특히 6번은 아마티가 제작한 5현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악기는 크기가 작아 더욱 낭랑하고 밝은 소리를 낸다.



RES10151

베토벤: 교향곡 1번, 교향곡 5번 '운명' (체르니 편곡)

비키 야눌라, 게오르게-에마누엘 라자리디스(피아노)

중후한 저음과 명징한 선율, 그리고 충실한 내성부의 완벽한 조화

그리스 출신의 저명한 피아니스트인 비키 야눌라와 게오르게-에마누엘 라자리디스가 베토벤의 〈교향곡 1번〉과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했다. 이 두 곡을 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한 칼 체르니는 피아노 교습용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베토벤의 수제자로서 당시 큰 명성을 떨치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다. 체르니는 파트를 세분화하고 폭넓은 음역에 배치하여 이 두 곡이 가진 완벽함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피아니스틱한 면모까지 살려냈다. 풍부하고 중후한 저음과 산뜻하고 명징한 선율, 그리고 충실한 내성부의 조화가 훌륭하다.

RES10165

병사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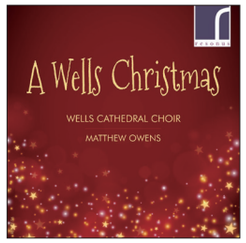
제임스 아커스(로맨틱 기타)

스코틀랜드의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낭만시대 거장들의 기타 음악

바로크 시대에 콘티누오 악기로 맹위를 떨쳤던 기타는 고전시대 이후 변방으로 밀려났지만, 한편으로는 솔로 악기로서 로맨틱 기타의 시대가 열렸다. 여기에는 스페인의 페르난도 소르와 이탈리아의 마우로 줄리아니 등 거장들 덕택이었다. 이 음반은 19세기 초 낭만의 개화기에 기타 음악을 지킨 그들의 음악들, 특히 스코틀랜드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소르의 〈내가 좋아하는 스코틀랜드 노래에 의한 변주곡〉은 그의 기타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있는 명곡이며, 줄리아니의 소품들은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정감있는 선율을 펼친다.

RES10175
베들레헴으로: 크리스마스 캐럴과 모테트
캔자스시티 칸토라이, 크리스 먼스(지휘)

인성의 아름다움과 신비롭고 완벽한 화음이 이끄는 환상의 세계
캔자스시티 칸토라이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음악은 특별하다. 이 음반은 16세기의 음악과 오늘날의 음악, 400년을 넘나드는 두 시대가 공존한다. 그럼에도 그 만남은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하나가 된다. 또한 이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과 캔자스시티 칸토라이의 연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갖는 아름다움에 집중하며, 신비로우면서도 완벽한 화음으로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남다른 매력이 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도 들을 수 있다.



RES10176
웰스의 크리스마스
웰스 대성당 합창단, 매튜 오웬스(지휘)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음향으로 맞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영국 남서쪽의 웰스 대성당 합창단은 909년에 창설되어 무려 1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의 음악적 무게감과 정통성은 세계의 그 어느 합창단도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위한 이 앨범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 음반은 〈징글 벨〉과 같은 익숙한 캐럴과 함께, 잉글랜드, 웨일스, 콘월, 프랑스, 체코 등 유럽의 여러 캐럴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영국 합창의 거장인 존 러터의 〈당나귀 캐럴〉, 〈어린 예수〉 등을 수록하여 가치를 더한다. 웰스 대성당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음향으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RES10186
위대한 손: 영국 비올라 다 감바 이중주곡
파올로 판돌포, 로버트 스미스(비올라 다 감바)

영국 바로크 음악의 대표 악기인 비올라 다 감바로 듣는 영국 특유의 양식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비올라 다 감바의 거장인 파올로 판돌포와 그의 수제자인 로버트 스미스가 함께 했다. 스미스는 2012년 바흐-아벨 감바 콩쿠르에서 우승과 함께 청중상과 특별상을 모두 휩쓸어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두 연주자는 이 음반에 17세기 영국의 거장 크리스토퍼 심슨, 존 젠킨스, 사이먼 아이브즈의 감바 이중주를 녹음했다. 한 악기가 기본 선율을 연주하고 다른 악기가 그 위에 화려한 즉흥연주를 하는 영국 특유의 양식인 '디비전', 자유로운 형식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즐길 수 있는 '전주곡' 등이 수록되었다.

RES10192
C.P.E. 바흐: 바이올린과 건반을 위한 전곡
기무라 리에(바로크 바이올린), 피터르-얀 벨더르(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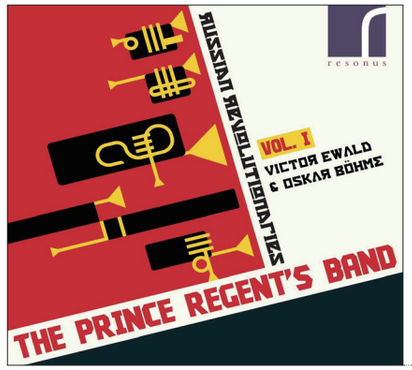
시대전환기의 다양한 표정을 접할 수 있는 CPE 바흐의 바이올린 음악
기무라 리에는 2010년 프레미오 본포르티 바로크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이며, 피터르-얀 벨더르는 2000년 바흐 콩쿠르 우승자로서 적잖은 음반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정상급 건반 연주자이다. 이 두 연주자는 CPE 바흐의 바이올린과 건반을 위한 작품 전곡을 두 장의 음반에 녹음했다. CPE 바흐는 18세기 중반 베를린에서 활동하면서 고전 양식을 확립하고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어 고전과 낭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바이올린 음악으로부터 시대 전환기의 다양한 표정을 만날 수 있다.

RES10200
뒤뤼플레: 레퀴엠, Op. 9/ 하웰스: 레퀴엠
뉴욕 5번가의 성도마 남성 및 소년 합창단, 존 스콧(지휘)

마지막 낭만의 모습을 간직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펼친 두 작곡가의 레퀴엠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뒤뤼플레와 영국의 작곡가 허버트 하웰스는 20세기 초의 마지막 낭만의 모습을 간직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오늘날의 음악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웰스의 〈레퀴엠〉은 레퀴엠의 통상문 대신에 라틴어 기도문과 함께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구절 등을 가사로 하여 영국적인 합창음악을 만들었다. 뒤뤼플레의 〈레퀴엠〉은 중세 성가를 연상시키는 선율과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화음이 결합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상적인 세계를 만든다. 뉴욕의 성도마 합창단의 연주는 경건하며 매우 아름답다.

RES10204
지지 않는 장미를 보라: 크리스마스 음악
더 퀸즈 식스, 리차드 피넬(오르간)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완벽한 화음
'더 퀸즈 식스'는 지난 2008년 퀸 엘리자베스 1세의 즉위 450주년을 맞아 설립된 여섯 명의 남성 중창단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보컬 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의 크리스마스 앨범은 '참 반가운 성도여', '엣 잇 스노우', '징글 벨', '고요한 밤' 등 익숙한 캐럴과 함께, 윌리엄 버드, 토마스 탈리스 등 16세기 영국 성가부터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 홀스트 등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영국, 노르망디, 바스크 지역의 전통캐럴 등도 들을 수 있다. 이들 여섯 명의 완벽한 화음은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라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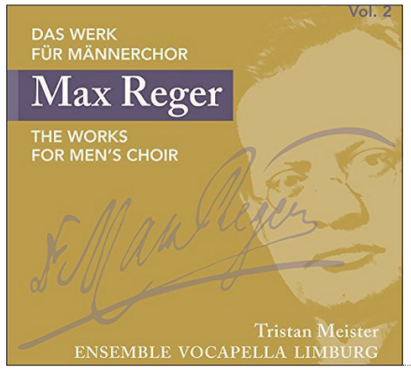


RES10201
뵈메: 트럼펫 6중주, 로코코 모음곡/ 에발드: 금관오중주 1번, 2번
더 프린스 레전트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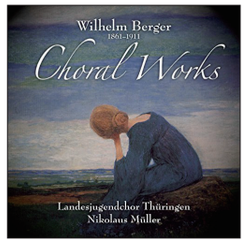
작곡 당시인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금관악기의 아담하고 민첩한 앙상블
'더 프린스 레전트 밴드'는 본래 19세기 초 웨일즈에서 활동했던 유럽 정상의 금관 앙상블로, 현재 최고의 시대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이 이름을 부활시켰다. 오스카르 뵈메는 독일 출신이 트럼페터이자 작곡가로, 마린스키 극장에서 24년간 코넷을 연주했다. 빅토르 에발드는 레닌그라드 출신의 작곡가로, 특히 네 개의 금관오중주로 기억되고 있다. 새로운 '더 프린스 레전트 밴드'는 시대악기 연주자답게 작곡가들이 활동했던 1900년 전후에 제작된 다양한 금관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했다. 아담하고 민첩한 앙상블은 금관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RES10202
캐벌리어 크리스마스
디 이버 싱어즈, 첼리스 콘소트 오브 비올, 폴 게임슨(지휘)
종교적 분위기에서 밝고 경쾌한 음악까지 17세기 영국의 다양한 표정
폴 게임슨 박사는 17세기 프랑스와 영국 음악의 전문가로, 뉴욕대에서 강의하면서 옛 악보들을 편집하여 출판하고 있다. 그가 설립한 '디 이버 싱어즈'는 그의 전문 분야인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북부를 대표하는 보컬 앙상블로 성장했다. 이 음반은 주요 레퍼토리인 17세기 초중반에 영국에서 작곡된 크리스마스 음악을 수록하고 있다. 타이틀의 '캐벌리어'는 당시 영국의 찰스 1세를 위시한 왕당파 '캐벌리어'를 뜻한다. 종교적 분위기에서 밝고 경쾌한 음악까지 당시의 다양한 표정을 담았다.

Rondeau www.rondeau.de



ROP6127
레거: 열 개의 노래, 열두 개의 마드리갈 편곡
앙상블 보카펠라 림부르크, 트리스탄 마이스터(지휘)
낭만 독일의 합창 전통을 잇는 막스 레거의 중후한 독일 음악의 진수
막스 레거는 오늘날 오르간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관현악 작품과 협주곡, 실내악곡, 성악곡, 합창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들은 풍부한 화음과 두터운 음향, 매혹적인 선율, 진지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남성합창을 위한 작품들 또한 레거의 음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열 개의 노래, Op. 83〉는 멘델스존과 브루크너, 브람스로 이어지는 낭만 독일의 합창 전통을 잇는 수작이며, 〈열두 개의 마드리갈 편곡〉은 16~17세기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노래를 편곡하여 옛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ROP6137
베르거: 합창음악
튀링겐 국립청소년합창단, 니콜라우스 뮐러(지휘)
고전적인 화음과 낭만적 감수성, 순수한 선율이 어우러진 독일적인 합창곡
빌헬름 베르거는 1903년부터 1911까지 마이닝겐의 호프카펠마이스터를 지냈던 인물로, 아름다운 아카펠라 합창곡을 다수 남겼다. 그의 음악은 바흐와 멘델스존, 브루크너, 브람스로 이어지는 독일 합창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짙은 낭만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화음으로 만드는 정통성도 잔잔한 감동을 준다. 튀링겐 국립청소년합창단은 실내악적인 텍스쳐와 투명한 음색으로 베르거의 순수성을 드러내 보이며, 독일 민요와 같은 친근한 분위기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모습이 베르거의 합창이 독일인들에게 널리 사랑 받는 이유일 것이다.

ROP6144
트럼펫과 오르간을 위한 낭만음악
토니 페제(트럼펫), 요나스 빌페르트(오르간)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
낭만시대의 선율들을 트럼펫과 오르간으로 편곡하여 연주한 앨범이다. 이 음반의 특징은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독일 등 여섯 나라의 작곡가들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유명 작곡가들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도 준다. 프랑크 〈안단티노〉와 포레 〈파반〉, 그리그 〈자장가〉, 바그너 〈사원으로의 행진〉, 레거 〈마리아의 자장가〉 등 따뜻하고 아름다운 트럼펫 선율과 오르간 화음은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 줄 것이다.

ROP6149
황량한 밤: 크리스마스 이후 열두 번의 밤
라카펠라 보컬 앙상블 그룹, 베로니카 바우어(지휘)
어둡고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이는 목소리의 화음
크리스마스 이후 이어지는 열두 번의 밤을 독일어로 '라우나흐트'(Raunacht)라고 부른다. '황량한 밤'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특히 북독일에서 어둡고 추운 겨울밤의 고통을 상징한다. 이 음반은 이러한 어둠, 밤, 겨울 등의 이미지를 가진 합창곡들을 모았다. 하지만 라카펠라 보컬앙상블 그룹에 속한 부속 앙상블은 다양한 음색, 뛰어난 화음은 이러한 어둡고 추운 이미지를 따뜻하게 녹인다. 멘델스존의 〈아침기도〉와 엘가의 〈눈〉, 존 러터의 〈가브리엘의 메시지〉 등 아름다운 작품과 함께 북유럽의 다양한 작곡가들의 멜로디가 수록되어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72 **[추천음반]**
두 대의 첼로로 연주하는 클래식
라이너 긴첼, 한스-헤닝 긴첼(첼로)
두 대의 첼로가 만드는 풍부한 음향과 절묘한 화음을 만나는 환상적인 순간
첼리스트인 라이너 긴첼은 뮌헨 음대의 교수이며, 한스-헤닝 긴첼은 그의 아들로서 그 역시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이다. 이 음반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비롯하여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쇼팽의 〈왈츠, Op. 34/2〉, 드뷔시의 〈골리웍의 케이크워크〉 등 유명한 작품들을 두 대의 첼로를 위해 한스-헤닝 긴첼이 편곡하여 연주했다. 두 개의 선율이 씨실과 날실처럼 서로 엮어가며 만드는 음악에서 뜻밖에 풍부한 음향과 환상적인 화음을 만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롬베르크와 세바르찬 리, 오펜바흐 등의 오리지널 이중주 작품도 수록했다.

SM263
마르토: 갈대의 노래, 열 개의 노래, 여덟 개의 노래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바리톤), 베셀리나 카사로바(메조소프라노), 갈리나 브라체바(피아노)
프랑스의 마지막 낭만을 지킨 앙리 마르토의 감성적인 노래들
프랑스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앙리 마르토는 오페라, 협주곡, 실내악곡, 가곡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음반은 프랑스어 가곡 〈열 개의 노래, Op. 19c〉와 독일어 가곡 〈여덟 개의 노래, Op. 28〉, 그리고 독일어 가곡 〈갈대의 노래〉를 수록했다. 그의 노래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반주 위에 지극히 서정적이고 호흡이 긴 멜로디를 실어 남다른 여유가 느껴진다. 불가리아 출신인 카사로바의 노래는 균형 잡힌 무게감과 깊은 감성으로 매혹적이며, 특히 〈갈대의 노래〉는 독일 가곡의 전설 피셔-디스카우의 1956년 녹음을 수록하여 가치가 높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SM274
세상의 차원
마를리스 페터젠(소프라노), 슈테판 마티아스 라데만(피아노)
주인공의 애틋한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는 최고의 가곡 연주
마를리스 페터젠은 오페라 전문지 '오페른벨트'로부터 세 번씩이나 '올 해의 가수'로 선정된 독일 정상급 오페라 가수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곡에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음반에서 리트 가수로서의 그녀를 만날 수 있다. 페터젠은 가곡에 있어서 충분히 극적이면서도 오페라 무대와는 다른, 섬세하고 속삭이며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바그너 등 독일 낭만을 대표하는 명가곡에 담긴 주인공의 애틋한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는 최고의 연주이다.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부르는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16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라
V/A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음악들
당신이 상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 이 음반에는 재즈부터 뮤지컬, 클래식, 고음악까지 상상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징글벨 락'(4번 트랙), '스노우맨'의 '워킹 인 디 에어'(5번 트랙), '울면 안돼'(7번 트랙), '기쁘다 구주 오셨네'(9번 트랙), '고요한 밤, 거룩한 밤'(12번 트랙)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율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편곡되어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또한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12월: 크리스마스'를 비롯하여 어빙 벌린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크리스마스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다.

Stone records www.stonerecord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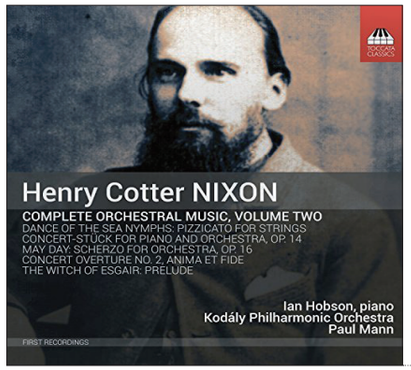
5060192780772
림스키-코르사코프: 가곡
아누시 호바니시안(소프라노), 유리 유르추크(바리톤), 세르게이 리빈(피아노)
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니며 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러시안 로망스의 진수
'셰헤라자데'로 유명한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열여섯 곡의 오페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합창곡과 가곡 등 목소리를 위한 음악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어의 장벽에 잘 알려지지 못했는데, 이 음반에서 그의 희귀한 가곡들을 들을 수 있다. 그의 노래는 톨스토이와 바이런, 푸시킨 등의 명시를 가사로 하며, 시적인 아름다움과 오페라 아리아와 같이 극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만의 독특한 감성을 맛볼 수 있다. 소프라노 호바니시안과 바리톤 유르추크의 음성은 우아하고 압도적인 박력을 지니고 있으며, 남다른 극적표현력을 보여준다.

Tactus www.tactus.it

TC701902
사마르티니: 여덟 개의 건반 소나타
수사나 피올란티(첼발로)
근대적인 다악장 소나타의 기틀을 보여주는 18세기 중엽의 우아한 건반 소나타들
1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사마르티니는 근대적 의미의 교향곡을 처음으로 선보인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수많은 협주곡과 소나타를 작곡하여 18세기 후반 고전 작곡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음반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사마르티니의 건반 소나타 여덟 곡을 모았다. 이 곡들은 마지막 트랙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근대적인 다악장 소나타의 기틀을 갖추고 있으며, 기악적인 빠른 악장과 우아한 무곡 풍의 느린 악장의 대비가 시대전환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최초 녹음]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373

닉슨: 관현악 전곡 2집

이안 홉슨(피아노), 코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폴 만(지휘)

낭만시대 영국에서 남다른 재기를 보여준 닉슨의 매력적인 작품들

헨리 코터 닉슨은 음악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낭만시대 영국음악에서 남다른 재기를 보여준 작곡가였다.
그의 음악은 독일적인 탄탄한 구성과 빈틈없는 화음을 들려주면서,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가볍고 유쾌한 스타일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오페레타 〈에스게어의 마녀〉의 전주곡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이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슈튀크〉는 제목에서부터 슈만을 연상케 하며, 관현악 스케르초 〈메이 데이〉는 브람스의 관현악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서곡 2번〉은 장대한 음악적 시나리오가 매력적인 대작이다.

TOCC0255

가라예프: 바이올린 소나타, 피아노를 위한 24개의 전주곡

바딤 레핀(바이올린), 무라드 후세이노프(피아노)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리듬과 음계, 고전적인 형식의 절묘한 융합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가라 가라예프는 쇼스타코비치의 제자로, 그의 음악은 아제르바이잔의 향토적 특징과 고전음악의 특징이 결합되어있다. 〈바이올린 소나타〉와 〈피아노를 위한 24개의 전주곡〉은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리듬과 음계, 고전적인 형식의 절묘한 융합을 보여준다. 최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자신의 극적인 표현을 더하여 프로코피에프에 필적하는 인상을 주며, 바쿠 음악원 교수인 후세이노프의 피아노도 훌륭하다.
'가을 소나타'라는 영상은 정원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담았다.
[Includes Bouns DVD]

만남으로 가꾼 연륜과 안정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베토벤

2017년 5월, 노던 신포니아와 내한(롯데콘서트홀)하여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1~5번)을 선보여 화제를 낳았던 라르스 포그트. 둘의 궁합은 이미 온딘(ONDINE) 레이블에서 발매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ODE 1292-3)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고, 여기에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타냐 테츨라프가 합세하여 놀라운 베토벤 3중 협주곡을 선보인다. 이들의 연주에 대해 논하기 전,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포그트가 함께 했던 디스코그라피를 살펴보자.

브람스 · 슈만 · 모차르트 소나타를 함께 하여 3종의 음반을 내놓았고, 크리스티안-타냐-포그트의 음악적 우정은 온디 레이블 발매 브람스 피아노 3중주(ODE 1271-2D)에서 정점에 달했다. 본 앨범의 음악을 들어보기 전, 이미 입증된 그들의 인연이 이 음반에 빠져들 준비를 하게 한다. 각 악기의 독립적 사운드와 전체가 어우러지는 연주와 온디 레이블의 녹음 방식이 매력을 배가한다. 해설지에는 라르스 포그트에게 묻는 베토벤 음악에 관한 인터뷰(영 · 독)가 수록.

ODE1297-2 **[추천음반]**

베토벤 3중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3번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타냐 테츨라프(첼로)

[수록곡]

1-3. Triple Concerto for Piano, Violin, and Cello in C major, Op. 56

4-6.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 37

ODE1284-2
Brahms: The Violin Sonatas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ODE1299-2
J.S. Bach: Sonatas & Partitas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ODE1271-2
Brahms: The Piano Trios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타냐 테츨라프(첼로)

ODE1292-2
Beethoven: Piano Concertos Nos. 1 & 5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Royal Northern Sinfonia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392 [DVD]
Accentus ACC10392 [Blu-ray]

accentus music

2016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베르디: '레퀴엠'

파비오 루이지(지휘),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 발레단, 크리스티안 슈푹(안무)/ 크라씨미아 스토야노바 (소프라노), 베로니카 시메오니(메조소프라노), 프란체스코 멜리(테너), 게오르크 체펜펠트(베이스)

애도의 음악과 춤, '레퀴엠'에서 만나다

이탈리아의 애국시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죽음을 애도하던 베르디가 쓴 '레퀴엠'은 그의 오페라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 걸작 중 하나다. 이 영상물은 2016년 12월,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의 '레퀴엠' 실황을 담은 것이다. 36명의 무용수를 비롯하여 4명의 성악가와 취리히오페라하우스의 합창단이 함께 하는 대형 무대로, 크리스티안 슈푹은 이 작품의 모티브를 베르디의 장례행렬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1901년 1월 27일, 87세로 일생을 마친 베르디. 이탈리아 오페라 사상 우뚝 선 이 거장의 죽음을 애도한 20만의 대군중이 행렬에 함께 했다. 지친 자와 그를 위로하며 함께 슬퍼하는 이들과 무용과 움직임이 무대에 가득 하다. 소프라노 크라씨미아 스토야노바와 테너 프란체스코 멜리의 존재는 루이지의 지휘나 슈푹의 춤만큼 큰 존재감을 발휘한다. 슈푹은 2017년 11월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리나'의 안무를 맡기도 했다. 그 특유의 고전과 모던의 조화는 '레퀴엠'에서도 빛난다.

[보조자료]

– 베르디(1813~1901)는 오페라 이외의 작품도 착수했다. 이중 최대 걸작은 이탈리아의 애국시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죽음을 애도하여 쓴 '레퀴엠'이다. 그가 예순 즈음에 작곡한 '레퀴엠'은 오페라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의 최고 걸작이다.

– 2016년 12월,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베르디의 '레퀴엠'은 루이지 파비오의 '레퀴엠'이기도 하며, 안무가 크리스티안 슈푹(1969~)의 '레퀴엠'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음악으로나, 무용작품으로 완성도가 높으며, 이를 담은 영상 역시 감상자에게 극장의 환경을 섬세히 제공하는 화질과 음향이 압권이다.

– 이 프로덕션은 36명의 무용수를 비롯하여 4명의 성악가와 취리히오페라하우스의 합창단의 대규모 무대이다. 크리스티안 슈푹은 이 작품의 모티프를 베르디의 장례행렬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1901년 1월 27일, 87세로 일생을 마친 베르디. 이탈리아 오페라 사상 우뚝 선 이 거장의 죽음을 애도한 20만의 대군중이 행렬에 함께 했다. 슈푹의 춤은 지친 자와 그를 위로하며 함께 슬퍼하는 이들과 그 움직임으로 가득 하다. 그리고 '레퀴엠'이 지닌 음악적 분위기, 예를 들어 두려움, 분노, 고통, 슬픔과 구속의 느낌이 루이지의 지휘봉으로 인해 부풀어 오를 때에는 무대에 거대한 스펙터클이 펼쳐진다.

–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다나에의 사랑'의 타이틀롤로 유명세를 날린 소프라노 크라씨미아 스토야노바, 베르디 '가면무도회'의 리카르도 역으로 유명한 테너 프란체스코 멜리의 존재는 루이지의 지휘나 슈푹의 춤만큼 큰 존재감을 발휘한다. 슈푹은 2017년 11월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리나'의 안무를 맡았다. 고전과 모던의 조화는 이 작품, '레퀴엠'에서도 여전히 빛난다.

– 50쪽 분량의 두터운 해설지에는 슈푹과 루이지의 인터뷰(독 · 영 · 불어)가 수록. 보너스 트랙에는 슈푹의 창작과 연습실 풍경, 그의 인터뷰가 실린 필름(독 · 영 · 불 · 일어 자막/57분 분량)이 들어 있다.

Accentus ACC20403 [DVD]
Accentus ACC10403 [Blu-ray]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1001~1006

미도리 (바이올린)

바흐가 괴텐에서 남긴 바이올린의 위대한 유산, 미도리와 만나다

1717~1723년에 바흐(1685~1750)가 머무른 쾨텐 지역의 성에서 미도리(1971~)가 연주한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1001~1006을 수록한 영상물이다. 영상은 미도리는 바흐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과 괴텐 성 내의 여러 방에서 연주하는 장면으로 구성된다. 고성(固城)에 울려 퍼지는 미도리의 바이올린 소리는 보통의 공연장과 다른 아주 독창적인 느낌이다. 바흐가 악보에 그려 넣은 필치를 따라가는 미도리의 음악은 정확하고 경쾌하면서도 강렬하다. 중간마다 나오는 미도리의 인터뷰(한국어 자막, 독 · 불 · 일어)는 한마디로 그녀만의 바흐론이다. "한 연주자가 한 악기로만 연주하지만, 다성부로 구성되어 있고 성부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대화도 하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혼자라는 느낌은 없어요." 이 영상물은 같은 레퍼토리로 2015년에 발매된 음반(ONYX4123)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은 이 음반을 통해 '미도리의 바흐'에 매료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한다. 41쪽 분량의 해설지(영 · 독 · 불어)가 수록.

[보조자료]

– 2016년 8월, 미도리(1971~)는 1717년과 1723년 사이에 바흐가 머물렀던 쾨텐 지역의 성에서 연주한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1001~1006을 담은 영상물이다.

– 영상이 시작되면 괴텐의 전경과 공원과 숲이 보인다. 바흐가 17명의 궁정 오케스트라를 이끌었고, 종교적인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평균율 클라비어 등과 같은 명곡을 배출했던 곳이다. 미도리는 괴텐에서 이 곡을 작곡한 바흐의 흔적을 더듬어본다.

– 괴텐의 성에 위치한 방들의 음향은 보통의 공연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느낌이다. 바흐가 악보에 그려 넣은 필치를 따라가는 미도리의 음악은 정확하고 경쾌하면서도 강렬하다.

– 중간마다 나오는 미도리의 인터뷰(한국어 자막, 독 · 불 · 일어)는 그녀만의 바흐론이다. "한 연주자가 한 악기로만 연주하지만, 다성부로 구성되어 있고 성부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서로 대화도 하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혼자라는 느낌은 없어요. 바흐는 항상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음악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주하고,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음악 속으로 깊이 파고들게 하죠. 바흐를 연주할 때, 음악은 아주 풍요로워요. 내 기억에 나는 바흐음악을 모르고 살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의 음악은 항상 내 주위에 있었어요."

– 이 영상물은 동일한 레퍼토리를 수록한 음반(ONYX4123)을 떠올리게 한다. 이 음반으로부터 '미도리의 바흐'를 발견했거나 매료된 이들에게 그 생생한 연주 영상을 제공한다. 41쪽 분량의 해설지(영 · 독 · 불어)에는 이 작품에 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Accentus ACC20415 [DVD]
Accentus ACC10415 [Blu-ray]

2017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 실황
바흐 'B단조 미사'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실내합창단,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란트샤머, 알토 엘리자베스 쿨먼, 테너 볼프람 라트케, 베이스 루카 피사로니 모두 블롬슈테트 사운드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사단이다.

노장의 연주는 곧 바흐음악의 신비로움을 푸는 정답이 되었다

올해로 구순에 달한 노장 블롬슈테트의 기념비 같은 영상물이다. 2017년 6월, 바흐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에 오른 'B단조 미사' 실황이다. 십 수 대의 카메라는 무대와 관객들을 세밀하게 그려내어 현장성을 더한다. 제19대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했던 악단과 함께 하는 노장은 넉넉하게 템포를 잡아 간다. 이지적이면서도 감정적 고양을 배제하지 않는 해석. 논비브라토를 강조하는 원전연주보다 모던악기에 풍부한 비브라토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파트간의 밸런스 유지와 다른 파트들의 소리도 명료하게 들리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악단에는 자신만의 관록을 불어넣고, 젊은 성악가들을 통해 음악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의 연주는 현장감을 적확히 구현하는 악상투스 레이블의 순도 높은 녹음으로 인해 더욱 빛난다. 50쪽 분량의 두터운 해설서(독 · 영 · 불)는 꼼꼼한 악곡 해설과 사진이 동봉된 음악적 성서 같다.

[보조자료]

– 2017년,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악상투스 레이블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장의 기념비적인 역작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음반(ACC80322)이 그중 하나라면, 바흐의 B단조 미사를 담은 이 영상물 역시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

– 6월이면 바흐 페스티벌이 열리는 바흐의 도시 라이프치히. 이 영상물은 2017년 6월, 바흐가 영면하고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 오른 'B단조 미사' 실황이다. 창을 통해 밝게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십 수대의 카메라는 2층에 위치한 악단과 합창단부터 성당에 가득 찬 관객들을 세밀하게 그려내어 현장성을 더한다.

– 블롬슈테트는 1998년부터 2005까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제19대 카펠마이스터로 재직했고, 2017/18 시즌부터는 제21대 카펠마이스터로 이 악단을 이끄는 안드리스 넬손스와 함께 계관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그 때 뿌려놓았던 씨앗은 악단의 발전을 위해, 또한 객원지휘로 블롬슈테트와 만날 때마다 악단의 새로운 이미지를 꺼내놓는다.

– 넉넉하게 템포를 잡은 블롬슈테트의 해석은 이지적이면서도 감정적 고양을 배제하지 않는다. 논비브라토를 강조하는 원전연주보다 모던악기에 풍부한 비브라토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파트간의 밸런스 유지와 다른 파트들의 소리도 명료하게 들리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악기 군의 균형과 통제는 물론 드레스덴 합창과의 조화도 완벽하다.

– 눈에 띄는 것은 성악진이다. 지난 2015년 9월 라이프치게반트하우스에 올라 화제가 되었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도 그렇고, 그는 악단에는 자신만의 관록을 녹여 넣지만, 성악진은 젊고 유능한 성악가들을 고용하여 음악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란트샤머, 알토 엘리자베스 쿨먼, 테너 볼프람 라트케, 베이스 루카 피사로니 모두 블롬슈테트 사운드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사단이다.

현장감을 적확히 구현하는 악상투스 레이블의 순도 높은 녹음도 큰 몫을 한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음악과 잔향은 오디오룸을 성당처럼 울림이 풍성한 잔향과 기시감으로 가득 채운다. 50쪽 분량의 두터운 해설서(독 · 영 · 불)는 꼼꼼한 악곡 해설과 사진이 동봉된 음악적 성서 같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344 [DVD]
Arthaus 109345 [Blu-ray]

2014 몬테 카를로 오페라극장 실황
베르디 '에르나니'

다니엘리 갈레가리(지휘), 몬테 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테 카를로 오페라 합창단, 장 루이 그린다(연출) / 라몬 바르가스(에르나니), 르도비크 테치어(돈 카를로), 알렉산더 비노그라도프(돈 루이 고메즈 데 실바), 스베틀라 바실레바(엘비라)

베르디도 반할 법한 테너(바르가스)와 바리톤(테치어)의 존재감

모나코의 몬테 카를로 오페라극장의 2014년 실황으로, '에르나니'는 빅토르 위고의 동명 희곡을 개작한 4막의 비극 오페라이다. 에르나니와 돈 루이 실바는 돈 카를로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결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설정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압박 하에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감정에 부합되어 작품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15년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인 비제 '진주조개잡이'의 연출가 장 루이 그린다가 연출을 맡았다. 중형 사이즈의 무대에 조각과 소품, 문양 등을 활용하여 고증에 충실한다. 영상감독 스테판 아뷔의 카메라는 무대 아래에서, 혹은 공중에서 출연진의 정수리를 비추는 독특한 장면도 연출한다. 라몬 베르가스의 존재감이 이 영상물을 택하게 하지만, 바리톤을 좋아하는 마니아라면 극중 돈 카를로 역의 바리톤 루도비크 테치어에 주목할 것. 해설지(19쪽 구성/영어 · 프랑스 · 독일)에는 작품 해설과 캐스팅 소개가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베르디가 작곡한 '에르나니'는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의 동명 희곡을 개작한 4막의 비극 오페라이다. 베르디의 '롬바르디아인'에 이은 그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독립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작곡 당시의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압박 하에 있었다. 물론 이탈리아 내에 독립운동의 외침도 점차 높아졌다. 베르디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오페라로 녹여 넣어 이탈리아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곤 했다.

– 에르나니와 돈 루이 실바는 돈 카를로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결한다. 작품의 내용은 스페인을 배경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돈 카를로에 저항하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이탈리아 국민 감정에 부합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 이 공연은 모나코의 몬테 카를로 오페라극장에 오른 2014년 실황이다. 2015년 국립오페라단이 선보인 비제 '진주조개잡이'의 연출가 장 루이 그린다가 연출을 맡았다. 그의 무대는 고증에 충실하고 있으며, 대형무대보다 조각과 소품, 문양 등을 활용하여 역사적 감각을 잘 살리고 있다. 영상감독 스테판 아뷔의 카메라는 전체적인 장면보다 적극적인 클로즈업을 통하여 인물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꼼꼼히 담아낸다. 때로는 무대 아래에서 출연진을 비추거나, 공중에서 그들의 정수리를 비추는 숏도 독특하다.

– 라몬 베르가스의 존재감이 이 영상물을 택하게 하지만, 설령 바리톤을 좋아하는 마니아라면 극중 돈 카를로 역의 바리톤 루도비크 테치어에 주목할 것. 다니엘레 갈리가리의 지휘는 두 남성 성악가의 소리를 진중히 받쳐주며 오페라의 레이어를 진지하고, 무게 있게 가져간다.

– 해설지(19쪽 구성/영어 · 프랑스 · 독일)에는 작품 해설과 캐스팅 소개가 담겨 있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42 [2DVDs]
BelAir BAC442 [Blu-ray]

스페인 마드리드 레알 테아트로 실황
벨리니 '청교도'

에켈리노 피도(지휘), 레알 테아트로 오케스트라 · 합창단, 에밀리오 사기(연출), 다니엘 비앙코(무대미술), 디아나 담라우(엘비라), 자비에르 카마레나(아르투로), 루도비크 테치에르(리카르도), 니콜라우스 테체(조르조)

벨리니 오페라를 위해 태어난 듯한 담라우와 카마레나

'청교도'의 매력은 영국 내전의 역사와, 왕당파인 아르투로를 사랑하지만 그와 헨리에타 마리아 여왕의 관계를 오해해 미쳐 버린 의회당원인 여주인공 엘비라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엮어낸 것에 있다. 이 영상물은 2016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 레알 테아트로 실황이다. 아르투로 역의 자비에르 카마레나는 고음에 능란해야 하는 벨리니 스타일에 적격이다. 아르투로가 엘비라에게 구애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그대! 오, 사랑하는 이여'는 이 영상물의 백미 중 백미. 담라우는 엘비라가 마침내 미쳐 버리는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녀의 콜로라투라를 듣고 있으면 짜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내릴 것이다. 3막, 재회하여 오해를 푼 두 사람이 부른 '그대를 품에 안으리'가 끝나자 극장 내에는 환호와 박수가 가득 찬다. 지휘자 에벨리노 피도도 오랜 시간 지휘봉을 들지 않고 박수로 가득찬 이 순간을 성악가들에게 돌린다. 해설지에는 1 · 2 · 3막에 관한 줄거리(영 · 프 · 독)가 담겨 있다.

BelAir classiques

[보조자료]

– 벨리니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파리에서 최후의 걸작으로 남을 '청교도'를 완성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또 하나의 '노르마'를 기대했지만, 벨리니는 이전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달콤한 멜랑콜리가 가미된 작품을 내놓아 놀라움을 자아냈던 것이다.

– '청교도'의 매력은 영국 내전의 역사와, 왕당파인 아르투로를 사랑하지만 그와 헨리에타 마리아 여왕의 관계를 오해해 미쳐 버린 의회당원인 여주인공 엘비라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엮어낸 것에 있다.

– 2016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 레알 테아트로 실황이다. 아르투로 역의 자비에르 카마레나는 고음에 능란한 테너를 요구하는 벨리니 스타일에 적격이다. 그는 하이 F의 고음까지 불러야 하는 고난도의 아르투로 역을 능숙히 소화해낸다. 아르투로가 엘비라에게 구애하는 장면에서 부르는 '그대! 오, 사랑하는 이여'는 이 영상물의 백미 중 백미. 담라우는 엘비라가 마침내 미쳐 버리는 장면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녀의 콜로라투라를 듣고 있으면 짜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내릴 것이다.

– 3막, 도피하던 아르투로는 한 번이라도 엘비라를 다시 만나고 싶어 요새 쪽으로 몰래 다가와서, 엘비라와 함께 부르던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아르투로를 본 엘비라는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아르투로가 여왕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자 엘비라는 이를 납득하고 재회의 기쁨을 노래한다. 두 사람이 부른 '그대를 품에 안으리'가 끝나자 극장 내에는 환호와 박수가 가득 찬다. 최고의 호흡! 마치 영상물은 이 순간을 간직하려는 듯이 극장 밖으로 중계되는 스크린을 비추고, 환호하는 관객석을 비춘다. 최고의 순간이다. 지휘자 에벨리노 피도도 오랜 시간 지휘봉을 들지 않고 박수로 가득 찬 이 순간을 성악가들에게 돌린다.

– 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르투로를 바라보며 고통 받는 엘비라(담라우), 아르투로(카마레나), 리카르도(루도비크 테치에르), 조르조(니콜라우스 테체)가 함께 하는 4중창 '버림받은 줄 알고 있는 가여운 그대여'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모니를 보여준다. 해설지에는 1 · 2 · 3막에 관한 줄거리(영 · 프 · 독)가 담겨 있다.

BelAir BAC138 [2DVDs]
BelAir BAC438 [Blu-ray]

2016 뮌헨 국립극장 실황
라모의 오페라 발레 '우아한 인도의 나라'

이보르 볼튼(지휘),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총연출 · 안무), 뮌헨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발타자르 노이마 합창단, 이스트먼 무용단, 리세트 오로페사(베헤 · 치마 역), 고란 주리크(벨론 역), 애나 퀸타스(아모르 · 자이르 역), 타레크 나츠미(오스만 · 알리 역), 크릴 아우비티(발레르 · 타크마스 역),

이국에 대한 신비감,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비틀다

춤과 음악이 결합된 프랑스 '오페라 발레'를 대표하는 라모(1683~1764)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당시 유럽인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터키, 잉카, 페르시아, 북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각 막은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적 구성이며, 엇갈린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일관된다. 이 '오페라 발레'의 총연출과 안무를 맡은 이는 벨기에의 안무가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1976~). 2016년 7월, 뮌헨 국립극장에 오른 이 작품의 이국적 배경을 통해 셰르카위는 이민자들의 이동, 파편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토와 국경의 문제 등을 정치적 문제를 환기시킨다. 작품이 속하는 '오페라–발레'만의 장르적 특성을 안무가에게 쥐어주며, 동시에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문제의식을 부각시킨 프로덕션이다. 메이킹 필름(14분 분량)을 통해 지휘자 · 안무가 · 무대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다. 해설지(21쪽 분량)에는 안무가가 직접 쓴 연출노트, 작품 해설(영 · 프)로 되어 있다.

[보조자료]

– 프랑스의 장 필리프 라모(1683~1764)는 오십 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오페라를 작곡했다. 서곡과 4막으로 구성된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은 그의 세 번째 오페라. 제목의 '인도'는 당시 유럽인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의 나라들'을 통칭한다. 4편의 각기 다른 이야기는 터키, 잉카, 페르시아, 북아메리카가 배경이다. 각 막은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적인 구성이며, 대개 엇갈린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일관된다.

– (1막) '관대한 터키인'은 터키에 납치된 유럽 여인과 사랑에 빠진 지배자가 그녀에게 이미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비를 베풀어 두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 내용이다. (2막) '페루의 잉카인들'은 원주민과 사랑에 빠진 탐험가의 이야기. (3막) '꽃–페르시아의 축제'는 2막의 무겁고 비극적인 결말로부터 탈피하여 유희적인 분위기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가신의 하녀를 사랑하고, 가신은 왕자의 하녀를 사랑하는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왕자는 여자로 변장하고 왕자의 하녀는 남자로 변장하는 내용이다.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4막) '북미의 야만인들'. 북아메리카 인디안족의 아름다운 여인 지마는 정복자인 스페인인 돈 알바로와 프랑스인 다몽으로부터 동시에 구애를 받지만, 결국 동족인 아다리오를 선택하는 내용이다.

– 이 작품의 장르명은 정확히 '오페라–발레'로 통용된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장르로, 라모의 주특기였던 서정비극과는 스타일이 다른 프랑스만의 장르다. 그런 점에서 2016년 7월, 뮌헨 국립극장에 오른 이 프로덕션의 총연출과 안무를 벨기에의 안무가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1976~)가 맡은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그는 안무 외에 연출, 무대디자인, 음악가로 활동 중이다.

– 셰르카위는 바로크 예술의 미학보다 자신이 지닌 생각을 작품에 녹여 넣는다. 영상물의 재킷의 이미지가 그것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 그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없는 높은 철창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이들이 매달려 오르고 있고, 그 꼭대기에는 말끔한 수트를 입은 권력자 같은 이가 노래를 하는 모습이다. 셰르카위는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동, 파편화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토와 국경의 문제 등을 환기시키고,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다문화주의라는 문제를 제시한다. 그래서 4개의 막에서 국경과 피부색을 넘나들며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담겨 있는 정치 · 사회적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작품이 속하는 '오페라–발레'만의 장르적 특성을 잘 살리는 의도이자,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문제의식이 녹아 있는 프로덕션이다.

– 보너스 트랙의 메이킹 필름(14분 분량)은 이 작품을 낳은 과정과 지휘자, 안무가, 무대디자이너의 생각과 인터뷰가 들어가 있다. 해설지(21쪽 분량)에는 안무가가 직접 쓴 연출노트, 작품 해설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구성되어 있다.

BelAir BAC144 [2DVDs]
BelAir BAC544 [Blu-ray]

말뫼 오페라극장 실황
드뷔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막심 파스칼(지휘), 말뫼 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벤자민 라자르(연출), 마르크 모이용(펠리아스 역), 제니 다비엥(멜리장드 역), 로렌토 알바로(골로 역)

중세와 현대, 상징주의와 사실주의가 만나는 묘한 무대와 음악

1902년, 드뷔시가 발표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비극성을 차용한 작품이다. 가공의 중세왕국 알르몽드의 왕자 골로와 의문의 여인 멜리장드,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어든 골로의 이복동생 펠리아스. 이들의 엇갈린 애증과 비극을 담은 이 작품은 신비하고 상징적인 내용만큼이나 몽환적이고 탐미적인 음악어법으로 구성되었다. 스웨덴 말뫼 오페라극장 2016년 5월 실황으로 오른 이 프로덕션의 연출은 벤자민 라자르가 맡았다. 작품에 스며있는 중세적 감각과 신비주의적인 색채감은 숲과 신비로운 정원과 묘한 조명으로 유지하되, 의상과 소품은 20세기의 모던주의를 차용하였다. 신비주의와 사실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묘한 연출이다. 프랑스의 젊은 지휘자 막심 파스칼의 정교한 지휘, 말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집중도 있는 연주, 펠리아스 역의 모이용의 독특한 목소리와 멜리장드 역의 매혹적인 열연이 이 작품에 모든 활력을 제공한다.

[보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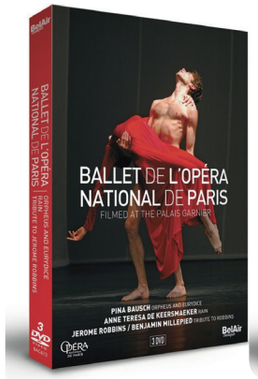
–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드뷔시가 남긴 유일한 오페라이자, 20세기 벽두에 서구 음악계의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희대의 문제작이다. 메테를링크의 상징주의 무대극에 기초한 이 5막 오페라는 드뷔시가 10년 이라는 긴 세월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으로, 자신이 존경해마지않던 바그너의 음악극을 인상주의로 대표되는 자신의 독특한 음악언어로 재창조한 것이었다.

– 가공의 중세왕국 알르몽드의 왕자 골로와 의문의 여인 멜리장드, 그리고 이들 사이에 끼어든 골로의 이복동생 펠리아스. 이들의 엇갈린 애증과 그에 따른 비극을 그린 이 오페라는 신비하고 상징적인 극의 내용만큼이나 몽환적이고도 탐미적인 음악서법으로 구성되었다.

– 1902년에 발표한 이 작품을 드뷔시는 오페라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서정극(drama lyrique)'라고 불렀고, 후대의 사람들은 '인상주의 오페라의 거봉'으로 기억한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반대편에 서있으면서도,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비극성을 차용한 이 작품은 한마디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다.

– 스웨덴 말뫼 오페라극장 2016년 5월 실황으로 오른 이 프로덕션은 프랑스 오페라 연출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는 벤자민 라자르(1977~)가 연출을 맡았다. 작품에 스며있는 중세적 감각과 신비주의적인 색채감은 숲과 신비로운 정원과 묘한 조명으로 유지하되, 의상과 소품은 20세기의 모던주의를 차용하였다. 신비주의와 사실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묘한 연출이다.

– 프랑스의 젊은 지휘자 막심 파스칼의 정교한 지휘, 말뫼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집중도 있는 연주, 펠리아스 역의 모이용의 독특한 목소리와 멜리장드 역의 매혹적인 열연이 이 작품에 모든 활력을 제공한다.



BelAir BAC613 [3DVDs]

BelAir BAC614 [3Blu-ray]

파리 오페라발레단의 가르니에 극장 3부작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글룩(음악), 피나 바우쉬(안무), '레인(Rain)' 스티브 라이히(음악), 아네 테레사 더 케이르스 마커르(안무), '오마주 투 제롬 로빈스' 제롬 로빈스(안무), 벤자민 밀피에드(안무)

파리의 밤을 빛낸 무용 3부작을 한 손에, 저렴한 가격에!

이 영상물은 2009년, 2015년, 2011년에 벨에어 클라시크 레이블을 통해 선보여온 파리 오페라발레단의 가르니에 극장 3부작을 모은 것이다. 음악을 통해 무용의 세계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니아나, 무용을 통해 음악의 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싶은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한다. (1)'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2008년 실황)에서 글룩의 음악과 안무가 피나 바우쉬(1940~2009)의 만남, (2)'레인(Rain)'(2014년 실황)에서 아네 테레사 더 케이르스 마커르(1960~)와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인 스티브 라이히의 예술적 동거, (3) 제롬 로빈스(1918~1988)의 서거 20주년이 되던 해에 그의 대표작 '엔 솔(En Sol)' '밤 속으로(In The Night)' '더 콘서트'와 영화 '블래스완'의 벤자민 마일피드의 '삼인조(Triade)'를 통해 라벨의 재치, 쇼팽의 낭만성(로빈스)와 니코 멀리의 모던 감성(마일피드)을 접할 수 있다. 해설지는 수록되지 않았다.

[보조자료]

– "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추지 않고 음악을 춤추어낸다"는 무용가 알렉산드르 사하로프의 말처럼, "춤은 음악에 의해 태어나지만 음악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움직임이다"라는 울라노바의 말처럼 이 영상물은 수록된 모든 음악에서 태어나 춤으로 꽃을 피운다.

– 이 영상물은 2009년, 2015년, 2011년에 벨에어 클라시크 레이블을 통해 선보여온 파리 오페라발레단의 가르니에 극장 3부작을 모은 것이다. 음악을 통해 무용의 세계에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니아나, 무용을 통해 음악의 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싶은 마니아들에게 적극 권한다. 해설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1)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2008년 2월 파리 가르니에 극장 실황으로 안무가 피나 바우쉬(1940~2009)가 촬영과 영상물 제작을 허락한 단 하나의 영상물이다. 토마스 헹엘브로크가 이끄는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과 합창단 모두 훌륭하며, 특히 소프라노 임선혜가 아모르 역으로 출연해서 멋진 노래를 들려준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대부분 프랑스어로 부르지만, 이 공연에선 독일어로 부른다. 2000년 파리오페라발레단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무용수로 입단하여 2009년 쉬제(군무와 주역을 오가는 솔리스트)로 은퇴한 김용걸이 하계를 지키는 세 괴물 중 하나로 등장하여 존재감 있는 캐릭터를 드러낸다.

– (2) '레인(Rain)'은 2014년 10월 파리 가르니에극장 실황이다. 안무가 아네 테레사 더 케이르스 마커르(1960~)의 이 작품에서 춤만큼 돋보이는 것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인 스티브 라이히의 음악이다. 반복되는 라이히의 음악 속에서 춤은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이나 리듬 패턴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혹은 우연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음악과 합일을 이루면서 현대무용의 자유로움과 시원함을 느껴진다.

– (3) '오마주 투 제롬 로빈스'는 2008년 9월 가르니에 극장 실황이다. 2018년은 로빈스(1918~1988)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2017년)에 의미 있는 영상물로서 눈여겨볼 만하다. 그에게 제2의 고향과도 같았던 파리 오페라발레단은 그의 서거 20주년이 되던 해에 그의 대표작과 오마주 작품을 선보였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이 흐르는 '엔 솔(En Sol)', 쇼팽의 음악과 함께 2인의 남녀가 드라마틱하게 선보이는 '밤 속으로(In The Night), 무대 위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쇼팽의 음악에 맞춰 콘서트장에서 일어나는 관객들의 해프닝을 코믹하게 그린 '더 콘서트'이다. 여기에 영화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벤자민 필피에드가 니코 멀리의 현대음악과 함께 오마주 작품인 '삼인조'를 선보인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erliner Philharmoniker
BPHR 170141 [4CD + 2Blu-ray]

존 애덤스 인 베를린!
존 애덤스의 대표작과 베를린 필의 만남 [4CD + 2Blu-ray]

존 애덤스(작곡 · 지휘), 사이먼 래틀 · 구스타보 두다멜 · 앨런 길버트 · 키릴 페트렌코(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일라 요세포비치(바이올린), 게오르크 니글(바리톤), 켈리 오코너(메조소프라노), 타마라 멈포드(알토) · 페터 호아레(테너) · 베를린 방송합창단 등

2016/17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작곡가 존 애덤스 관현악곡 모음집

베를린 필의 2016/17 상주 작곡가였던 존 애덤스(1947~)의 관현악곡 모음집이다. 그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와 함께 거론되며, 오페라 '닉슨 인 차이나'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의 대표작 7곡을 애덤스 · 래틀 · 두다멜 · 앨런 길버트 · 페트렌코가 직접 지휘한다. 특히, 두 장의 CD에 수록된 오라토리오 '막달라 마리아 복음'을 래틀의 지휘로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집은 충분한 가치를 발한다. 연주영상 외에 호른 단원 사라 윌리스와의 인터뷰(영어 · 19분), 다큐멘터리 '존 애덤스의 질주'(영어 · 영문45분), '닉슨 인 차이나' 초연 연출가 피터 셀라스와의 인터뷰(영어 · 15분)가 들어 있다. 108쪽 분량의 해설지(독문 · 영문 구성)야말로 애덤스의 관현악 세계를 총망라한 값진 자료다. 트랙 · 곡목 해설(12~34), 존 애덤스론(35~47), 가사(48~52), '막달라 마리아 복음' 대본(64~95) 등이 들어 있다. 수록 음원 다운로드 코드와 디지털 콘서트홀 무료이용권(7일)도 포함되어 있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6/17 상주 작곡가였던 존 애덤스(1947~)의 관현악곡 모음집이다. 그의 이름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가인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와 함께 거론되며, 오페라 '닉슨 인 차이나'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다. 그의 대표작 7곡이 수록된 이 작품집은 4장의 CD와 2장의 블루레이로 구성되었다. 영상의 자막은 독일어 · 영어 · 스페인어 ·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다.
[1CD] '화성법(Harmonielehre)'–1985년 초연. 2016년 9월 15~17일 실황 존 애덤스 지휘 / '고속 기계를 타고 짧은 질주(Short Ride in a Fast Machine)'–1986년 초연. 2016년 12월 2~4일 실황 앨런 길버트 지휘 실황 / '시티 누아르(City Noir)'–2009년 초연. 2017년 6월 8~10일 실황 구스타보 두다멜 지휘. **[2CD]** 오케스트라를 위한 '롤라팔루자(Lollapalooza)'–1995년 초연. 2016년 12월 2~4일 실황 길버트 지휘 /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사 교향곡 '세헤라자데'–2015년 초연. 2016년 12월 15~17일 실황 존 애덤스 지휘 · 레일라 요세포비치(바이올린) / 바리톤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상처(The Wound–Dresser)'–1989년 초연. 2017년 3월 22~23일 실황 키릴 페트렌코 지휘 · 게오르크 니글(바리톤). **[3CD · /4CD]** 오라토리오 '막달라 마리아 복음' 1막은 5장 구성으로 CD1에 수록되었고, 6장 구성의 2막은 CD2에 수록–2012년 초연. 2017년 1월 26~28일 실황 사이먼 래틀 지휘 · 켈리 오코너(막달라 마리아 역) · 타마라 멈포드(마르타 역) · 페터 호아레(나자로 역) · 베를린 방송합창단 등 **[Blu ray 1]** 1CD과 2CD의 음원이 수록된 [블루레이1]에는 호른 단원 사라 윌리스의 인터뷰(영어 진행 · 19분), 베를린 필하모닉 홍보 영상(5분)이 수록되어 있다. **[Blu ray 2]** 3CD와 4CD가 수록된 [블루레이2]에는 다큐멘터리 '존 애덤스의 질주'(영어 진행 · 영문 자막 제공 · 45분)에는 애덤스와의 인터뷰, 그의 음악을 다룬 지휘자 · 단원 · 연출가의 인터뷰, 리허설 및 백스테이티 장면 등이 들어 있다. '닉슨 인 차이나' 초연무대를 연출했던 미국의 영화감독 피터 셀라스와 함께 한 인터뷰 영상(영어 진행15분)도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 있다.

– 108쪽 분량의 두터운 해설지(독문 · 영문 구성)는 존 애덤스의 관현악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각 트랙 및 곡목 소개(p.12~34), 알렉스 로스의 존 애덤스론(p.35~47), '상처'의 가사(p.48~52), 오라토리오 '막달라 마리아 복음'의 대본(p.64~95), 존 애덤스 이력(p.100~103), 베를린 필 명단(p.104~105)이 들어가 있다. 특히 해설지에는 초연 일시 · 장소 · 지휘자 정보가 꼼꼼히 들어가 있다. 이 해설지의 삽입된 그림과 디자인을 맡은 이는 볼프강 틸만. 그의 이력(p.107)도 들어가 있다. 작품집에 수록된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코드와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7일 무료 이용권도 수록되어 있다.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BVE08036 [DVD]
Belvedere BVE08037 [Blu-ray]

belvedere

모차르트 '레퀴엠' 2017 헤라클레스홀 실황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합창단, 마크 패드모어(테너), 제니아 퀴마이어(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쿨만(메조소프라노), 아담 프란체카(베이스–바리톤)

모차르트와 얀손스, '레퀴엠'을 통한 산자와 죽은 자의 놀라운 음악적 대화

2017년 5월 11 · 12일 헤라클레스홀 실황. '레퀴엠'은 1791년 12월 5일 모차르트의 죽음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긴 채 사망하였고 이후에 여러 사람이 이 미완의 명작에 손을 대면서 여러 판본(바이어 · 로빈즈 랜던 · 리처드 몬더 · 로버트 레빈 · 던컨 둘스 판본 등)이 탄생하였지만 그 가운데 오늘날에 '원본격'의 대우를 받는 건 쥐스마이어 판본이다. 쥐스마이어 판본을 연주하는 얀손스는 독일의 유력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이 곡은 초월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연주는 죽음을 넘어 인류를 향한 메시지와 온기로 가득 차 있다. 소프라노 제니아 퀴마이어와 마크 패드모어는 얀손스 · 로열 콘세스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레퀴엠'(2011년 실황)에 함께 한 적이 있어 노련미와 호흡이 돋보인다. 2016/17 시즌에 마크 패드모어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주음악가였다. 음악평론가 볼프라 슈타흐가 쓴 '죽음을 너머'(영어 · 독일어)와 지휘자 · 악단 · 솔리스트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마리스 얀손스가 이끄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2017년 5월 11 · 12일 헤라클레스홀 실황으로, 제니아 퀴마이어(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쿨만(메조소프라노), 아담 프란체카(베이스바리톤), 마크 패드모어(테너)가 함께 한다. 독일의 유력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이 곡은 초월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한 얀손스의 해석처럼 무대는 죽음을 넘어 인류를 향한 메시지와 온기로 가득 차 있다. 소프라노 제니아 퀴마이어와 마크 패드모어는 얀손스 · 로열 콘세스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레퀴엠'(2011년 실황)에 함께 한 적이 있어 노련미와 호흡이 돋보인다. 2016/17 시즌에 마크 패드모어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주음악가였다.

– '레퀴엠'은 1791년 12월 5일 모차르트의 죽음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긴 채 사망하였고 이후에 여러 사람이 이 미완의 명작에 손을 대면서 여러 판본이 탄생하였다. 요제프 아이블러는 모차르트가 사망한 12월에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체로부터 악보를 넘겨받지만 결국 이 일을 완성한 이는 모차르트의 제자 쥐스마이어였다. 그는 아이블러가 손 댄 악보를 새롭게 필사해 고친 뒤 '세쿠엔치아', '오페르토리움'의 관현악과 '라크리모사'의 9마디 이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아뉴스 데이'를 새롭게 작곡해 넣었다. '코무니오'는 곡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키리에'의 음악을 이용해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완성된 '레퀴엠'은 무사히 완성되었다. 이후 쥐스마이어에 대한 찬반에 입각하여 여러 판본(바이어 · 로빈즈 랜던 · 리처드 몬더 · 로버트 레빈 · 던컨 둘스 판본 등)이 생겨났다. 마리스 얀손스는 쥐스마이어 판본을 연주한다. 원본 아닌 원본을 택한 셈이다.

– 음악평론가 볼프라 슈타흐가 쓴 '죽음을 너머'(영어 · 독일어)와 지휘자 · 악단 · 솔리스트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43308 [DVD]
C Major 743404 [Blu-ray]

2017 라스칼라 극장 실황
모차르트 '루치오 실라'

마르크 민코프스키(지휘), 라스칼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마샬 핀코스키(연출), 크레시미스파이서(루치오 실라/테너), 레네케 루이텐(주니아/소프라노), 마리안느 크레바사(메조소프라노/체칠리우스), 이그나 칼나(루치우스 친나/소프라노), 줄리아 세멘차초(첼리아/소프라노)

라스칼라에서 초연된 모차르트 초기 오페라의 역작을 다시 만나다

라스칼라 극장은 1772년 모차르트의 오페라 '루치오 실라' 외에 모차르트의 초기 오페라로 손꼽히는 '미트리다테' '알바의 아스카니오'의 초연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영상물은 라스칼라 극장에 다시 오른 '루치오 실라' 실황(2016년)이다. 독재자 루치오 실라가 방해하던 체칠리우스와 주니아는 사랑을 이루고, 루치오 실라의 여동생 첼리아와 친구 체칠리우스를 대신하여 루이초 실라를 죽이려고 하던 루치우스 친나는 첼리아와 사랑을 이루는 해피엔딩이다. 타이틀롤인 루치오 실라를 제외하고, 극을 이끌어가는 남성 역할의 주니아 역과 체칠리우스는 각각 소프라노(레네케 루이텐)와 메조소프라노(마리안느 크레바사)가 맡는다. 이외에도 여성 성악가들이 포진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유력지 '라 레푸블리카'로부터 "여성성악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13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제작진 · 작품 해설('라스칼라에서의 루치오 실라'/영 · 프 · 독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라스칼라 극장은 1772년 모차르트의 오페라 '루치오 실라' 외에 모차르트의 초기 오페라로 손꼽히는 '미트리다테' '알바의 아스카니오'의 초연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영상물은 라스칼라 극장에 다시 오른 '루치오 실라' 실황(2016년)이다. 바로크음악에 통찰력을 지닌 마르크 민코프스키가 지휘를 맡았고, 영화 · 연극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핀코스키의 연출은 18세기 초연 당시의 모습을 섬세하게 살려내는 것만 같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기에 즐거리도 생소하다. 하지만 초반에는 무자비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명 '키아로스쿠로(명암법)에 의거한 3막 오페라다.

– 독재자 루치오 실라에게 추방당한 의원 체칠리우스가 로마로 비밀리에 돌아온다. 체칠리우스와 결혼을 약속한 주니아는 체칠리우스가 죽은 줄 알고, 실의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낸다. 한편 루치오 실라는 주니아에게 계속 청혼하고 강제로라도 결혼하려고 한다. 로마로 돌아온 체칠리우스는 오랜 친구 루치우스 친나의 도움으로 주니아와 재회한다. 친나는 자신이 루치오 실라를 없애겠다고 다짐한다.

– 원로원 앞 광장. 주니아는 루치오 실라와 결혼하느니 목숨을 끊겠다고 선언한다. 한편 친나는 체칠리우스와 함께 루치오 실라를 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발각된 뒤 친나는 도망치고, 체칠리우스는 체포된다.

– 루치오 실라의 여동생 첼리아는 친나를 사랑한다. 첼리아가 루치오 실라를 설득해 주니아와의 결혼을 포기시키라는 조건을 내건다. 첼리아와 친나는 루치오 실라를 설득해 체칠리우스의 사형 집행을 막는다. 친나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자 첼리아와 결혼식을 올린다.

– 타이틀롤인 루치오 실라를 제외하고, 극을 이끌어가는 남성 역할의 주니아 역과 체칠리우스는 각각 소프라노(레네케 루이텐)와 메조소프라노(마리안느 크레바사)가 맡는다. 이외에도 여성 성악가들이 포진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유력지 '라 레푸블리카'로부터 "여성성악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 13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제작진 · 작품 해설('라스칼라에서의 루치오 실라'/영 · 프 · 독어) 등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2808 [2DVDs]
C Major 742904 [Blu-ray]

2017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
바그너 '발퀴레' (국내 상영작)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베라 네미로바(연출), 피터 세이퍼트(지그문트), 게오르그 체펜펠트(훈딩), 비탈리 코발조브(보탄), 안야 하르테로스(지클린데), 안냐 캄페(브룬힐데), 크리스티나 마이어(프리카)

50년 전, '카라얀의 발퀴레'를 재연한 틸레만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은 자신만의 특별한 음악제를 펼치겠다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의 계획 아래 1967년 그가 직접 연출과 지휘를 맡은 바그너의 '발퀴레'를 올리며 시작되었다. 2017년은 페스티벌이 50주년을 맞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카라얀이 연출했던 1967년의 '발퀴레'를 틸레만과 베라 네미로바가 완벽히 재현한다. 2017년 4월 5~17일 잘츠부르크 축제극장 실황으로, 국내 극장에서도 상영되어 화제가 되었다. 피터 쉐이퍼트(지그문트), 게오르그 체펜펠트(훈딩)의 연기력과 바그너화된 목소리가 이 프로덕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외에도 출연진 대부분은 바그너 전문 가수들이다. 해설지(21쪽 구성/영 · 프 · 독어)에는 '전설적인 발퀴레의 재창조'가 지니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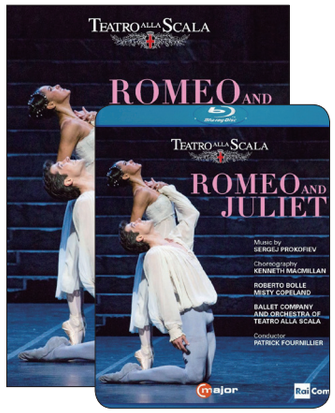
[보조자료]

– '발퀴레'는 50년 전인 1967년에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을 창설한 카라얀을 조명하고 추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수석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베라 네미로바가 연출을 맡았다.

– 이들은 1967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시작과 함께 카라얀이 선보인 무대를 재현한다. 전설의 선배를 기리는 틸레만의 지휘에 대하여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자이퉁은 '음악속의 매우 혼란한 질서를 우수한 앙상블로 이끌었다'고 평한 바 있다. 지그문트 역의 피터 쉐이퍼트, 훈딩 역의 게오르그 체펜펠트의 연기력과 바그너화된 목소리가 이 프로덕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외에도 출연진의 대부분은 바그너 전문 가수들로 유럽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은 자신만의 가장 특별한 음악제를 펼치겠다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계획 아래 1967년 직접 연출과 지휘를 맡은 바그너의 '발퀴레'를 무대에 올리며 시작되었다. 1989년 카라얀의 사후, 게오르그 솔티,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래틀 등이 음악감독을 맡으며 꾸준히 사랑받아온 음악제이다. 2013년부터 카라얀의 제자였던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새 감독을 맡았으며 2017년에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이를 기념하고자 1967년 첫 번째 페스티벌에서 카라얀이 연출했던 '발퀴레'를 완벽히 재현한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7년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잘츠부르크 축제극장 실황으로, 국내 극장에서도 상영되어 카라얀과 틸레만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 21쪽 분량의 해설지(영 · 프 · 독)에는 '전설적인 발퀴레의 재창조'가 지니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3508 [DVD]
C Major 743604 [Blu-ray]

2017 라스칼라 극장 실황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파트릭 푸흐니에(지휘), 라스칼라 극장 발레단,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케네스 맥밀란(안무), 로베르토 볼레(로미오 역), 미스티 코플린드(줄리엣 역), 안토니노 수테라(머큐시오 역)

드라마 발레의 서정성, 영화 같은 장대한 구성을 겸비한 프로덕션

존 크랑코 버전(1958), 누레예프 버전(1977), 장 크리스토퍼 마이요 버전(2006) 등과 함께 1965년에 초연된 케네스 맥밀란(1929~1992) 버전은 셰익스피어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모던한 감각을 지닌 명작으로 손꼽힌다. 2017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실황을 담은 이 무대는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간판스타인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b.1975)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b.1982)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만난 무대이다. 총 3막(151분 분량)으로 검술 씬(7트랙, 33트랙)의 펜싱과 음악과의 절묘한 호흡, 서정적인 '젊은 줄리엣'(8)과 '줄리엣의 방'(44), 웅대한 스펙터클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기사들의 춤'(14), 발코니 씬(20)으로부터 이어지는 두 남녀의 '사랑의 춤'(21~22)이 정말 매력적인 영상물이다. 오케스트라의 물결치는 듯한 현악기들의 향연도 인상적이다. 해설지(21쪽 구성/영 · 독 · 프)에는 프로덕션과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로미오 역의 로베르토 볼레의 인터뷰(9분 분량, 이탈리아어 진행/영어 자막)도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1940년 마린스키 발레단을 위해 초연된 라브로프스키를 시작으로, 로열 대니시 발레단의 프레데릭 애쉬튼 버전(1955),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존 크랑코 버전(1958), 영국 로열 발레단의 케네스 맥밀란 버전(1965), 런던 페스티벌 10주년을 위해 만든 루돌프 누레예프 버전(1977), 현대 감각으로 재안무된 몬테카를로 발레단 장 크리스토퍼 마이요 버전(2006) 등 매우 다양하다.

– 그 중 케네스 맥밀란(1929~1992) 버전은 셰익스피어의 원전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안무가를 세계적인 위치로 급부상시킨 작품이다.

– 2017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실황을 담은 이 무대는 라스칼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설적인 프로덕션이다. 세트와 의상은 이 프로덕션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 간판스타인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b.1975)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b.1982)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만난 무대이다. 총 3막(151분 분량)으로 장엄한 스펙터클부터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클로즈업까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검술 씬(7트랙 · 33트랙)의 스릴감 넘치는 펜싱과 음악과의 절묘한 호흡, 미스티 코플랜드의 서정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젊은 줄리엣'(8트랙)과 '줄리엣의 방'(44트랙), 웅대한 스펙터클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기사들의 춤'(14트랙), 그리고 그 어떤 버전에서든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발코니 씬(20트랙)으로부터 이어지는 두 남녀의 '사랑의 춤'(21~22트랙)은 이 영상물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한다.

–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물결치는 듯한 현악기들의 향연이 인상적이다. 지휘를 맡은 파트릭 푸흐니에는 국립오페라단이 정구호 연출과 함께 한 '동백꽃 아가씨'에 함께 하기도 했었다.

– 해설지(21쪽 구성/영 · 독 · 프)에는 '밀라노에서 만나는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해설과 작품 해설이 들어가 있다. 보너스 트랙에는 로미오 역의 로베르토 볼레의 인터뷰(9분 분량, 이탈리아어 진행/영어 자막)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3108 [2DVD]
C Major 743204 [Blu-ray]

2016 라스칼라 실황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프란츠 벨저 뫼스트(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프레데릭 웨이크 워커(연출), 디아나 담라우(백작부인), 마르쿠스 베르바(피가로), 골다 슐츠(수잔나), 카를로스 알바레츠(백작), 마리안느 크레바사(케루비노), 안나 마리아 치우리(마르셀리나).

벨저 뫼스트의 정돈, 담라우의 스마트함, 워커의 연출적 재미

1791년, 향년 35세로 사망한 모차르트의 서거 225주년을 맞은 2016년에 라스칼라 극장이 선보인 프로덕션이다. 이 작품은 피가로와 시녀 수잔나가 백작 부인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갖가지 술책을 써서 백작의 바람기를 혼내준 뒤, 순조롭게 부부가 된다는 줄거리이다. 프란츠 벨저 뫼스트의 지휘봉 아래의 성악가들은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다. 뫼스트의 정돈된 지휘, 담라우의 스마트한 센스와 치밀한 소노리티가 빛나는 역작.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활력과 환희에 차 있으면서도 과장된 느낌이 없다. 이 작품의 백미인 '사랑은 어떤 것일까'를 선사하는 남자역할인 케루비노 역의 마리안느 크레바사의 소리도 튼실하며 강단이 있다. 프레데릭 워커의 연출은 막이 바뀔 때마다 옷을 한 꺼풀씩 벗어던지는 듯 하다. 1 · 2막은 고전적인 배경, 3막은 흰색 휘장이 모던한 무대로 탈바꿈시키고, 4장에선 영상과 대형소품과 기괴한 의상이 적극적으로 펼쳐진다. 25쪽 분량의 해설지(영 · 독 · 불어)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1791년, 향년 35세로 사망한 모차르트의 서거 225주년을 맞은 2016년에 라스칼라 극장이 선보인 프로덕션이다.

– 모차르트는 다 폰테와 콤비를 이루어 만든 '피가로의 결혼'(1786), '돈 조반니'(1789), '코지 판 투테'(1790), 이른바 모차르트 오페라 삼부작 중 '피가로의 결혼'은 일종의 가정코미디다. 과거에는 이발사였으나 현재는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인 피가로, 백작과 부인 사이가 애정이 식어 서먹해지자 백작은 시녀 수산나에게 밀회를 요구한다. 이에 피가로와 수산나는 백작 부인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갖가지 술책을 써서 백작의 바람기를 혼내준 뒤, 순조롭게 부부가 된다.

– 프란츠 벨저 뫼스트의 지휘는 스마트한 센스, 치밀한 소노리티, 정돈된 각 성부 간 밸러스를 잡아간다. 오케스트라에 피트에서 뫼스트가 빛을 발한다면 무대 위의 스타는 그 누구보다 담라우. 그녀의 목소리는 활력과 환희에 차 있으면서도 과장된 느낌이 없다. 특히, 남자역할인 케루비노 역으로 이 작품의 백미인 '사랑은 어떤 것일까'를 선사하는 마리안느 크레바사는 튼실하며 강단이 있다.

– 음악적으론 매우 정도 된 느낌이지만, 프레데릭 워커의 연출은 활기와 재미로 가득차 있다. 유럽 귀족의 저택을 배경으로 한 1막을 시작으로 막이 바뀔 때마다 옷을 한 꺼풀씩 벗어던지는 듯한 묘한 재미를 제공한다. 3막은 그 배경을 흰색 휘장으로 가리고, 4장은 모던한 디자인으로 바뀌고, 영상까지 활용한다.

– 영상의 화면은 무대의 전체적인 풍경보다 성악가들의 상반신과 표정에 집중하는 클로즈업 장면이 많다. 그만큼 성악가들이 펼치는 연기와 노래에 집중할 수 있다. 25쪽 분량의 해설지(영 · 독 · 불어)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94 [DVD]
Dynamic 57794 [Blu-ray]

레지오 토리노 극장 실황
비발디 오페라 '다리오의 대관식'

옥타비오 당통(지휘 · 하프시코드), 레지오 토리노 극장 오케스트라, 레오 무스카토(연출), 카를로 알레마노(다리오), 사라 밍가르도(스타리아), 델파인 갈루(아르제네), 리카르도 노바로(니세노), 로베르타 마멜리(알린다), 루치아 시릴로(오론테), 베로니카 켄제미(아르파고), 로미나 토마소니(플로라)

18세기 베네치아에 불었던 비발디 음악과 동방문화, 현대식 연출의 만남

'다리오의 대관식'은 비발디가 39세 때인 1717년에 완성하여 산탄젤로 극장에서 초연한 오페라다. 모르셀리가 쓴 대본에 비발디 외에도 페르티와 프레스키가 곡을 붙일 정도로 작품의 소재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동양의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다리우스 3세(B.C.380~330)의 인물로부터 모티프를 얻어왔으며 극중 스타티라 역시 실존 인물로 그의 아내이다. 페르시아 왕의 두 딸인 스타티라와 아르제네, 왕으로 거론되는 다리오, 동생 아르제나가 언니 스타티라와 다리오를 떼어놓고자 음모를 꾸미고 이것이 해결된다는 해피엔딩의 스토리다. 이 영상물은 2017년 4월, 이탈리아 레지오 토리노 극장 실황이다. 옥타비오 당통의 지휘와 하프시코드가 빚어내는 비발디의 음악과 함께 레오 무스카토의 연출은 성악가들이 군복과 총을 들고 나오는 현대식 방식을 따른다.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아르제네 역의 델파인 갈루의 연기가 일급이다. 13쪽 분량의 해설지(이탈리아 · 영어)에는 작품 해설이 수록.

[보조자료]

– '다리오의 대관식'은 비발디가 39세 때인 1717년에 완성하여 산탄젤로 극장에서 초연한 오페라다. 대본은 아드리아노 모르셀리가 썼다.

– 사실 모르셀리의 대본은 비발디보다 30년 전에 페르티가 곡을 붙여 같은 극장에서 선보였다. 그런데 원래 이 대본은 페르티가 아닌 프레스키(1634~1710)를 위해 쓴 것으로, 프레스키가 곡을 붙여 페르티보다 2년 앞서 1684년에 같은 극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하나의 대본에 곡을 붙인 세 명의 작곡가, 그것도 같은 극장에서의 초연, 이 인기의 이유로 당시 베니스(베네치아)에 유행했던 동양풍의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꼽고 있다. 동양의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다리우스 3세(B.C.380~330)의 인물로부터 모티프를 얻어왔으며 극중 스타티라 역시 실존 인물로 그의 아내이다.

– 페르시아 왕의 두 딸인 스타티라와 아르제네, 왕으로 거론되는 다리오, 왕위를 노리는 아르파고와 오론테 장군이 펼치는 내용이다. 아르제나는 스타티라와 다리오를 떼어놓고자 음모를 꾸미고(1막), 간계에 넘어간 두 사람은 오해와 불신으로 등을 돌린다(2막). 하지만 위험에 처한 스타티라를 다리오가 구출하면서 이 모든 것이 간계였음을 알게 된다. 결국 스타티라와 결혼해서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갖는다(3막).

– 이 영상물은 2017년 4월, 이탈리아 레지오 토리노 극장 실황이다. 옥타비오 당통의 지휘와 하프시코드가 빚어내는 비발디의 음악과 함께 레오 무스카토의 연출은 성악가들이 군복과 총을 들고 나오는 현대식 방식을 따른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중동의 어디쯤인가를 암시하는 여러 시각적 장치들이 나온다.

– 다리오 역의 카를로 알레마노, 스타리아 역의 사라 밍가르도가 대본상 주인공이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아르제네 역의 델파인 갈루의 연기가 일급이다. 음악과 줄거리를 따라가며 비발디의 음악을 음미하는 맛도 있지만, 캐릭터를 한명씩 잘 살리는 무스카토의 연출로 인해 각 배역과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7048 [DVD]
EuroArts 2067044 [Blu-ray]

베를린 필 2017 발트뷔네 콘서트
'라인의 전설'

구스타보 두다멜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두다멜의 슈만과 바그너가 스며든, 비온 날의 숲 속 향기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를 뜻하는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시즌 마지막에 개최되는 콘서트로,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8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지휘봉을 잡은 두다멜은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슈만과 바그너가 독일 민족의 젖줄과도 같은 라인강을 소재로 한 음악들을 연주한다. 비에 젖은 숲을 가득 채우는 바그너는 친근감 있고 자연스럽다. 자연과 만난 음악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와 힘이 이 영상물의 매력이다. 앙코르로 연주된 '베를린의 공기'에서 두다멜은 다니엘 스타브라 악장과 지휘봉을 맞바꾸더니 악장의 자리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벤트도 선사한다. 화면에 보일 정도로 빗줄기가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 입고 잔디밭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존재가 이 콘서트의 인기를 대변하는 것 같다. 'Conductor Camera(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는 정면에서 촬영한 두다멜의 지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 또다른 감상의 재미를 선사한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과 단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라는 의미를 지닌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매년 개최되는 한여름밤의 클래식 콘서트다. 연례 시즌 마지막에 오르는 이 콘서트는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베를린 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 2017년 발트뷔네 콘서트의 지휘봉은 두다멜이 잡았다. 2008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무대다. 그는 2008년, '밤의 리듬'이란 주제로 남미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여 '쿨한 데뷔'를 한 바 있다.

– 두다멜은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슈만과 바그너가 독일 민족의 젖줄과도 같은 라인강을 소재로 해서 작곡한 음악들을 연주한다. 곡목은 슈만 교향곡 3번 '라인'/바그너 '라인의 황금' 중 '신들의 발할라 입성'/'신들의 황혼' 중 '지그프리트의 라인 여행'과 '장송 행진곡'/'지그프리트' 중 '숲의 목소리'/'발퀴레' 중 '발퀴레의 기행'(콘서트 버전). 앙코르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로엔그린' 중 3막 전주곡/파울 링케 '베를린의 공기'가 더해진다. 두다멜의 지휘는 진지한 음악과 축제의 현장을 잇는다. 비에 젖은 숲을 가득 채우는 바그너는 친근감 있고 자연스럽다. 자연과 만난 음악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와 힘이 이 영상물의 매력이다.

– '베를린의 공기'에서 두다멜은 다니엘 스타브라 악장과 바이올린과 지휘봉을 맞바꾼다. 그러더니 악장의 자리에 앉아 오케스트라를 이끈다. 놀랍고 흥미진진한 장면이다. 관객은 모두 서서 박수 치며 축제의 마지막 분위기를 즐긴다. 빗줄기가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객석은 빼곡하다.

– 메뉴의 'Conductor Camera(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는 정면에서 촬영한 두다멜의 지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양분된 화면을 통해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과 단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발트뷔네 콘서트의 영상물 중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0개 콘서트를 선별한 박스물(DVD)이 유로아츠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EuroArts 2064178 [DVD]
EuroArts 2064174 [Blu-ray]

2017 바덴바덴 축제극장 부활절 축제 실황
푸치니 '토스카'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트라, 필리프 히멜라만(총연출), 라이문트 바워(무대디자인),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토스카 역), 마르셀로 알바레즈(카바라도시 역), 마르코 브라토냐(스카르피아 역)

황금의 3박자! 새로운 연출, 성악가의 열연, 최고의 지휘

2017년 4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부활절 축제의 일환으로 선보인 푸치니 '토스카' 실황. 래틀과 베를린 필의 존재, 소프라노 크리스네 오폴라이스의 토스카 역만으로 이미 이 프로덕션과 영상물의 주가가 올라간 셈이다. 여기에 연출가 필리프 히멜라만과 무대디자이너 라이문트 바워의 무대가 새로움의 세계로 안내한다. 히멜라만은 2007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토스카'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낳은 연출가다. 거대한 눈동자가 무대에 선명히 박혀 있던 그 무대를 기억하는 이라면, 그 무대가 영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 등장했던 것도 알 것이다. 카바라도시는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듯한 스튜디오에서 그림에 열중하며 붓 대신 카메라를 들고 작업한다. 작품의 줄거리 빼고 모든 것을 '지금'과 '이곳'으로 옮겨놓은 셈이다. 카바라도시 역의 마르셀로 알바레스는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노래를 선사하고, 스카르피아 역의 마르코 브라토냐는 잔인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목소리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보조자료]

– 2017년 4월,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부활절 축제의 일환으로 선보인 푸치니 '토스카' 실황이다. 사이먼 래틀의 지휘와 베를린 필의 존재, 소프라노 크리스네 오폴라이스의 토스카 역만으로도 이미 이 프로덕션과 영상물의 주가가 올라간다.

– 여기에 연출가 필리프 히멜라만과 무대디자이너 라이문트 바워가 입힌 모던한 무대와 연출은 새로움을 더한다. 히멜라만은 2007년 브레겐츠 페스티벌에서 '토스카'를 선보이며 큰 화제를 낳은 연출가다. 거대한 눈동자가 무대에 선명히 박혀 있던 그 무대를 기억하는 이라면, 이 무대가 영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 등장했던 것도 알 것이다. 강한 이미지와 색채를 선택하여 오페라의 주제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강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의 연출은, 이 프로덕션에서도 빛을 발한다. 카바라도시는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듯한 스튜디오에서 그림에 열중하며 붓 대신 카메라를 들고 작업하며 작품의 줄거리 빼고 모든 것을 '지금'과 '이곳'으로 옮겨놓았다.

– 사랑하는 연인의 목숨을 구하려는 토스카는 자신의 몸을 요구하는 경찰청장 스카르피아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극한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성당에 기도하러 온 후작 부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마리아를 그리던 카바라도시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토스카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며 부르는 '오묘한 조화', 총살형을 앞두고 토스카와의 즐거웠던 날들을 가슴 저리게 회상하며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등의 명아리아를 최고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오페라다.

– 카바라도시 역의 마르셀로 알바레스는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노래를 선사하고, 스카르피아 역의 마르코 브라토냐는 잔인함과 우아함을 겸비한 목소리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2700석)에 이어 유럽 오페라 극장 가운데 두번 째로 객석(2500석)이 많은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Farao Classics

www.farao-classics.de

Farao Classics D108094 [PAL]
Farao Classics A108095 [Blu-ray]

2013 프린츠레겐텐극장 실황
모차르트 '마술피리' [BD에만 한글자막]

에노흐 주 구텐베르크(지휘 · 연출),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 · 합창단 / 제러드 안토프(파파게노 역/배우), 요첸 쿠퍼(파파게녹 역/베이스바리톤), 외르크 뮐러(타미노), 수잔나 베른하르트(파미나), 안테 비테리히(밤의 여왕), 타레크 나츠미(자라스트로)

이보다 더 재밌는 설정의 '마술피리'가 있을까?

'마술피리'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둘러싼 설정들이 참으로 재밌는 프로덕션이다. 독일 뮌헨 프린츠레겐텐극장 2013년 실황 영상이다. 이 극장을 지은 바그너광 루트비히 2세를 자라스트로로 그리고 있으며, 영화 '그랜드부다페스트'를 연상케 하는 아기자기한 무대세트는 이 공연에 참가한 크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독일 헤렌킴제 성을 배경으로 했다. 파파게노 역은 배우와 성악가로 구분된다. 연로한 파파게노가 과거를 회상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며, 파파게노가 과거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나는 등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것이 이 프로덕션만의 매력이다. 기존의 오페라 영상물과 달리 피트 속의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 비추는 장면이 많아 이 영상물이 음악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정연한 관과 현에 들뜬 듯한 구텐베르크의 지휘는 악곡마다 생동감을 부여한다. 해설지는 38쪽 분량으로 독일어와 영어로 구성.

[보조자료]

–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둘러싼 설정들이 참으로 재밌는 프로덕션이다. 에노흐 주 구텐베르크는 합창음악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이끄는 클랑베르발퉁 오케스트라는 2000년부터 헤렌킴제궁에서 시작된 헤렌킴제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 중이다.

– 독일 뮌헨에 위치한 프린츠레겐텐극장 2013년 실황 영상으로, 2010년 헤렌킴제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바 있다. 배경은 19세기의 유럽이다. 표지 재킷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루트비히 2세(1845~1886)이고, 배경의 궁전은 이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는 헤렌킴제 궁전이다. 루트비히 2세는 실제로 이 작품이 오른 프린츠레겐텐극장을 지은 인물이다. 바그너의 광팬이었던 그는 이 극장을 바그너 오페라 전용극장으로 지으려했으나 사정상 실패한 일화를 안고 있다. 이 프로덕션의 지휘와 연출을 맡은 구텐베르크는 자라스트로의 역할을 루트비히 2세로 그리고 있다.

– 파파게노 역은 독일 배우 베르드 안토프와 베이스바리톤 요첸 쿠퍼가 맡았다. 나이든 파파게노가 과거를 회상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베르드 안토프는 능숙한 연기로 무대를 다니면 과거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만나기도 하는 등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것이 이 프로덕션만의 매력이다. 음악이 멈추고 그가 연기할 때마다 일어나는 관객들의 웃음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 생생함을 더해준다.

– 영화 '그랜드부다페스트'의 세트를 연상케 하는 아기자기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피리'는 기존의 오페라 영상물과 달리 피트 속의 오케스트라와 무대를 함께 비추는 장면이 많아 이 영상물이 음악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정연한 관과 현에 들뜬 듯한 구텐베르크의 지휘는 악곡마다 생동감을 부여한다.

– 보너스 트랙에는 이 작품이 초연된 헤렌킴제 궁의 무대 뒤에서 베르드 안토프가 초연 시의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약 6분)이 들어가 있다. 해설지는 38쪽 분량으로 독일어와 영어로 구성.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94 [DVD]
Naxos NBD0066 [Blu-ray]

2017 잘츠부르크 실황
하인리히 비버 '미사 살리스부르겐시스(잘츠부르크 대성당 미사)', 몬테베르디 시편송 110편 · 112편 · 113편 등

바츨라프 푹스(지휘), 콜레기움 보칼레 1704(성악) · 콜레기움 1704(기악)

바로크 종교음악의 최대작을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음향으로 만나다

콜레기움 1704(성악)와 콜레기움 보칼레 1704(기악)은 하프시코트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체코의 바츨라프 룩스(1970~)에 의해 2005년에 설립되었다. 그들의 명성은 보헤미아 출신의 젤렌카 음반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영상물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기간 중인 2016년 7월 27일, 잘츠부르크 대성당 실황이다. 몬테베르디(1567~1643)의 시편송 몇 곡과 보헤미아 출신인 하인리히 비버(1644~1704) '미사 살리스부르겐시스(잘츠부르크 대성당 미사)'를 연주한다(15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종교음악에 관한 해설, 가사, 연주단체 소개 등이 수록). 비버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곡은 현존하는 바로크 종교 음악 중에 가장 큰 규모이며, 애초부터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음향 공간에 맞춰 작곡된 곡이다. 이 영상에는 발코니에도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배치하여 입체적인 음향을 연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녹음 또한 우수하여 여러 각도의 음향을 통해 성당 특유의 입체적인 음향이 피부로 다가오게 한다. 카메라의 앵글도 단원들의 입장부터 한편의 영화처럼 근사한 각도에서 잡아낸다.

[보조자료]

– 콜레기움 1704는 하프시코트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체코의 바츨라프 룩스(1970~)에 의해 2005년에 설립되었다. 그는 이 앙상블과 함께 콜레기움 보칼레 1704도 출범시켜 시대악기 중심의 기악과 성악 앙상블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악상투스 레이블에서 취입한 보헤미아 출신 젤렌카(1679~1745)의 음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도약했고, 이 음반들은 국내에서도 고음악 마니아들에게 명반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영상물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기간 중인 2016년 7월 27일, 잘츠부르크 대성당 실황이다. 16세기에 건축된 곳으로 모차르트가 유아 세계를 받은 곳으로 유명한 잘츠부르크 대성당에서 몬테베르디(1567~1643)의 시편송 110편 SV264, 112편 SV268,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 SV206, 시편송 113편 SV270, 글로리아 SV258, 그리고 보헤미아(체코) 출신인 하인리히 비버(1644~1704) '미사 살리스부르겐시스(잘츠부르크 대성당 미사)'를 연주한다(15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종교음악에 관한 해설, 가사, 연주단체 소개 등이 수록).

– '로자리오 소나타'로 친숙한 비버는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며, 잘츠부르크 대주교 옆에서 궁정악장의 지위까지 오른 뛰어난 작곡가였다. 그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곡은 53성부로 이루어져 거대한 바로크 양식의 전형인 작품이면서 현존하는 바로크 종교 음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다. 이 작품은 1682년 잘츠부르크 포교 1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 이 작품은 잘츠부르크 대성당의 음향적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애초부터 성당 내의 구조에 맞춰 계획 · 작곡되었다. 바츨라프 룩스는 오르간이 설치된 여러 발코니에도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배치하여 입체적인 음향을 연출하며 녹음 또한 현장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다. 스피커를 통해 연출되는 여러 각도의 음향을 통해 성당 특유의 입체적인 음향이 피부로 스며든다. 카메라의 앵글도 단원들의 입장부터 한편의 영화처럼 근사한 각도에서 잡아낸다.

Naxos 2.110561 [DVD]

올스타 오케스트라 시리즈 13~14
무소르그스키(라벨 편곡) '전람회의 그림',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제러드 슈워츠(지휘 · 음악감독), 올스타 오케스트라

북쪽의 보물과 오로라를 찾아 떠나는 클래식음악 여행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6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시애틀 심포니를 일약 미국의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켰던 음악감독 및 지휘자 제러드 슈워츠의 지도 아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인 데이비드 김을 비롯한 미국 22개 주의 30개 이상의 악단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뉴욕 맨해튼센터의 그랜드 볼룸에 모여서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시리즈 영상물이다. 이 시리즈에는 각기 흥미로운 주제와 선곡이 붙는다. '러시아의 보물'편에는 무소르그스키(라벨 편곡) '전람회의 그림'과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오로라를 뜻하는 '노던 라이트'편에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이 수록되어 있다. 연주영상에 앞서서 연주곡에 대한 슈워츠와 연주자들과 음악학자의 인터뷰와 해설을 만나는 재미도 이 시리즈가 선사하는 독특함이다. 이들의 자세한 해설이 해설지를 대신하기에 별도의 해설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Naxos 2.110562 [DVD]

올스타 오케스트라 시리즈 15~16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호바네스 교향곡 2번, 구센즈 '기념 변주곡'

제러드 슈워츠(지휘 · 음악감독), 올스타 오케스트라

작곡가 4명의 독특한 관현악 4색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6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시애틀 심포니를 일약 미국의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켰던 음악감독 및 지휘자 제러드 슈워츠의 지도 아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인 데이비드 김을 비롯한 미국 22개 주의 30개 이상의 악단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뉴욕 맨해튼센터의 그랜드 볼룸에 모여서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시리즈 영상물이다. 에는 각기 흥미로운 주제와 선곡이 붙는다.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본 영상물(15 · 16편)은 각각 '영국의 수수께끼'와 '미스테리한 산'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후자는 호바네스(1911~2000) 교향곡 2번, 구센즈(1893~1962)의 '기념 변주곡'이다. 이중 호바네스는 1963년 가야금과 현악 오케스트를 위한 곡을 KBS교향악단과 함께 한, 우리에게 친숙한 작곡가다. 연주에 앞서서 연주곡에 대한 슈워츠와 연주자들과 음악학자의 인터뷰와 해설을 만나는 재미도 이 시리즈가 선사하는 매력 중 하나다. 이들의 자세한 해설이 해설지를 대신하기에 별도의 해설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47D [DVD]
OpusArte OABD7225 [Blu-ray]

2016 로열 오페라하우스 벨리니 '노르마'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알렉스 올레(총연출), 소냐 욘체바(노르마), 요셉 칼레야(폴리오네), 소니아 가나씨(아달기사), 브린들리 셔래트(오로베소), 다비드 정훈 킴(플라비오)

벨리니의 '노르마'가 아니다. 소냐 욘체바(소프라노)의 '노르마'다

네트렙코, 담라우의 뒤를 쫓으며 차세대 디바로 주목 받고 있는 1981년 불가리아 태생의 소프라노 소냐 욘체바의 진가를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이 영상물은 2016년 11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이다. 연출가 알렉스 올레,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 등 의 명장들과 함께 29년 만에 로열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이 공연에서 소냐의 존재감은 수많은 무대 장치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량감과 파파노의 음악을 타고 거침없이 흘러가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노르마가 부르는 '카스타 디바'(9트랙), 노르마와 여신도 아달지사의 이중창(18트랙), 노르마와 로마군 사령관 폴리네오의 이중창(32트랙)은 반복해서 듣고 싶은 절창의 향연이다. 이탈리아 베르디 콩쿠르 1위에 입상한 김정훈이 폴리오네의 친구 역을 맡아 눈길을 끈다. 보너스 트랙에는 스태프와 출연진의 노르마에 관한 설명(5분)과 파파노가 말하는 벨리니 오페라에 관한 영상(5분)이 수록되어 있다.

OPUS ARTE

[보조자료]

– 빌리 데커의 연출작 '라트라비아타'는 200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초연 이후 메트 오페라에서 공연되었다. 초연 당시 비올레타를 연기했던 안나 네트렙코의 바통을 뉴욕에선 디아나 담라우가 이어받았다. 메트오페라가 이 작품을 다시 꺼내든 2017년 2월 공연에선 소냐 욘체바가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네트렙코와 담라우의 존재는 우리에게 '여신'으로 각인된 바 있지만, 2017년에 국내 영화관이 개봉한 소냐 욘체바의 '라트라비아타'에서 그녀는 관객의 감탄과 궁금증을 낳았다.

– 2016년 11월 로열 오페라하우스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은 소냐 욘체바의 진가를 확실히 만날 수 있는 프로덕션이다. 1981년 불가리아 태생인 소냐 욘체바는 1993년에 도밍고가 창설한 오페랄리아 콩쿠르에서 2010년에 우승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런 연유로 그녀는 도밍고와 함께 무대에 오르며 호흡을 맞추기도 한다. 2013년에 파리 바스티유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선보이며 화제를 낳았고, 메트오페라에도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여세를 몰아갔다.

– '노르마'는 드루이드 교인들과 갈리아를 점령한 로마군들 사이에 처한 여사제 노르마의 에 대한 이야기로, 노르마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대항해야 했던 가톨릭 광신도의 세계와 억압된 군국주의 사회를 재현한다.

– 연출가 알렉스 올레,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 등 노련미가 넘치는 명장들과 함께 29년 만에 로열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이 무대에서 소냐의 존재감은 수많은 무대 장치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량감과 파파노의 음악을 타고 거침없이 흘러가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알렉스 올레는 원작을 비틀어, 수백 개의 십자가상을 설치하여 그로테스크함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오늘날의 가구와 의상을 무대에 올려 동시대적 감각을 자아낸다.

– 노르마가 부르는 '카스타 디바'(9트랙), 노르마와 여신도 아달지사의 이중창(18트랙), 노르마와 로마군 사령관 폴리네오의 이중창(32트랙)은 이 영상물에서 반복해서 듣고 싶은 절창의 향연이다. 테너 조셉 칼레야가 로마군 사령관 폴리오네 역을, 제50회 이탈리아 베르디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정훈이 폴리오네의 친구 역을 맡았다.

OpusArte OA1252D [DVD]
OpusArte OABD7229 [Blu-ray]

2016 로열발레단 차이콥스키 '호두까기인형'

차이콥스키(작곡),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피터 라이트(재안무), 보리스 그뤼진(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가리 애비스(드로셀마이어), 로렌 커스버스턴(수석발레리나/설탕요정), 페데리코 보넬리(수석발레리나/공주), 프란체스카 헤이워드(수석발레리나/클라라), 알렉산더 캠벨(수석발레리노/호두까기인형)

크리스마스 날. 축복처럼 내리는 눈송이 같은 간판스타들의 춤

마리우스 프리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공동안무로 1892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차이콥스키 '호두까기인형'은 존 그랑코 · 존 노이마이어 · 롤랑 프티 · 조지 발란신 등 전설적인 이들에 의해 10종이 넘는 버전이 만들어져 무대에 오르고 있다. 이 작품을 1934년 유럽 초연한 로열 발레단은 올해 90세를 맞이한 피터 라이트 버전을 고수하고 있다. 이 영상은 라이트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공연 실황물. 거장을 기념하는 시간인만큼 간판스타들이 총출연하여,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축복 같은 눈송이처럼 설렘과 화려함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다. 그동안 DVD 시대에 나온 로열발레단의 전작3~4종에 비해 블루레이 유행기인 지금 나온 이 영상물은 화질, 카메라 액션, 음악 구현 환경 모두 21세기적이고 세련되어 있다. 주역들과 주요 스태프진이 소개하는 '차이콥스키'의 매력과 재미(5분 분량/영어진행), 무대에서 진행된 90세의 피터 라이트 인터뷰(5분 분량/영어진행)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독일 작가 E.T.A.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와 쥐의 임금님'(1819)을 대본으로 한 것으로 소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인형이 꿈 속에서 쥐의 대군을 퇴치하고 아름다운 왕자로 변하여 클라라를 과자의 나라로 안내한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다.

– 마리우스 프리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공동안무로 태어나고 초연된 이 작품은 이후 바실리 바이노넨, 존 그랑코, 존 노이마이어, 롤랑 프티, 조지 발란신 등 전설적인 안무가들에 의해 수많은 버전이 나왔다.

– 이중 피터 라이트의 버전은 로열발레단이 고수하고 있는 버전으로, 로열발레단의 전매특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피터 라이트의 '호두까기인형'은 곧, 로열 발레단이라는 등식 때문인지 라이트 버전의 작품을 3~4종의 영상물로 부지런히 남긴 것도 로열 발레단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역사를 뒤져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호두까기인형'이 유럽에 전래되는 데에는 1934년 로열발레단의 유럽 초연이 한 몫했고, 이로 인해 유럽 발레계에서 로열발레단이 쥐고 있는 '호두까기인형'의 지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영상(공연)은 피터 라이트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공연실황물이다. 거장을 기념하는 공연인 만큼 간판스타들이 총출연하여, 마치 크리스마스에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은 눈송이처럼 설렘과 화려함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다. 수석 캐릭터 무용수 가리 애비스가 드로셀마이어로 분해 선보이는 마술, 로렌 커스버스턴(수석발레리나/설탕요정), 페데리코 보넬리(수석발레리나/공주), 프란체스카 헤이워드(수석발레리나/클라라), 알렉산더 캠벨(수석발레리노/호두까기인형) 등 간판스타 단원들이 대거 출연한다. 오푸스아르떼 레이블을 내놓고 있는 여러 실황 영상물 중에 단원들의 존재와 캐릭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 그동안 DVD 시대에 나온 로열발레단의 전작들에 비해, 블루레이 유행기인 지금 나온 이 영상물은 화질과 카메라 액션, 무대를 수놓는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모두 21세기적이고 세련되어 있다.

– 주역들과 주요 스태프진이 소개하는 '차이콥스키'의 매력과 재미(5분 분량/영어진행), 무대에서 진행된 90세의 피터 라이트 인터뷰(5분 분량/영어진행)가 수록되어 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 Live 17109 [DVD]
RCO Live 17108 [Blu-ray]

2016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실황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실황

다니엘레 가티(지휘) ·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방송합창단, 카렌 가그릴(메조소프라노), 첸 레이스(소프라노)

RCO에 내재된 말러의 전통에 불어 넣는 가티의 새 바람

말러 교향곡 4번으로 내한(2017년 11월 15 · 16일 롯데콘서트홀)을 앞둔 다니엘레 가티와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담은 실황물(2016년 9월 18일)이다. 얀손스의 뒤를 이어 2016/17 시즌에 취임한 가티는 2009~2011년에 9명의 명지휘자와 함께 한 RCO 말러 전곡 연주에서 교향곡 5번(2010년 6월 25일 실황)을 지휘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이 악단을 이끌었던 멩엘베르흐(1895~1945 재임)가 남긴 말러 페스티벌과 말러 전곡 연주회의 전통과 씨앗도 뿌리 역할을 했다. 이 영상물 속의 가티는 후반으로 갈수록 감동의 점입가경을 이끌어낸다. 5악장에서 카메라는 무대와 백스테이지를 이동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금관의 소리를 입체적으로 잡아내고, 앉아서 노래하던 합창단은 여러 개의 호른이 나팔을 허공으로 쳐듦과 동시에 일동 기립하여 함성과 같은 소리를 쏟아내기도 한다. 중간마다 보이는 한국인 단원 함경(오보에)이 친근함을 주기도 한다. 42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곡목 · 지휘자 · 성악가 소개 및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영어 · 불어 · 독어 · 네덜란드어)

[내한 공연 2017년 11월 15일: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타티아나 바실리바), 말러 교향곡 4번(소프라노 율리아 클라이터) / 16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프랑크 페터 짐머만), 브람스 교향곡 1번]

[보조자료]

– 네덜란드의 명문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끌던 마리슨 얀손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가 이탈리아 출신의 다니엘레 가티이다. 2016/17 시즌에 취임한 가티는 영국 로열오페라 수석객원지휘자(1994~1997)와 로열 필하모닉 음악감독(1996~2009)을 역임하는 동안 '런던'을 발판삼아 성장했고,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로 '파리'를 물들였고,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 영상물은 2016년 9월 18일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말러 교향곡 2번 실황이다. 가티는 취임 전에 객원으로 말러의 교향곡 3 · 5 · 6 · 9번을 지휘하기도 했다. 가티의 지휘봉이 빛을 발하고, 가티 역시 이들과 말러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RCO에 심어 있는 '말러 전통' 때문일 것이다. 이 악단을 이끌었던 멩엘베르흐(1895~1945 재임)는 베토벤 · 브람스 등은 물론이고 당시 '동시대음악'에 속하던 말러를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시키는 데에 일조했고, 그의 취임 25주년이 되던 1920년에 말러 페스티벌을 조직하며 9회의 음악회를 통해 말러 교향곡 전곡을 지휘하여 말러의 전통의 뿌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에도 이어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시대를 대표하는 9명의 마에스트로 얀손스 · 하이팅크 · 불레즈 · 마젤 · 인발 · 이반 피셔 · 파비오 루이지 · 하딩 등과 함께 전곡 시리즈를 진행하여 그 실황영상물을 출시하기도 했다. 가티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여 교향곡 5번(2010년 6월 25일 실황)을 지휘한 바 있다.

– 일명 '부활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2번을 연주하는 가티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해석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길어 올린다. 폭풍 같이 흐르는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영상물의 미장센도 가티와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과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가티와 RCO는 점입가경을 이룬다. 4악장에서 카렌 가르길(메조소프라노)이 '원광'(Urlicht)'의 가사를 그윽한 목소리로 수놓는다. 5악장에서 카메라는 금관의 사운드가 멀리서 들려올 때, 무대와 백스테이지를 번갈아 이동하여 연주 장면을 입체적으로 잡아낸다. 가티는 5악장에서 합창이 시작되는 부분(Aufersteh'n, ja aufersteh'n)에서 방금 전에 플루트와 피콜로가 만든 고요함이 흐트러질까봐 합창단을 일부러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개의 호른이 나팔을 허공으로 쳐들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솟구쳐 오를 때, 합창단을 일으켜 세워 '날개를 달아라'라고 소리 높여 부르게 한다. 이 영상물은 가티와 RCO가 함께 이룩해나갈 말러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한다. 중간마다 한국인 단원인 함경(오보에)가 화면에 보여 친근함을 준다. 42쪽 분량의 해설지에 곡목 · 지휘자 · 성악가 소개 및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영어 · 불어 · 독어 · 네덜란드어).

RCO Live 17111 [DVD]
RCO Live 17110 [Blu-ray]

2017 로열콘세르트헤바우 실황
드뷔시 '목신의 오후' '바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다니엘레 가티(지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RCO를 이끄는 다니엘레 가티의 쌍권총. '바다'와 '봄의 제전'

2016/17 시즌에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다니엘레 가티의 2017년 1월 로열콘세트르헤바우 실황으로,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바다',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 담겨 있다. 드뷔시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18년을 며칠 앞둔 2017년 11월에 전세계에 릴리즈 된 영상물로, 가티는 두 음악이 초연될 때 세상에 던진 파격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보단, 이제는 20세기의 고전으로 안착한 두 작품 속의 보편적인 감성을 부각시킨다. '바다'는 천변만화로 유동하는 바다 풍경을 음산한듯 신비롭게 그리고 있으며, '봄의 제전'은 몽환처럼 시작해 점차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 위 상상의 건축물처럼, 점차 거대한 음향을 쌓아가는 느낌을 살리고 있다. 22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곡목 · 지휘자 · 악단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영어 · 불어 · 독어 · 네덜란드어).

[보조자료]

– 2016/17 시즌에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다니엘레 가티는 RCO의 자체 레이블을 통해 실황 영상물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다. 이 영상물은 그의 취임연주회 격인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RCO 16006), 말러 교향곡 2번 '부활'(RCO 17003)에 이은 세 번째 영상물로,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바다',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 담겨 있다. 2017년 1월 로열콘세트르헤바우 실황으로, 드뷔시(1862~1918)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18년을 며칠 앞둔 2017년 11월에 전세계에 릴리즈 되었다.

– '바다'와 '봄의 제전'의 공통점은 20세기 초반 파리에서 초연됨으로써 서양음악사에 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점일 것이다. 가티는 두 음악이 초연될 때 세상에 던진 파격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보단, 이제는 20세기의 고전으로 안착한 두 작품이 지닌 보편적인 감성을 부각시킨다.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각 교향곡의 표제로 삼은 풍경과 분위기에 도취하게 한다.

– '바다'는 드뷔시(1862~1918)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18년에 전세계 악단에 귀감이 될 만한 연주다. 어느 쪽이든, 불어오는 바람과 빛에 따라 천변만화의 움직임으로 유동하는 바다의 풍경을 음산한 듯 하면서 신비롭게 그려낸다. 한국인 단원 함경이 잉글리시 호른을 연주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될 때, 어딘지 모르게 이 악단에 대한 애착이 간다.

– '봄의 제전'은 끓어 넘치는 듯한 곡의 분위기를 제어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리듬감과 스피드감을 완벽히 살리고 있다. 몽환처럼 시작해 점차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 위 상상의 건축물처럼, 점차 거대한 음향을 쌓아가는 흐름의 느낌을 살리고 있다.

– 22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곡목 · 지휘자 · 악단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영어 · 불어 · 독어 · 네덜란드어).

Busch Media

www.buschmediagroup.com

Busch Media 8032610 [4K Ultra HD]

BUSCH MEDIA GROUP

4K Utra HD 블루레이

***본 상품들은 4K 블루레이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KHATIA BUNIATISHVILI) 2015 텔 아비브 찰스 브론프만 홀 실황 –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주빈 메타(지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피아노)

정통 클래식 공연 4K 블루레이 타이틀의 레퍼런스 등장!!!!

**** 4K Ultra HDR(High Dynamic Range)가 들어간 최초의 타이틀**

많은 남성팬들이 기다린 '그녀'. 최고의 화질로 다가오다

연주와 해석, 화질과 음질, 공연장의 분위기. 이 모두를 '최고'라는 이름으로 다 녹여 넣은 영상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루체른 심포니와의 내한(2016), 국내 리사이틀을 통해 남성 팬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 부니아티쉬빌리의 리스트 협주곡 2번(2015년 4월 실황)과 베토벤 협주곡 1번(2015년 6월 실황) 연주 영상이다. 느린 흐름으로 1 · 2악장을 일관하는 리스트 협주곡에서 그녀 특유의 요염한 동작과 건반을 희롱하는 듯한 매력은 고혹적인 로맨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세피아톤이 가미된 은은한 화질과 남다른 카메라 워킹도 4K 울트라HD의 블루레이의 기술력과 만나며 클래식 영상물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치를 보여준다. 베토벤 협주곡에서 주빈 메타와 함께 물결을 일궈나가는 은색드레스의 그녀는 당차다. 그러면서도 느린 2악장에선 오케스트라와 진하게 교감하며 농염한 매력을 다시 한 번 뽐어낸다. 클래식음악이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의 지대를 횡단하게 하는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2016년 제임스 개피건 ·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 내한하여 붉은빛 드레스 복장으로 선보인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예술의전당 콘서트홀)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가진 국내 리사이틀(롯데콘서트홀)에서 베토벤과 리스트, 쇼팽 등을 선보이며 수많은 남성 관객과 팬들을 설레게 했던 카티아 부티아티쉬빌리의 리스트와 베토벤 협주곡이 담긴 신보가 나왔다. 내한 리사이틀에서 베토벤과 리스트에서 보여준 그녀만의 당찬 매력에 반했던 팬이라면 주빈 메타의 이지적인 해석이 가미된 이 연주 영상물을 통해 부니아티쉬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987년 태생의 카티아 부니아티쉬빌리는 구소련 조지아 출신으로 2011년 소니 클래식과 음반 발매를 시작으로 뉴욕 카네기홀과 빈 무지크페라인, 베르비에 페스티벌 등 피아니스트가 설 수 있는 최상급 무대를 석권한 바 있다. 특히 발표하는 신보마다 야성미 넘치는 섹시한 드레스와 표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모국어 외에 5개 국어에 능통한 것도 그녀에게 따라 붙는 타이틀이다. 리스트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부니아티쉬빌리는 리스트 앨범(SONY)에 수록한 피아노 소나타 B단조나 '메피스토 왈츠' 등을 통해 요염한 동작과 건반을 희롱하는 듯한 매력을 물씬 풍겨왔다. 그런 그녀에게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샤를르 튀트아, 주빈 메타, 안드레이 보레이코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그녀만의 전매특허 레퍼토리.

–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 위치한 찰스 브론프만 홀에서 있었던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 연주(2015년 4월 실황)는 그 어떤 지휘자의 페이스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녀만의 템포 감각과, 철저히 주관에 입각하여 펼쳐내는 낭만주의적 해석을 만날 수 있다. 1악장의 문을 여는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아사이'의 느리고 감미로운 흐름을, 카메라는 수평 트래킹으로 부니아티쉬빌리의 시그니쳐와도 같은 검은빛 머릿결과 눈동자를 잡아내며 음악과 연주자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만든다. 2악장에서 첼로 수석 엠마누에레 실베스트리와 교감하는 그녀는 고혹적인 로맨스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다른 영상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세피아톤이 가미된 은은한 영상과 오케스트라의 여러 파트를 비추는 각도도 이 영상물만의 큰 매력. 특히 클래식 음악의 영상물에 처음으로 적용된 '4K 울트라HD의 블루레이'로서 화질과 음질에 있어서 기존의 블루레이의 성능을 압도한다. 이러한 기술력 역시 남다른 영상 연출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리스트와 커플링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2015년 6월 실황)은 더욱더 당차고 화려하다. 그럼에도 2악장 '라르고'에서 그녀는 오케스트라와 진하게 교감하며 진한 매력을 다시 한 번 뽐어낸다.

Busch Media 8032484 [4K Ultra HD]

[ULTIMATE EDITION] BEST OF 4K [VOL.1]

4K UHD를 최대한 활용한 혁신적인 16편의 단편 영상물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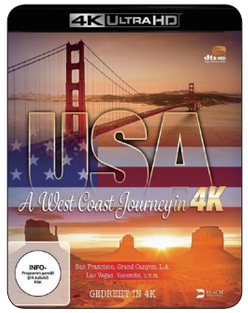
4K 영화 촬영의 선구자가 보여주는 이 환상적이고 놀라운 오디오-비쥬얼 경험. 미국의 국립 공원과 로마의 유적지를 지나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광대한 사파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각국의 문화유적지, 자연유산들이 놀라운 화질로 펼쳐진다. 홈 시네마 애호가들의 즐거움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UHD T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Busch Media 8032548 [4K Ultra HD]

BEST OF 4K [VOL.2]

Best of 4K volume 1 을 이어 4K 영상물을 체험할 수 있는 2번째 모음집

세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화려한 도시들, 살아 숨쉬는듯한 자연의 생생함을 타임랩스 기술로 담아내어 UHD TV로 느낄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었다. 이 멋진 컬렉션을 통하여 강렬한 태양의 미국 서부 해안, 활기 넘치는 리오와 이비자 섬, 신비로운 캄보디아,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수족관 영상 등을 즐길 수 있다.



Busch Media 8032485 [4K Ultra HD]

USA: A WEST COAST JUORNEY IN 4K

미국 서부에서 가장 흥미롭고 그림같이 생생한 장소들을 4K 해상도로 제공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 애리조나,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40곳이 넘는 다양한 풍경과 도시를 탐험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서부터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밤 문화 탐험.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숨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자연의 경이로움을 Ultra-HD 해상도로 촬영하였다. 또한, 타임-랩스 촬영기술과 눈을 뗄 수 없는 항공 영상들을 특징으로 역동적인 도시와 경이로운 자연을 담아내었다.

Busch Media 8032483 [4K Ultra HD]

INDIA 4K

신비로운 영성의 조국에 대한 매혹적인 여행 / 인도 – 전통, 건축, 문화와 종교, 그리고 고대 문명

현재와 고대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나라 인도. 영화 제작자 Simon Busch와 카메라맨 Alexander SASS가 인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장소인 왕궁과 사원을 방문하였다. 인도의 수수한 생활 속 아직 이방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 이들은 몇 달 동안이나 인도 북쪽을 여행하였고 마침내 수수하지만 매혹적인 인도의 일상을 담는데 성공하였다. 죽은 사람을 재로 태워버리고 수많은 순례자가 몸을 담그는 삶과 죽음이 한데 엉킨 갠지스 강의 풍경을 압도적인 풍경과 화질로 선보인다.

Busch Media 8032499 [4K Ultra HD]

FLYING CLIPPER

1960년대 지중해를 여행하는 스웨덴 요트의 모험에 관한 기념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이 영화를 위해 특수 제작된 70mm 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화는 고해상도 형식으로 제작된 최초의 독일 영화이다. 요트가 정박한 도시 곳곳의 풍경과 일상 : 모나코의 포뮬러 원 경주, USS 항공모함의 위엄은 당시 촬영 기술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걸작이며 오늘날에도 놀라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카메라맨들이 동행하여 이 흥미 진진한 모험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원본 필름과 사운드를 4K로 리마스터링하여 영화관에서의 감동을 집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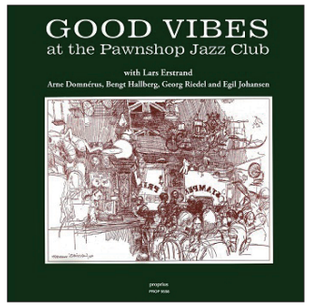
Busch Media 8032543 [4K Ultra HD]

ULTRA HD: AQUARIUM 4K

천여가지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사는 뒤스부르크의 수족관

그 다채로운 매력 속에서 Busch Media 가 선정한 아홉 가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뛰어난 4K 화질로 담았다. Full HD 보다 무려 4배나 높은 해상도를 위해 영화 호빗, 영화 300을 촬영한 RED–EPIC Camera로 촬영하였고 레코딩 또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운드를 선보인다. 이 완벽한 영상물은 UHD, OLED TV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4K UHD TV의 화질을 증명할 단 하나의 샘플러.

Proprius www.proprius.com



Proprius PROP9558
[180g 독일제작]

세계 최고의 오디오 파일용 레이블
Proprius의 베스트 타이틀

JAZZ AT THE PAWNSHOP VOL.3

1976년 12월 7일, 레코딩의 두 번째 날에 녹음되어 가장 늦게 앨범으로 소개된 Jazz At The Pawnshop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비록 국내에서는 1, 2편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Good Vibes란 타이틀처럼 비브라포니스트 라스 에르스타란드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퀸텟 구성의 라인업으로 흥겨운 스윙 재즈를 들려주고 있다. 특히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풍성한 블로윙과 더블 베이스의 은근한 울림 거기에다 비브라폰의 경쾌하면서도 명료한 터치가 가미되어 전작들에 비해 훨씬 입체적인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 Live RCO17007
[180g 독일제작]

2017년 1월 로열콘세르트헤바우 실황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다니엘레 가티(지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RCO를 이끄는 다니엘레 가티의 '봄의 제전'

2016/17 시즌에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다니엘레 가티의 2017년 1월 로열콘세르트헤바우 실황 앨범으로,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 담겨 있다. 20세기 초반에 서양 음악사를 뒤흔들었던 명작을 가티는 파격보단 안정감 있는 지휘로 이끈다. 그러면서도 '봄의 제전'은 몽환처럼 시작해 점차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 위 상상의 건축물처럼, 점차 거대한 음향을 쌓아가는 느낌을 살리고 있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SBPH005 [Photo Book]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화보집

Moving Music

모니카 리터하우스(사진), 엘레오노네 뷔닝(서문 · 인터뷰어)

내한(11월 19~20일) 앞둔 래틀과 베를린 필 단원들의 '졸업 앨범'

2002년에 부임한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의 시간을 담은 263쪽 분량의 화보집이다. 10년 넘게 모니카 리터하우스의 카메라는 이들의 리허설과 콘서트, 무대 뒤와 연습실, 사인회장 등을 따라 다녔다. 2006년 뉴욕 카네기홀을 시작으로 2017년 스위스 로제 콘서트홀까지, 60곳 이상의 전 세계 공연장에서의 연주와 무대 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서울 예술의전당(2011 · 2013년)과 세종문화회관(2013년) 내한 장면도 수록되어 한결 정겹게 느껴진다. 2쪽을 가득 채운 스프레드 컷부터 1쪽에 3~4컷으로 구성된 아기자기한 구성이다. 오케스트라의 전체 모습과 단원들의 모습을 담은 구성 중중간마다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의 전문기자 엘레오노네 뷔닝이 진행한 22명 단원들의 인터뷰(독일어 · 영어)가 수록되어 있다. 악장의 리더십, 첫 여성 단원, 최연장자 단원,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는 단원, 고문헌을 필사하는 별난 취미를 지닌 단원, 형제 단원 등 그들만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인터뷰는 독일어와 영어로 구성. 오케스트라라는 존재는 단원들의 합이 만들어간다는 래틀만의 음악관이 고스란히 화보집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래틀 · 베를린 필 내한 2017년 11월 19일: R.슈트라우스 '돈 후안', 라벨 피아노 협주곡(조성진), 브람스 교향곡 4번**
20일: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진은숙 '코로스 코르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보조자료]

– 베를린 필을 볼 수 있는 곳은 단 두 개다. 그들이 오르는 무대와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이 화보집이 될 것이다. 2002년에 부임한 사이먼 래틀과 함께 해온 시간을 담은 총 263쪽 분량의 화보집이다. 10년 넘게 사진작가 모니카 리터하우스의 카메라는 이들의 리허설, 콘서트, 무대 뒤, 연습실, 사인회장을 따라 다녔다. 2006년 뉴욕 카네기홀을 시작으로 2017년 스위스 로제 콘서트홀까지, 60곳 이상의 전 세계 공연장에서 가진 연주 장면과 무대 뒤의 준비와 연습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moving music'라는 제목은 '움직이는 음악'이자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음악'으로 번역될 것이다. 이 군단은 자신들을 움직여 관객과 만나고, 그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기 때문이다. 2011년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내한, 2013년 서울 예술의전당 내한 장면도 수록되어 있어 한결 정겹게 느껴진다.

– 2쪽을 가득 메우는 스프레드 컷부터 1쪽에 3~4컷의 아기자기한 구성을 통해 만나는 이들은 무대 위에선 환희와 열정의 연주에 불타오르고, 무대 뒤의 이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풋풋한 인간적 면모를 드러낸다. 중간마다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의 전문기자 엘레오노네 뷔닝이 진행한 22명 단원들의 인상적인 인터뷰(독일어 · 영어)가 수록되어 있다. 뷔닝이 쓴 서문('경이로운 기록')을 시작으로 악장 다니엘 스타브라바(p20–21), 첫 여성 단원인 제1바이올린 마들렌 카루초(p30–31), 첼로 수석올라프 마닝거(p42–43), 호른 수석 스테판 도르(p52–53), 플루트 수석 에마뉘엘 파위(p66), 제1바이올린 크지슈토프 폴로네크(p79), 제2바이올린 에바–마리아 토마시(p88–89), 트롬본 예스퍼 버스크 쇠렌(p100), 더블베이스 마르틴 헤인체(p108), 오보에 수석 알브레히트 마이어(p116), 더블베이스 피터 리겔바우어(p138–139), 단원들 중 최연장자인 호른 클라우스 발렌도프르(p144), 비올라 울리히 크뇌르저(p151), 바순 모르 비롱(p160), 타악기 라파엘 하에게르(p178), 바순 마르쿠스 바이트만(p184–185), 첼로 레이첼 헬레르(p198), 트롬본 토마스 레이엔데커(p208–209), 바로크 음악에 흥미를 지닌 더블베이스 울리히 볼프(p216–218), 고문헌 필사의 취미를 지닌 제2바이올린 수석 크리스티안 스타델만(p220), 악단 내의 형제 단원인 제2바이올린 크리스토프 폰 데르 나머와 비올라 마르틴 폰 데르 나머(p228)의 인터뷰이다.

– 1~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인터뷰는 종합적으로 솔로 활동과 베를린 필 활동의 상호 영향, 스타 객원지휘자들에 대한 평가와 에피소드, 카라얀이 후세대 연주자들 양성을 위하여 만든 카라얀 아카데미 출신들의 이야기, 서로에 대한 음악적 자극을 어떻게 주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을 묻고 이들의 경험과 재치가 묻은 답변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래틀 중심의 책이 아니라, 단원들의 모습과 개개인의 드라마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만약 카라얀의 시대였다면 꿈도 못 꾸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오케스트라라는 존재란 단원들의 합이 만들어간다는 래틀만의 음악관이 고스란히 화보집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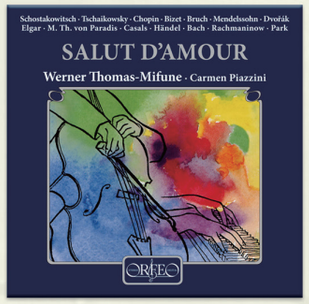
ORFEO STEREO DIGITAL

Audiophile 아날로그 Mastering [180g 2LP 버전]

'자클린의 눈물' & '사랑의 인사'

첼로의 매력은 역시 첼로 특유의 풍부한 저음으로 가슴을 저미는 듯한 감동을 유감없이 뿜어내는 것이다.
우아하고 차분하며 섬세한 보잉으로 첼로의 영원한 베스트 곡인 '자크린의 눈물'을 비롯한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 브루흐의 콜니드라이 등
베르너 토마스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이렇게 풍성한 첼로 음악이 묵직한 LP음향으로 울려 퍼지면 어떻게 다를까!
기존 LP와는 비교불가한 최고의 명반. 설명보다는 직접듣고 감동을 느끼길 추천한다.

[LP] Orfeo AML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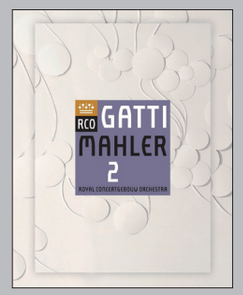


[LP] Orfeo AMLP002

가슴 깊이 스미는 절절한 슬픔!!!
베르너 토마스 미푸네의 로맨틱 첼로 명곡!
'자클린의 눈물'에 빛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또 하나의 LP는 《사랑의 인사》란 타이틀로 나왔던
《자클린의 눈물》의 후속작.
이것 역시 베르너 토마스–미푸네의 대 히트작이다!

◆ 180g 중량반
◆ **Superior Analogue Mastering by Thorstein Scheffner** *(Organic Music)*
◆ **Audiophile Quality Pressing at Pallas, Germany**
◆ 최상의 사운드를 위한 **Special 2LP Version**
◆ **Pure Virgin Vinyl**
◆ **Limited Edition**



표지사진
RCO Live 가티 '말러 2번'
DVD, Blu-ray, SACD

〈아울로스뉴스〉 2017년 12월호
통권 제 74호 발행 2017년 12월 26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02582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